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물품 번호 3648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3555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35969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36315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3678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3574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3597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36786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364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3690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358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3650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0886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0886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08862 320)

이 책들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배부과 또는 [store.lds.org](http://store.lds.org)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LDS.org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pth-development@ldschurch.org](mailto:pth-development@ldschurch.org)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의 성명, 주소, 워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적으시고, 반드시 책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책의 장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3/11

번역 승인: 3/11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Gordon B. Hinckley*의 번역

Korean

08862 320



# 목차

소개.....	v
역사적 사건 요약.....	ix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와 성역.....	1
1 복음의 회복—찬란한 아침이 밝아 오ム.....	40
2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52
3 행복한 태도와 낙관의 영을 고양시킴.....	64
4 개척자들의 신앙과 희생의 유산.....	75
5 하나님의 딸들.....	88
6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102
7 영의 속삭임.....	112
8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120
9 값진 은사, 간증.....	133
10 결혼 생활에서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키움.....	144
11 가정—의로운 삶의 기초.....	156
12 순종: 단순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	168
13 현세적인 자립을 통한 평안과 만족.....	180
14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192
15 거룩한 신권.....	204
16 물몬경의 권능.....	214
17 값진 배움의 과정을 이어 감.....	226
18 정결—우리의 삶을 받치는 주춧돌.....	238
19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신권 지도력.....	248
20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유대감.....	262
21 후기의 기적적인 선교 사업.....	272
22 사랑으로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에게 다가감.....	284
23 거룩한 성전의 축복.....	298
2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만인이 받을 수 있으나 그 효력은 개인적으로 적용됨.....	310
25 신앙으로 나아감.....	321



*James M. Harrison*



## 소개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를 마련했다. 이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이 출간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소장하는 복음 참고 서적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 책들은 개인 학습 및 가르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이 책들은 또한 여러분이 가정의 밤 공과 및 다른 공과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교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1995년 3월 12일부터 2008년 1월 27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 개인 학습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영감을 구한다. 각 장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은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제언들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 공부할 때 성신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생각과 느낌을 적는다.
- 기억하고 싶은 문구들에 밑줄을 긋는다. 그 문구들을 암기하거나 경전의 관련 성구 옆에 적어 둘 수도 있다.
-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각 장이나 문구를 두 번 이상 읽는다.
-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복음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실까?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근심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본다.
- 배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눈다.

---

## 이 책으로 가르치기

이 책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가르칠 준비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핑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도록 그 장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항목들을 선정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해당 장을 읽고 각 장의 끝에 있는 “학습 및 교수 제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할 수 있다.

### 핑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토론하도록 격려한다.

이 책을 가르칠 때에는 서로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도록 권유한다. 그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때, 배우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더 잘 갖춰질 것이다.

모든 가르침을 다루려 애쓰기보다는 바람직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참여자들이 핑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읽고 그 가르침을 각자의 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찾도록 돕기 위해 토론을 이끈다.

각 장 끝에 있는 질문들은 토론을 장려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된다. 여러분의 반원들을 위해 직접 질문을 만들어도 좋다.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참여자들에게 그 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중에서 선택하여 개인 및 소그룹에 지정해 준다. 질문과 관련된 가르침을 그 장에서 찾아보도록 참여자들에게 부탁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생각과 통찰을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 그 장에서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 중 일부를 함께 읽는다. 참여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과 관련된 예를 경전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 참여자들에게 한 편을 선택해서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편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같은 조로 지명해 배운 내용을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 적용하고 나누도록 격려한다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참여자들에게 가정과 교회 및 다른 곳에서 책임을 수행할 때,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 참여자들에게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경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권유한다.
- 참여자들에게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 일부를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누도록 격려한다.

### 토론 마무리

공과를 짧게 요약하거나 한두 사람에게 공과를 요약해 달라고 부탁한다. 토론한 가르침에 대해 간증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참여자들을 격려한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라고 권유해도 좋다.

## 출처 자료에 대한 정보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설교, 저서 및 인터뷰에서 직접 인용되었다. 인쇄된 출처에서 가져온 인용문은 읽기 편하도록 편집이나 인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문에 사용된 구두법, 철자법, 대문자 사용, 문단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용문이 인쇄된 출처에 최대한 충실했기 때문에 본문에는 미미하나마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회를 지칭하는 대명사의 경우, 어떤 인용문에는 소문자로, 또 어떤 곳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영문에 해당하는 내용임-옮긴이)

힉클리 회장은 종종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men*(남자들), *man*(남자), 또는 *mankind*(인류)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he*(그), *his*(그의), *him*(그를) 같은 대명사를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어적 관습은 그의 시대에 일반적인 것이었다.



## 역사적 사건 요약

다음 연대표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삶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1910년 6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와 에이다 비트너 힝클리 사이에서 태어남.
1922년	부친과 함께 스테이크 신권 모임에 참석하여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관한 간증을 얻음.
1932년	유타 대학교 졸업. 영어, 언론학, 고대 언어를 공부함.
1933~1935년	전임 선교사로 유럽 선교부 영국에서 봉사.
1935~1943년	교회 라디오, 홍보 및 선교 자료 위원회 집행 서기로 일함.
1937년	본부 주일학교 임원회로 부름받음.
1937년 4월 29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조리 페이와 결혼함.
1943~1945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및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덴버 앤드 리오그란데 레일로드(Denver and Rio Grande Railroad)사의 부관리자로 일함.
1945~1958년	1951년에 교회 직장으로 돌아와 새로 조직된 선교사부에서 일일 업무 현황을 총괄하기 시작함.
1953~195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지시 아래 다양한 언어로 성전 엔다우먼트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추진하고 총괄함.
1956년 10월 28일	이스트 밀크리크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부름받음.
1958년 4월 6일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됨.
1961년 10월 5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서 사도로 성임받고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별됨.

- 1981년 7월 23일 제일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아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과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앤 엘돈 태너 회장을 도움.
- 1982년 12월 2일 김볼 회장의 제2보좌로 부름받음.
- 1985년 11월 10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제1보좌로 부름받음.
- 1994년 6월 5일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제1보좌로 부름받음.
- 1995년 3월 3일 헌터 회장의 서거로 선임 사도가 됨.
- 1995년 3월 12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성별됨.
- 1995년 9월 23일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 1996년 2월 미국 이외 지역의 교회 회원 수가 미국 내의 교회 회원 수를 능가함.
- 1996년 4월 7일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60 Minutes*에 출연함.
- 1996년 5월 26일 재임 기간 동안 처음으로 헌납한 중국 홍콩 성전을 비롯하여 직접 헌납한 63개의 성전을 포함, 총 77개의 성전이 헌납됨.
- 1997년 4월 5일 새로운 3개의 칠십인 정원회를 조직함.
- 1997년 10월 4일 전 세계에 소규모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발표함.
- 2000년 1월 1일 제일정원회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료 사도들과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발표함.
- 2000년 10월 1일 운영되는 성전 중 100번째로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을 헌납함.
- 2000년 10월 8일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함.
- 2001년 3월 31일 영구 교육 기금의 창설을 발표함.
- 2002년 2월 8일 동계 올림픽 기간에 솔트레이크시티를 찾아온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환영사를 전함.
- 2002년 6월 27일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158주년 기념일에 일리노이 나부 성전을 헌납함
- 2003년 1월 11일 첫 번째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을 감리함.

- 2003년 2월 8일 초등학교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위성 방송을 통해 백만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함.
- 2004년 4월 6일 아내인 마조리의 죽음을 애도함.
- 2004년 6월 23일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음.
- 2007년 6월 26일 교회 회원 수가 1300만이 넘었으며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백만 번째 선교사가 봉사했음을 공표함.
- 2008년 1월 27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자택에서 서거함.





## 고든 비 힝클리리 생애와 성역

1998년 2월 16일에 약 6,700여명의 후기 성도들이 가나 아크라의 독립 광장에 모여서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리 회장을 환영했다.<sup>1</sup>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나 성전 건축 소식을 전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힝클리리 회장이 이 소식을 전했다 때,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를 지르고, 서로 얼싸안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 내어 울기도 했습니다.”라고 말씀했다.<sup>2</sup> 몇 년이 지나 성전이 건립되어 헌납된 후에 그날 참석했던 한 여성이 그 당시의 기쁨을 회상하면서 성전이 자신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아직도 고든 비 힝클리리 회장님께서 가나를 방문하셔서 우리 조국 땅에 성전이 건립된다는 발표를 하셨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얼굴이 흥분과 행복에 물들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던 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

지금은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어서 저는 남편과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하고 인봉되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때 필멸의 삶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소망이 있습니다.”<sup>3</sup>

힝클리리 회장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매진하면서 이 “커다란 소망”을 찾도록 도왔다. 가나에서의 행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자주 동시에 수천 명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그는 또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갔다. 칠십인 에드니 와이 고마츠 장로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 힝클리리 회장이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전했다.

“제가 봉사한 3년 동안 그분은 제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난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되었지요. … 매번 비행기에서 내리실 때마다 커다란 열정으로 마치 우물에서 펌프로 물을 끄는 것처럼 힘차게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고마츠 회장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

까? ... 회장님은 훌륭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고 ... 그분이 떠나실 때 저는 그저 100퍼센트가 아니라 105퍼센트를 해야겠다고 느끼곤 했습니다.”<sup>4</sup>

사람들은 힝클리 회장의 영감에 찬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때문에 고무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힝클리 회장님 내외분] 중앙아메리카에서 예배당을 떠나 공항으로 가던 중에 타고 있던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넬슨 자매는 뒤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철골을 불안하게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교차로에서 돌진해 왔습니다. 충동을 피하기 위해 기사가 급히 트럭을 멈추는 바람에 철골이 창처럼 날아와 힝클리 회장님의 차를 관통했습니다. 창문이 부서지고 차체와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사고였습니다. 옷과 피부에서 유리 조각을 털어내는 동안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계속 갑시다.’”<sup>5</sup>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온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힝클리 회장의 삶과 성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홀런드 장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미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한” 분이였다.<sup>6</sup>

---

### 가족의 유산—신앙과 인내심의 밑바탕

고든 비트너 힝클리가 1910년 6월 23일에 태어났을 때, 그는 자기 모친의 첫아들이었으며, 8명의 이복 형들과 누나들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했다. 고든의 부친인 브라이언트 스트링햄 힝클리는 첫 번째 아내인 크리스틴과 사별한 후에 에이다 비트너와 결혼했다. 에이다와 브라이언트는 고든의 동생을 네 명 더 낳았다. 그들은 이복 형제자매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대가족을 사랑으로 양육했다. 고든은 어린 시절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고든의 성과 중간 이름은 그의 고귀한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다. 힝클리 가의 조상 중에는 지금은 미합중국이 된 대륙에 도착한 초기 청교도 순례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1600년대에 그곳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1620년 유럽을 떠나 북미로 향하는 이민자들을 수송하는 첫 번째 배들 가운데 하나인 *메이플라워* 호의 승객이었다. 두 세기 이상이 지났을 때, 고든의 조부인 나다니엘 힝클리는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1843년에 막 고아가 되었던 14세의 이라는 일리노이 나부에서 조셉과 하이럼의 설교를 듣고 나서 교회에 가입했다. 고든의 증조모인 안나 바머서 비트너 스타도 개척자였다. 그녀의 아들이며 고든의 외조부인 브레넨만

바 비트너는 1849년에 솔트레이크 밸리로 향했던 여정을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열한 살이었던] 저는 멩에를 멘 네 마리의 황소가 끄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몰고 사막의 열기와 한기를 뚫고 강과 산을 건너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sup>7</sup>

브라이언트 힝클리는 자주 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그들의 풍부한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한번은 *메이플라워* 호 승객자들의 위험한 여정과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마주해야 했던 길고도 혹독했던 겨울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메이플라워* 호가 봄에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102명 중] 오직 49명만이 살아 남았다. 아무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지. 너희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 이 정신을 타고난 거야.”<sup>8</sup> 고든은 이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를 얻어 배우고 봉사하며 간증할 수 있었다.

---

### 어린 시절—낙천적이며 부지런하고 충실하라고 배움

어린 시절의 고든 힝클리는 그의 말년에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활동적이거나 원기 왕성하지 않았다. 그는 “야위고 약한 소년”이었고 질병에도 잘 걸렸다.<sup>9</sup> 고든이 두 살 때 “심한 백일해에 걸려, 의사가 [그의 어머니] 에이다에게 유일한 치료법은 깨끗한 시골 공기뿐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트는 5에이커(약 20,000제곱미터)의 농장을 구입하고 … 작은 여름 별장을 지었다.”<sup>10</sup> 그 농장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는 이스트 밀 크리크 지역에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 일하고 거닐며 놀면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기에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에이다와 브라이언트 힝클리는 낙천적이며 부지런한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1915년에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소개되자마자 바로 시작했다. 그들은 잠자기 전에 동화를 들려주곤 했는데, 종종 경전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며 집 안의 방 하나를 자녀들이 양서를 읽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마련했다. 그들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자녀들이 스스로 수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고든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끊임 없는 영향력 아래에서 양육받으며 신앙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가 열두 살이었던 소년 시절에, 저의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던 스테이크의 신권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스테이크

회장이셨던 아버지는 앞의 연단에 앉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그 신권 모임이 시작할 때, 삼사백 명의 형제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모여들었으나, 각자 마음속에는 똑같은 확신을 갖고, 다 함께 이같이 위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 부어 선지자 삼고  
마지막 경륜을 시작게 하니  
못왕과 온 백성 경배하리

형제들의 신앙에 찬 찬송을 들을 때 저의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어린 마음속에는 성령이 심어 주신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전능자의 선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sup>11</sup>

---

### 계속되는 교육과 시련의 시기

어린 시절의 고든은 벽과 책상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성숙해 가면서 책과 학교, 그리고 가정의 도서관을 그가 어린 소년 시절에 맨발로 뛰어다녔던 들판만큼이나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192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같은 해에 유타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는 4년의 대학 시절 동안 거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난을 겪었다. 1929년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락했으며, 대공황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휩쓸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실업률이 약 35퍼센트였지만, 고든은 운 좋게도 정비 직원으로 일하면서 학비와 학용품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소유의 데저렛 체육관(Deseret Gym)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브라이언트는 자기 월급을 삭감하여 다른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sup>12</sup>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도 잊게 만들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고든의 모친에게서 암이 발견된 것이었다. 고든이 20세였던 1930년에, 그녀는 5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고든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깊고도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sup>13</sup> 이러한 개인적인 시련과 더불어 세속적인 철학과 당시의 냉소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는 어려운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고든은 이렇게 회상했다. “지독한 낙담의 시기라는 것을 교정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포함한 몇 가지 것들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청남 시절의 고든 비 힝클리

대학생이 그런 의구심을 품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의심과 냉소적인]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sup>14</sup>

고든은 솟아나오는 의문들로 고뇌하기는 했지만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에게는 근본적인 사랑의 기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훌륭한 부모, 훌륭한 가족, 훌륭한 감독, 헌신적이고 충실한 교사 및 읽고 사색할 경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자신과 자신의 또래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고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라도 이겨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훌륭하고 선한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부터 위대한 힘을 끌어냈습니다.”<sup>15</sup>

## 선교사 봉사와 개인적인 개종

고든은 영어를 전공으로, 고대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였으며, 1932년에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다. 일 년 후에 그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기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해야겠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대공황 중이었지만 그는 근근히 생활하면서도 교육비를 충당할 소소한 금액을 예금해 놓았으며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살고 있던 젊은 여성인 마조리 페이와 사랑을 키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3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고든은 그의 감독이었던 존 시 던칸을 만나게 되었고, 감독은 그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대공황이었기에 선교사로 부름받는 젊은이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든에게 “충격적으로 여겨지는 제안”이었다.<sup>16</sup> 대부분의 가족들은 젊은이들을 지원할 재원이 전혀 없었다.

고든은 던칸 감독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족이 어떻게 선교사 비용을 감당할지 걱정스러웠다. 게다가 그가 돈을 저축해 놓은 은행이 파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염려는 더 커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네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거란다.’ 그런 후에 아버지와 제 동생은 제가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즈음 해서 어머니께서 남기신 소액의 예금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식료품이나 다른 물건을 구매하실 때 남은 잔돈을 저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도움이 더해져서 저는 선교 사업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동전들을 성스럽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동전들을 제 명예를 걸고 지켰습니다.”<sup>17</sup> 그는 유럽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아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느낀 브라이언트 힝클리리는 힘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메모를 준비했다. 고든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선교 사업을 떠날 때 저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네 마디의 글이 적힌 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5:36)”<sup>18</sup> 그 짙막한 글은 특히 몇 주 후에 부친이 직접 적은 다섯 마디의 말씀과 더불어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선교사로서 충실하고, 명예롭게 봉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힝클리 장로는 1933년 6월 29일 영국 프레스톤에 도착한 첫날부터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친이 직접 적은 그 다섯 마디의 말씀을 받았다. 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동반자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힝클리 장로는 “장로님은 같이 갈 사

람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몇 시간 후에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군중들 앞의 연단에 서서 노래 부르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sup>19</sup>

힝클리리 장로는 많은 이들이 회복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를 휩쓸고 있던 재정적인 불황은 그가 전차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든 듯했으며, 그들과 가까워져야 할 이유도 찾기 힘들었다. 게다가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억했다. “영국은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에 잔디가 수분하여 씨앗으로 변하는데 바로 그때 제가 영국에 도착했습니다.”<sup>20</sup> 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해졌고, 모든 상황이 악화된 듯했다. 그는 가족이 그리웠으며 마조리가 보고 싶었다. 고향의 친근함도 그리웠다. 선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들었다. 그와 동료 선교사들은 매주 일요일에 작은 지부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했지만, 구도자들을 가르칠 기회는 아주 드물었다.

힝클리리 장로는 시간과 가족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부친에게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브라이언트 힝클리리는 아들이 평생 따르게 될 충고를 담아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고든에게, 네가 최근에 보낸 편지를 받았단다. 내가 해 줄 말은 이것뿐이다.” 그런 후에 그가 전에 적었던 네 마디의 말과 함께 큰 힘이 되었던 다섯 마디의 말이 이어졌다. “네 자신을 잊고 일하러 나가거라.”<sup>21</sup> 이 권고를 보자 고든 장로는 그날 이른 아침에 동반자와 읽었던 성구가 떠올랐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든 젊은 힝클리리 장로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혔고, 제 삶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영국인들의 위대함도 보았습니다. 이 훌륭한 나라에서 집에 온 것 같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sup>22</sup>

고든은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어머니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암울하고 낙담했던 시기에 어머니의 위안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삶을 영위하며 제 의무를 수행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생각은 고통스러웠으며, [그래서인지]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기르지 못했을 자제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니다.”<sup>23</sup>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전임 선교사 시절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

그는 목적과 열정을 지닌 선교사가 되었다. 그의 선교 사업 초기 여덟 달 동안의 기록을 보면, 그는 비록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지는 못했지만 8,785장의 팸플릿을 나눠 주었고, 440시간 이상을 회원들과 함께 보냈으며, 191개의 모임에 참석했고, 220번의 복음 관련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 사람에게 확인 의식을 베풀었다.<sup>24</sup>

1934년 3월에 힝클리 장로는 프레스틴에서 런던으로 옮겨 가서 영국 및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던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에프 메릴 장로의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sup>25</sup> 그는 그곳에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가르치며 선교 사업의 나머지 기간을 보냈다. 개종자 침례는 드물었지만, 브라이언트와 에이다 힝클리의 아들의 가슴 속에는 후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던 개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 주님께 봉사할 새로운 기회

고든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시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여행을 했으니까요.”<sup>26</sup> 그와 두 명의 선교사 동반자는 당시의 보편적인 경로였던 유럽을 거쳐 미국의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지쳐 있었다. 그가 돌아온 직후에 가족이 휴가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그는 집에 머물렀다. 그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여행을 돌아보며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누렸는데, 축복사의 축복 일부분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소년이었을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문에는 제가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간증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런던에서 봉사하면서 간증을 전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는 [암스테르담으로 갔으며], 저는 어느 모임에서 몇 마디 말씀과 간증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베를린으로 가서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리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미국에 도착하여 워싱턴 D.C.에서도 어느 일요일에 유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는 축복문의 그 문구를 성취했다. 나는 세계의 위대한 수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sup>27</sup>

고든은 자신의 선교 사업을 마쳤다고 여기기 전에 한 가지 임무를 더 달성해야 했다. 조셉 에프 메릴 장로는 그에게 영국 및 유럽 선교부에서 필요한 것들에 관해 제일회장단에게 보고하도록 부탁했다. 귀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1935년 8월 20일 아침에 그는 교회 본부 건물의 회의실로 인도되었다. 제일회장단의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 그리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과 악수를 하면서 그는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압도되었다. 그랜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힝클리 형제님, 15분을 드릴 테니 메릴 장로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sup>28</sup>

그 15분 동안 갓 돌아온 귀환 선교사는 메릴 장로의 걱정거리였던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될, 더 좋은 인쇄 자료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발표를 듣고 난 후 그랜트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 모임은 계획된 것보다 한 시간이나 더 길어졌다.

고든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75분 동안의 모임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를 후에 맥케이 회장에게서 새로 조직된 교회 라디오, 홍보 및 선교 자료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일해 보겠

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여섯 명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고든이 제일회장단과의 모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던 필요 사항을 다루기로 했다.<sup>29</sup>

고든은 다시 한 번 대학원 진학과, 기자로서 일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영상 제작을 위한 대본을 개발했고, 선교사들을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으며, 미디어 분야의 개척자들과 직업적 관계를 형성했고, 교회 역사를 조사하고 저술했다. 그는 교회 회원들의 신앙을 키우며 교회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메시지를 고안하는 데 이바지했다. 한번은 한 친구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작성한 라디오 대본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재능을 개발했는지를 물었다. 고든은 이렇게 답했다.

“내게 말씀하거나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 덕분이라네. 나는 내게 말씀하고 글을 쓰는 뛰어난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혹시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졌던 기회를 통해서 온 것이라네.”<sup>30</sup>

고든은 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저술가로서의 기술을 연마했다. 또한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고든은 여섯 명의 십이사도가 신중히 결정을 내리고 서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양한 분들의 성스러운 부름과 그들이 함께 협의할 때 이루어지는 계시적 과정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중에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던 스티븐 엘 리차드 장로가 당시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고든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분은] 사려 깊고, 신중하며, 지혜로웠습니다. 결코 서둘러서 행동하지 않았으며 일을 진행하기 전에 면밀히 살피셨습니다. 저는 신중할 때 이 사업을 가장 훌륭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파급 효과가 크고,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sup>31</sup>

다른 다섯 명의 위원회 위원들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존 에이 윗소 장로, 찰스 에이 칼리스 장로, 알론조 에이 힝클리 장로(고든의 숙부), 그리고 엘버트 이 보웬 장로였다. 고든은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위대한 분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게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인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약점과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인간적인 면 때문에 그분들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그분들에게서 필멸의 본성을 뛰어넘는 신성한 요소, 아니면 최소한 그분들이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엄청난 대업에 기울이는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면



교회 라디오, 홍보 및 선교 자료 위원회의 직원으로서의 고든 비 힝클리

서 영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이나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간적인 면과 약점을 보았으며, 모든 분들에게 그런 면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그분들의 엄청난 신앙의 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았으며, 주님의 사업과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또한 보았습니다.”<sup>32</sup>

---

### 결혼, 가족, 그리고 교회 봉사

물론 고든은 오직 일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영국에서 돌아온 후에 마조리 페이와 다시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가 떠날 때 힘겨워했던 것처럼 마조리도 힘들어 했었다. 마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갈망했었지만 그가 탄 기차가 역을 빠져나갈 때 느꼈던 공허감과 외로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sup>33</sup>

고든이 영국으로 떠나기 4년 전이었던 1929년 가을에 마조리는 유타 대학교에 등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공황으로 부친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님과 다섯 명의 어

린 동생들을 돕기 위해 비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고든이 1935년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계속 일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했지만, 굳은 결심으로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스스로 독서를 통해 교양을 키웠다.

마조리는 쾌활한 성격, 근면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고든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고든의 선함과 신앙에 감명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고든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확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제가 결코 그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이었다. “저는 복음과,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사람임을 알았기에 안심되었습니다.”<sup>34</sup>

고든과 마조리는 1937년 4월 2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고, 이스트 밀 크리크에 있는 힝클리 가족의 여름 별장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벽난로를 설치하고, 일 년 내내 거주할 수 있도록 다른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으며, 과수원과 정원을 가꾸고, 근처 땅에 자신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고든이 어린 시절 여름을 보냈던 시골 지역은 그와 마조리가 가정을 꾸려 자녀들인 캐슬린, 리처드, 버지니아, 클락, 그리고 제인을 양육하는 장소가 되었다.

고든과 마조리는 사랑, 상호 존중, 근면, 그리고 복음이 살아 숨쉬는 가정을 이루었다. 자녀들은 매일 가족 기도를 하면서 부모들의 신앙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다.

힝클리의 가정은 규칙은 많지 않았으나 자녀들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던 곳이었다. 마조리는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관해 말했다. 그녀는 남편과 공유했던 양육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저는 자녀들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배웠으므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코 ‘안 돼’라고 말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살 때는 매일 하루를 넘기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자녀들의 모든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사소한 일까지 걱정하지는 않으려 애썼습니다.”<sup>35</sup> 부모들이 자기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경험을 쌓고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기에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이 독단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마조리 페이

힝클리 가정에는 또한 웃음이 가득했다. 마조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헤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웃어넘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거나 울어야 합니다. 저는 웃는 게 더 좋습니다. 울면 두통이 오거든요.”<sup>36</sup> 부모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유머를 발휘한 덕분에 자녀들은 가정이 즐거운 안식처라고 여겼다.

교회 봉사는 언제나 고든과 마조리의 삶의 일부이었다. 고든은 스테이크 주일학교 관리자로 봉사했으며 후에 본부 주일학교 임원회에 부름받아 9년 동안 봉사했다. 그는 후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마조리는 초등학교, 청년회, 그리고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했다. 그들의 자녀들은 교회 봉사가 즐거운 특권이라는 것을 목격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각자 그 원리를 따랐다.

## 일을 하며 준비함

마조리와 고든의 결혼 생활 첫 6년 동안 고든은 계속해서 교회 라디오, 홍보 및 선교 자료 위원회에서 일했다. 그는 자기 일에 헌신적이었으며, 프로젝트들과 마감 시한 때문에 빈번히 자기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치 또는 그 이상을 발휘해야 했다.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고든은 이렇게 말했다.

“할 일이 많다네. 긴 이름을 가진 이 위원회의 일은 계속 방대해지고 더 복잡해지며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네. …

라디오, 필름,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 때문에 …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겸손해지며, 바쁘고, 긴 시간을 일하게 된다네. … 이 모든 것을 할 때 좀 더 안정에 의지하게 된다네, … 좀 더 등이 굽게 되고, 좀 더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해 좀 더 경이롭게 여기게 된다네.”<sup>37</sup>

1940년대 초에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고든의 직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전쟁으로 전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의 일도 압박을 덜 받게 되었다. 그는 전쟁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미 해군의 장교후보생 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알레르기 병력이 있어서 합격하지 못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인정했다. “불합격했을 때 우울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sup>38</sup> 그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에 덴버 앤드 리오 그란데 레일로드(Denver and Rio Grande Railroad) 사의 부관리자로 지원하게 되었다. 기차는 군대와 전쟁 물자를 옮기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고든은 이 직업이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1943년에 그 회사는 고든을 채용했고, 그는 가족과 함께 1944년에 콜로라도 덴버로 전근할 때까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회사 소유의 역에서 일했다.

철도 회사의 상사들은 고든의 일 처리에 감명을 받았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밝은 미래처럼 보이는 정규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고든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 정규직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했다. 비록 철도 회사가 교회보다 상당히 높은 급료를 주었지만, 고든은 마음에서 옳다고 느껴지는 바대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갔다.<sup>39</sup>

교회 본부에서 고든의 업무는 머지않아 처음 맡았던 책임보다 더 확장되었다. 그는 1951년에 교회 본부 선교사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임명되었으며 새로 조직된 선교사부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졌다. 이 부서는 저작물, 번역물, 그리고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물품의 배부를 포함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 즉, 선교사와 선교 회장의 훈련, 교회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을 타파하고 외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일 등을 총괄하였다.<sup>40</sup>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1953년 가을에 고든을 사무실로 불러서 선교사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 형제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스위스에서 성전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저는 형제님이 적은 수의 성전 봉사자들이 유럽의 다양한 언어로 성전 의식을 집행할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sup>41</sup>

맥케이 회장은 고든이 선교사부의 업무에서 벗어나 영감을 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고든은 평일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일부 일요일에도 솔트레이크 성전의 5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일했다. 맥케이 회장은 아주 여러 번, 일요일 아침에 그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엔다우먼트 의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고든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계시를 구한 끝에 다양한 언어로 녹음된 성스러운 의식을 영상물로 만들어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상영할 것을 제안했다. 맥케이 회장과 다른 지도자들은 그의 건의를 승인했고, 그에게 영상물 제작을 맡겼다. 고든은 재능 있고 충실한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1955년 9월에 그 업무를 완수했다. 그런 후에 그는 직접 스위스 베른 성전으로 그 영상물을 가져가서 첫 엔다우먼트 의식 진행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총괄했다.<sup>42</sup>

고든은 유럽의 성도들이 그가 한 일로 기쁨을 얻는 것을 보며 감동했다. “저는 10개국에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려 모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채 철의 장막에서 건너온 연로한 분들이 주어진 기회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젊은 부부들이 발랄하고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영원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소중한 축복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인, 신앙을 지닌 남성과 여성들의 삶에 전해주도록 [맥케이 회장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영감받고 지시받았다는 것을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sup>43</sup>

고든은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자가 되겠다는 그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에 그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다른 종교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켰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기록했으며, 수천 명의 후기



고든 비 힝클리, 1951년

성도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평생토록 하게 될 봉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게 해 주었다.

---

###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함

1958년 4월 5일 토요일에 고든과 마조리의 아들인 리처드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았지만, 리처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목소리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서둘러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고든은 맥케이 회장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 후에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갖춰 입고, 교회 회장의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이전에도 맥케이 회장에게서 임무를 지명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있을 연차 대회 모임 준비에 관련된 임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맥케이 회장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다. 맥케이 회

장은 다정하게 인사한 후에 고든에게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도록 요청했다. 1976년에 중단된 이 부름에 그때 당시 봉사하고 있던 형제들은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이었다. 맥케이 회장이 이 부름을 언급했을 당시 고든은 이스트 밀 크리크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다음 날 고든 비 힝클리리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는 비록 첫 번째 연차 대회 말씀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압도되었다.”라고 인정했지만, 그는 특유의 신앙과 열정으로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였다.<sup>44</sup>

힝클리리 장로가 십이사도 보조로 받은 한 가지 주요한 임무는 모든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힝클리리 장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언어도 전혀 말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그들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그들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일본인 후기 성도인 겐지 다니카는 일본의 첫 모임에 참석했던 힝클리리 장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리 장로님의 반짝이는 눈에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첫 마디는 *스바라시!*였습니다. [‘멋지네요!'] 모임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공식적인 것에서 우호적이고 그에게 친밀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훈훈한 기운이 넘쳤습니다.”<sup>45</sup>

그는 방문하는 모든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시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그들이 도울 수 있음을 이해하게끔 했다. 그는 또한 전임 선교사들의 부지런함이 봉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

###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

1961년 9월 30일 토요일에 인생을 바꿀 만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마조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맥케이 회장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다시 한 번 고든 비 힝클리리는 교회 회장의 사무실로 서둘러 갔다. 그는 방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놀라고 압도되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맥케이 회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장로님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지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오늘 연차 대회에서 지지하려고 합니다.”<sup>46</sup> 힝클리리 장로는 이번에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신앙과 열정으로 나아갔다.

힝클리리 장로는 사도로서 추가적인 책임을 받게 되었다. 그는 때때로 정부 지도자들과 다른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 그는 자주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여 미국 내의 비판과 문화적 충돌에 관해 연설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는 교회의 방송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최전선에서 애썼다. 그는 이렇게 확대된 역할 속에서도 개인과 가족의 신앙을 강화하는 자기 책임을 절대 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하든 만 명에게 전하든, 개개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이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그의 성역의 특징이 되었다.

힝클리리 장로는 이후 7년 동안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주님의 일을 관리했으며, 그곳의 친구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세상의 일부에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 영적인 경험입니다.”<sup>47</sup>

힝클리리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내의 임무 변경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개개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가 1970년에 남미에서 교회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을 때, 그는 페루에서 개최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한 후에 칠레로 향했다. 칠레에 도착한 지 이틀 후에 그는 페루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네 명의 선교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귀환할 일정을 미루고 즉시 페루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이 실종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간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sup>48</sup>

그는 다음날 아침에 페루 리마에 도착했다. 실종되었던 선교사들은 아마추어 무선사를 찾아 리마로 통화할 수 있게 되어서 힝클리리 장로와 대화를 나누었다. 선교사들이 있던 작은 방 안에는 다른 생존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스피커를 통해 방송되었다. “힝클리리 장로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어떻게든 무전기로 연락하고 싶어서 웅성거리던, 방 안에 꽂 찬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비록 장로님은 영어로 말씀하셨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목소리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sup>49</sup>

힝클리리 장로는 남미의 교회를 관리하던 첫 두 해 동안 모든 선교부를 방문했으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 새로운 선교부를 창설했고, 페루 리마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으며, 아르헨티나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의 비자 취득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1971년에 유럽의 여덟 개의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지명받아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sup>50</sup>

힝클리리 장로는 종종 뻘뻘한 일정으로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와 마조리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행복해했다. 하지만 마조리는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업무에서 떠나 있으면 초조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이 되는 사도 부름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떨어진 적이 없었다.

### 제일회장단 보좌로서의 막중한 책임

힝클리리 장로는 십이사도로서 거의 20여 년간 봉사한 후, 1981년 7월 15일에 다른 놀라운 부름을 받았다. 당시 교회 회장이었던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그에게 엔 엘돈 태너 회장과 매리온 지 롬니 회장과 더불어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도록 요청했다. 두 보좌를 두는 것에 예외가 되는 흔치 않은 경우였으나 전례가 없지는 않았다. 김볼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했으므로 회장단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sup>51</sup>

새로운 부름을 받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어느 직책에 부름을 받든지 충실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 이 성스러운 부름은 저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전에 제가 누구에게든지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명이 길든 짧든 사랑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sup>52</sup>

그는 김볼 회장, 태너 회장, 그리고 롬니 회장의 쇠약한 건강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제일회장단의 일상 업무 대부분이 힝클리리 회장에게 주어졌다. 그는 또한 유타 조던 리버 성전 헌납과 같은 수고로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교회 그리고 과거 및 현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몇몇 공개적인 비난과 맞닥뜨려야 했다. 그는 198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비판으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 저는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을 찾지 말고 더 크고 훌륭한 것을 보기를 권고합니다. … 이러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커다란 봉사와 위대한 헌신에 따르는 아주 작은 부수적인 것입니다.”<sup>53</sup>

1982년 11월 27일 태너 회장이 서거하고, 김볼 회장과 롬니 회장이 건강 쇠약으로 참석하지 못한 19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힝클리리 회장은 연단 위 비어 있는 좌석 옆에 홀로 앉았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전에 그가 말했던 “지도자의 외로움”<sup>54</sup>을 느꼈다.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유일한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힝클리 회장은 기도와 함께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선지자의 권세를 침해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교회의 일상 업무를 운영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들, 그중에서도 특히 정원회 회장이었던 에스라 태프트 벤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일했으며, 항상 김볼 회장의 권고를 따랐다. 그럼에도 그는 커다란 부담감을 느꼈다.

힝클리 회장은 제일회장단의 책임을 수행하느라 많은 시간을 솔트레이크시 티에 머물렀지만,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여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그는 1984년에 필리핀을 다시 방문했다. 그가 18년 전에 첫 번째 예배당을 헌납했던 그곳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성전을 헌납하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헌납 기도를 드렸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 필리핀은 자유와 진리를 사랑하며, 당신의 종의 간증에 민감하며, 영원한 복음 메시지에 호응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들의 희생 정신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나이다.”<sup>55</sup>



연차 대회에서 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왼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오른쪽)과 함께한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가운데)

힝클리 회장은 1984년 6월에 제일회장단을 대표하여 칠십인들이 전 세계의 지명받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회 업무를 총괄하게 될 지역 회장단 부름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교회의 꾸준한 성장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 지역 회장단은 그들의 지역에 필요한 많은 지도력과 훈련을 주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결정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분산시켜야 합니다.”<sup>56</sup> 힝클리 회장은 약 일 년 후에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이 영감받은 것이며 진보의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을 자주 방문하여 커다란 위안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형제님들은 교회 전체를 단합시키고 있습니다.”<sup>57</sup>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12년 동안 교회를 이끌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1985년 11월 5일에 서거했다. 선임 사도였던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그는 고든 비 힝클리 장로에게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도록 요청했으며,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를 제2보좌로 불렀다. 세 명의 제일회장단이 모두 건강했기에 힝클리 회장은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더 자주 전 세계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벤슨 회장의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하자 힝클리 회장은 또다시 교회 운영의 일상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일회장

단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힝클리 회장과 몬슨 회장은 언제나 벤슨 회장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부름을 존중하면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교회가 꾸준히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강하고 지속적인 우정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켰다.

벤슨 회장은 1994년 5월 30일에 서거하였으며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교회 회장이 되었다. 다시 한 번 힝클리 회장과 몬슨 회장이 보좌로 봉사하게 되었다. 힝클리 회장 내외는 6월에 헌터 회장과 그의 아내인 이니스,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그의 아내 바바라를 동반하고 일리노이 나부에서 열린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순교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여행은 헌터 회장과 힝클리 회장이 함께했던 유일한 여행이 되었다. 헌터 회장은 수년간 건강 문제와 씨름하였으며, 이 여행 후에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1995년 2월 27일에 힝클리 회장에게 신권 축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힝클리 회장은 축복하면서 헌터 회장의 생존을 간청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sup>58</sup> 헌터 회장은 며칠 후인 1995년 3월 3일에 서거하였다.

---

###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자 교회 회장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헌터 회장의 서거는 힝클리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주었다. 힝클리 회장은 선임 사도로서 서열상으로 교회 회장이 될 순서였다. 힝클리 자매는 헌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헌터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으며 남아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슬펐고, 외로웠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이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아주 외로워했습니다. 그이가 헤쳐 나가야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sup>59</sup>

힝클리 회장은 헌터 회장의 장례식 후에 성전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모임을 하는 방에 홀로 남아 마음을 기울여 경전을 읽었으며 읽은 것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역, 그리고 속죄를 되돌아보았다. 그런 후에 벽에 걸려 있는 조셉 스미스부터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까지의 모든 교회 회장들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이 경험을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초상화 앞을 서성이면서 그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분들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분들이 내게 말씀하면서 위안해 주는 것 같았다. … 나는 회장단의 1보좌로서 사용했던 의자에 앉았다. 나는 꽤 오랫동안 그 초상화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분이 마치 살아 계신 듯했다. 그분들의 눈



연차 대회에서 연단에 선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분들이 나를 격려하면서 기꺼이 도와주시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성역을 행하는 동안 축복받고 지지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했다. 기도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 말씀드렸다. ... 영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확신한다. 음성은 아니

었으나 기도를 드리면서 제기했던 질문에 관하여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sup>60</sup>

이 경험 후에 그는 다시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록했다. “기분이 나아졌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왕국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내가 교회의 회장으로로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만큼 봉사하게 될 것이라는 더 굳건한 확신이 생겼다. 마음속에서 영의 확신을 느꼈기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 내가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일할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높고 성스러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을 믿기가 어렵다. …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해 오셨기를 바란다. 그분께 충성을 다할 것이고 분명하게 그분의 인도를 구할 것이다.”<sup>61</sup>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1995년 3월 12일에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으며, 다음 날 기자 회견에서 말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기된 광범위한 질문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종종 유머러스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이 이어지던 기자 회견이 끝나 갈 무렵에 한 기자가 힝클리 회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에 중점을 두실 것입니까? 회장님은 어떤 중심 과제로 교회를 운영하실 건가요?’

그분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 과제는 전임자들이 이끌었던 것처럼 위대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sup>62</sup>

힝클리 회장은 그 약속에 충실했다. 그는 전임 선지자들의 봉사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그들이 행했던 일을 계속해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계시예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

### 교회를 “희미한 데서”(교리와 성약 1:30) 이끌어 냄

힝클리 회장이 성역을 시작할 즈음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를 희미한 데서 이끌어 내는 일을 도우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만큼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서야 하며,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 모두를 잘 이해하고 계시며, 어디에서든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탁월하게 표현하는 은사를 지니고 계십니다.”<sup>63</sup>

힝클리 회장은 미디어와 방송 분야의 광범위한 경력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 그는 교회 회장으로서는 전 세계의 기자들과 빈번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교회 교리와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고 구주와 회복된 복음을 간증했다. 매번 이해가 커졌고 우호 관계가 발전하였다.

주목할 만한 인터뷰 중 하나는 1996년에 중견 기자인 마이크 윌러스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60 Minutes*에서 한 인터뷰였다. 윌러스는 가차없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므로 힝클리 회장은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그 인터뷰 촬영 전에 약간 염려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함정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을 것입니다.”<sup>64</sup>

인터뷰는 순조로웠으며 교회에 관한 많은 긍정적인 면이 전달되었다. 마이크 윌러스와 힝클리 회장이 친구가 된 것은 또 하나의 성과였다.

2002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때문에 교회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다. 힝클리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올림픽 계획의 일부분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숙고한 끝에 이 올림픽을 전도의 기회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행사를 통해 교회에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sup>65</sup> 그가 옳았다. 수만 명이 솔트레이크 밸리를 방문했으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후기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렀다. 이 방문자들은 템플 스퀘어를 거닐었으며, 태버나클 합창단의 합창을 들었고, 가족 역사 도서관을 방문했다.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솔트레이크 성전을 보았고 리포터들이 교회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힝클리 회장이 말한 바대로 “교회에 의미 깊은 일”이었다.

오랜 기간 확립된 의사소통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더불어 힝클리 회장은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했다. 예컨대 그는 인터넷을 교회가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교회는 LDS.org, FamilySearch.org, 그리고 Mormon.org 사이트를 개설했다.

힝클리 회장은 94세가 되던 2004년 6월 23일에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저는 미국 대통령에게서 이 값진 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이 상은 제가 교회의 제반 관심사를 완수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준 교회를 인정받게 하고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sup>66</sup> 그는 이 상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이 커지는 상징으로 또한 교회를 희미한 데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는 증거로 여겼다.

### 후기 성도들을 위한 여행

힝클리 회장은 여행의 고초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봉사하려는 소망이 집에 머무르려는 소망보다 더 강했다. 그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주님 사업의 신성에 대해 간증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sup>67</sup> 그는 재임 초기에 이렇게 언급했다. “제게 힘이 있는 한 국내외의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힘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sup>68</sup>

그는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미국 내의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했으며, 미국 밖의 나라들을 90회 이상 방문했다. 그는 교회 회장으로서는 총 백육십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면서 전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만났다.<sup>69</sup>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힝클리 회장을 만나기 위해 힝클리 회장이 사람들을 만나러 들이는 수고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예컨대 그는 아내와 함께 1996년에 교회 회원 수가 375,000명을 넘어선 필리핀을 방문했다. 힝클리 회장 내외는 마닐라 아라네타 콜로세움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말씀할 예정이었다. 그날 오후 중반에 콜로세움은 “수용 인원을 초과했다. 모임 시작 12시간 전인 아침 7시부터 줄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공식 집계한 결과 콜로세움의 25,000개의 좌석뿐만 아니라 통로, 중앙 홀에까지 약 35,000명의 회원이 입장했다. 많은 성도가 마닐라에 오기 위해 배와 버스를 타고 20시간을 여행했다. 몇몇 성도들의 여행 경비는 그들의 몇 개월치 월급과 같았다. …

콜로세움이 가득 찼다는 말과, 모임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지 건물 관리자가 궁금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힝클리 회장은 즉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 내외는 커다란 공연장으로 입장했다. … 마치 지시받은 것처럼 회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환영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찬송하기 시작했다.”<sup>70</sup>

힝클리 회장은 자신을 비롯한 총관리 역원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그는 위성 기술을 사용하여 2003년 1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을 감리했다.



힝클리 회장은 “국내외의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는 일”을 즐겼다.

영적인 진리와 세속적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장려함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언제나 끝이 없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읽고,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을 깊이 숙고 해야 합니다.”<sup>71</sup>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효과적인 교수법은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력의 본질입니다. 영생은 모든 남녀가 효과적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굳건히 세울 때 찾아올 것입니다. 이들을 의로움이나 천국으로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인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란 곧 가르침을 의미합니다.”<sup>72</sup>

힝클리 회장은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는 1995년에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 도서 자료로 제공될 새로운 총서를 출판할 계획을 열정적으로 승인했다. 교회는 곧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으로 불리는 총서를 출판하기 시작했으며 이 책도 그 일부이다.

세속적인 학습도 힝클리 회장에게는 중요했다. 그는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 고등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것을 염려했다.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들 대부분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힝클리 회장은 2001년 4월 연차 대회 신권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기금은 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헌금을 내 주신 분들과 앞으로 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는 이것을 영구 교육 기금이라 부를 것입니다.”<sup>73</sup>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헌금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이 돈을 용자받아 학업을 계속하거나 또는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후에 용자금을 갚게 되면, 그 기금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영구 교육 기금이 1800년대에 시온으로 이동하려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 교회에서 설립한 “영구 이민 기금과 같은 원리”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sup>74</sup>

6개월이 채 못 되어 후기 성도들은 영구 교육 기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헌금했다.<sup>75</sup> 힝클리 회장은 이 계획을 소개한 지 일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발표했다. “이 사업이 현재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 다소 어려움이 있는 국가의 젊은이들, 대부분 귀환 선교사인 그 젊은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조상 대대로 고생해 온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sup>76</sup>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후기 성도 수혜자와 기부자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 결혼과 가족의 신성함을 간증함

힝클리 회장은 1995년 9월 23일에 개최된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으며 미리 경고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이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왔던 가족에 관한 표준과 교리와 관습을 선언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이제 교회와 세상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sup>77</sup>

힝클리 회장은 이 소개와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읽었다.

결혼과 가족의 신성함은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에서 변함없는 주제였다. 그는 어떤 종류의 확대도 옳지 않다고 보았으며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봉사하도록 권고했다. 1999년 2월 11일자 제일회장단 서한에서 그와 그의 보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제일회장단은 자녀들이 교회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해 줄 복음 원리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우리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드립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가정을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도록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부여된 임무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sup>78</sup>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음

힝클리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지만,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개개인들을 염려했다. 그는 재임 초기에 이렇게 말했다.

“개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개종자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 합니다.(모로나이사서 6:4)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sup>79</sup>

새로운 개종자를 강화하는 것은 힝클리 회장의 변함없는 주제였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힝클리 회장이 이 주제를 강조하며 했던 말씀을 나누었다. “얼마 전 눈을 깜빡이시며 앞에 있는 탁자를 살짝 두드리시고는 십이사도들에

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 내 생이 끝나고 장례식을 마치면서 내 영이 일어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여러분 각각의 눈을 들여다보며 ‘신회원 유지 활동에 관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sup>80</sup>

### 성전 건축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태어난 해인 1910년에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성전은 4곳이었으며 모두 유타에 있었다. 그가 사도로 성임된 1961년에 그 숫자는 12개로 증가했다. 이것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으나, 힝클리 장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축복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에 염려를 표명했다. 그는 1973년에 교회 성전 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교회는 [당시 건축 중이던] 워싱턴 성전을 짓는 규모의 비용으로 [많은 소규모]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지 않아도 성전에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sup>81</sup>

그가 1995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을 때, 운영 중이던 성전은 47개로 늘어났지만, 더 많은 성전을 지으려는 그의 소망은 여전히 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회원들이 어디에 있든 필요로 하는 곳에 성전이 있어서 그들이 커다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주님의 집에 나아가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sup>82</sup>

힝클리 회장은 199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가 전 세계에 소규모 성전을 지으리라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sup>83</sup>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소규모 성전들에 대한 생각은, 직접적인 계시로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sup>84</sup> 그는 1998년에 30개의 새로운 소규모 성전을 발표했는데 이미 계획 중이거나 건축 중인 다른 성전을 포함하면 “새로운 성전 수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51개 외에 47개가 될 것”이었다. 모든 청중이 기뻐하는 가운데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때로부터’(교리와 성약 20:1) 2,000년이 되는 금세기 말까지 꼭 100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두 개를 더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렇게 약속했다. “계속 성전이 건립될 것입니다.”<sup>85</sup>

힝클리 회장은 2000년 10월 1일에 운영되는 성전 중 100번째로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을 헌납했다. 그는 2000년이 끝나기 전에 두 개의 성전을 더 헌납했다. 그가 2008년에 서거했을 때, 교회는 124개의 성전을 운영했으며, 13개의 성전 건립을 발표했다. 힝클리 회장은 그 대부분의 계획과 건립에 참여했으며,



힝클리 회장이 2002년에 일리노이 나무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성전 모퉁잇들에 회반죽을 바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85개의 성전을 헌납했고, 13개를 재헌납했다.(그중 8개는 그가 이전에 헌납했던 성전이였다.)

### 컨퍼런스 센터

힝클리 회장은 199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마음속의 생각을 던지시 알렸다. 그는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매년 이 훌륭한 태버내클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 대회에서는 한 지붕 아래서 훨씬 더 많은 회중과 모임을 갖습니다.”<sup>86</sup> 힝클리 회장은 19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의 생각에 관하여 좀 더 말씀했다.

“오늘 아침 이 태버내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매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개척자 선조들의 손으로 지어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헌납된 이 독특하고 훌륭한 전당에는 약 6천 명 정도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로서는 편안하게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해서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약 1년 전, 저는 총관리 직원들께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수보다 서너 배 가량 많은 수를 수용할 훨씬 큰 규모의 예배소를 하나 지어 헌납하는 것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sup>87</sup>

1997년 7월 24일,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한 지 150주년이 되는 기념일에 컨퍼런스 센터로 불리게 될 새로운 건물의 기공식이 템플 스퀘어 바로 길 건너 북쪽 구역에서 열렸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4월에 비록 건물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연차 대회의 첫 모임이 그곳에서 개최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200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했다. 그는 헌납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운 검은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집으로 헌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으로부터 간증과 교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구속주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대한 감사의 선언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울려 퍼져 나가기를 희망하며 간구합니다.”<sup>88</sup>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힝클리 회장은 2000년 1월 1일에 제일회장단의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 십이사도의 간증”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구주에 관하여 이렇게 선언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sup>89</sup>

그리고 어느 누구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삶에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46년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했다. 힝클리 회장은 사도들과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발표하기 몇 달 전에 후기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아침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거룩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입니다.”<sup>90</sup>

### 시련과 희망

힝클리 회장은 2004년 4월 연차 대회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했다. “망설여지지만 잠시 동안 개인적인 일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은 힝클리



힝클리리 회장이 200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헌납한 컨퍼런스 센터

자매가 안 계신 것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총관리 역원이 된 후 46년이라는 세월 중, 처음으로 제 아내가 연차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1월에 아프리카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우울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이면 결혼한 지 67년이 됩니다. 아내는 유능하고 재능 있는 다섯 아이의 어머니이며, 스물다섯 명의 손자 및 손녀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증손자 및 증손녀의 할머니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나란히 함께 걸어왔으며 동등한 동반자로서 힘든 시기와 좋은 시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아내는 가는 곳마다 사랑, 용기 및 신앙을 전하면서 도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간증했습니다.”<sup>91</sup>

마조리 페이 힝클리리 자매는 이틀 후 4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배려심, 넘치는 재치, 그리고 굳건한 신앙을 사랑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힝클리리 회장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쇄도한 지지와 사랑의 편지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슬픔의 시기에 위안의 기운을 북돋아 주셨습니다.”<sup>92</sup> 많은 사람이 힝클리리 자매의 이름으로 영구 교육 기금을 기부했다.

힝클리리 회장은 마조리 자매를 잃은 어려움과 나빠지는 건강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교회 회원들에게 인사하며 흔들 때가 더 많았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염려하는 힝클리리 회장의 주치의와 나눈 대화를 상기했다.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분이 넘어져서 대퇴부 골절상이나 더 심한 골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흔드는 데나 사용하실 뿐 걸을 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께 의사가 처방한 대로 지팡이를 사용하셔야 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몬슨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힝클리리 회장님의 보좌입니다. 선생님은 그분의 의사이시죠. 선생님이 그분께 말씀하십시오!”<sup>93</sup>

힝클리리 회장은 2006년 초 95세의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그해 10월에 개최된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더 살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저는 잘 지내고 있고 건강도 대체로 좋습니다. 그러나 후임자를 위한 때가 되면 그 절차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sup>94</sup>

힝클리리 회장은 일 년 후인 2007년 10월에 이렇게 말씀하며 그의 마지막 연차 대회를 폐회했다. “내년 4월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97세이지만 그때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며,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sup>95</sup>

힝클리리 회장과 힝클리리 자매의 딸인 버지니아는 힝클리리 자매의 사망 이후 4년 동안은 힝클리리 회장의 삶에서 “정점의 시기”였다고 묘사했다. 그런 후에 그녀는 부친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08년 1월 20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한 예배당을 헌납하며 드린 기도를 떠올렸다.

“그 기도는 아주 특이하게도 아버지께서 스스로 선지자로서 주님께 간청하셨어요. 아버지는 감사함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께서는 조셉 스미스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 백성을 위해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임명하셨나이다. 우리는 당신께 감사하오며 그를 위안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며 그의 필요 사항과 당신의 위대한 목적에 따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sup>96</sup>

힝클리리 회장은 2008년 1월 24일 목요일에 처음으로, 사도들과 갖는 주례 성전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느꼈다. 다음 일요일인 1월 27일에 몬슨 회장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함께 그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그날 늦은 시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자택에서 그의 다섯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서거했다.

머칠 후 수천 명이 컨퍼런스 센터 선지자의 홀에 놓여 있던 힝클리 회장의 관을 지나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과 정부 및 사업계의 지도자들도 조의를 표하며 힝클리 회장의 영향력과 가르침에 감사했다.

장례식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의 교회 건물에 방송되었다. 태버네클 합창단은 모임의 일부로 새로운 찬송가인 “What Is This Thing That Men Call Death?”(죽음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불렀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힝클리 회장이 쓴 것으로서 그를 선지자로 바라보았던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간증으로 그가 남긴 것이다.

죽음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밤중에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 더 큰 빛의 시작이라.  
 오 하나님 이 아픈 가슴을 만져 주시고,  
 고통스런 두려움을 달래 주소서  
 맑고, 순수한 희망과 신앙으로  
 힘과 평안을 주시어 눈물을 거두게 하소서.  
 죽음은 없고, 승리의 보상으로 얻은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기록하신 분의 은사라네.<sup>97</sup>

## 주

1. Steve Fidel, “A Temple to Be Built in Ghana,” *Church News*, Feb. 21, 1998, 3 참조.
2. Jeffrey R. Holland, “Emerging with Faith in Africa,” [mormonnewsroom.co.za/article/emerging-with-faith-in-africa](http://mormonnewsroom.co.za/article/emerging-with-faith-in-africa); accessed Feb. 11, 2015.
3. Esther Korantemaa Abuyeh, in “Accra Ghana Temple: Commemoration of the Tenth Anniversary,” [africawest.lds.org/accra-ghana-temple-commemoration-of-the-tenth-anniversary](http://africawest.lds.org/accra-ghana-temple-commemoration-of-the-tenth-anniversary); accessed Feb. 11, 2015.
4. Adney Y. Komatsu,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6), 288.
5. 리셀 엠 벨슨, “영적인 능력”,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14~16쪽.
6.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Ensign*, June 1995, 4.
7. In Benjamin F. Tibby, Biographical Sketch of Breneman Barr Bitner, Hinckley and Bitner family history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ee also Silas Richards Company schedule

- and reports, Sept. 1849, Church History Library.
8. Bryant S.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93.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메이플라워 호의 승객 중 생존자들은 49명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9.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24.
  10.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25.
  11. 고든 비 힝클리, “선견자 조셉”,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7쪽;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인용.
  12.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45. 참조.
  1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388.
  14.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46-47.
  15. 고든 비 힝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의 벗*, 1985년 2~3월호, 21~24쪽.
  16. 고든 비 힝클리, “전도의 문제”,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3쪽.
  17.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7-8.
  18. 고든 비 힝클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의 벗*, 1996년 5월호, 2쪽.
  19.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62.
  20.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64.
  21.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64. 참조.
  22. Gordon B. Hinckley, in “His Mission to England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Deseret Morning News*, Jan. 28, 2008, 11.
  23.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75.
  24. Elders’ Labor Record of Liverpool Conference of the British Miss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July 1933 to Feb. 193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5.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69. 참조.
  26.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995-1999*(2005), 348.
  27.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348.
  28. Heber J. Grant,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84.
  29. 이 경험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의 2장을 참조한다.
  30. Gordon B. Hinckley, letter to Parley Giles, Dec. 7, 1936;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1.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51-52.
  32.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04.
  33. Marjorie Pay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9.
  34.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14-15.
  35. Marjorie Pay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73-74.
  36. Marjorie Pay Hinckley, in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 ed. Virginia H. Pearce (1999), 107.
  37. Gordon B. Hinckley, letter to G. Homer Durham, Mar. 27, 1939;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8.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26.
  39.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35-36 참조.
  40.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43-44 참조.
  41. David O. McKa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76.
  42.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77-81 참조.
  43. Gordon B. Hinckl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123-24.

44. Gordon B. Hinckl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123.
45. Kenji Tanaka,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220.
46. David O. McKa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234.
47. Gordon B. Hinckl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62, 71.
48. Allen E Litster,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313 참조.
49. Allen E Litster,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314.
50.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315. 참조.
51.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제일회장단에서 그를 도울 보좌들을 추가로 불렀다.
52. 고든 비 힝클리, “신앙: 종교의 정수”,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5~6쪽.
53. 고든 비 힝클리, “오백만 회원—정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 *성도의 벗*, 1982년 7월호, 73~74쪽.
54. Gordon B. Hinckley, “The Loneliness of Leadership”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4, 1969), speeches.byu.edu.
55. Gordon B. Hinckley, in Francis M. Orquiola, “Temple Dedication Rewards Faith of Filipino Saints,” *Ensign*, Nov. 1984, 106.
56. Gordon B. Hinckley, in “New Mission Presidents Receive Instruction from Church Leaders,” *Ensign*, Sept. 1984, 76.
57. Gordon B. Hinckley, in “Leadership Meetings Focus on Missionary Work, Activation, and Strengthening Members,” *Ensign*, May 1985, 96.
58.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05 참조.
59. Marjorie Pay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05.
60.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08.
61.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08.
62.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2.
63. Neal A. Maxwell,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36.
64. 고든 비 힝클리,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리아호나*, 1996년 7월호, 83쪽.
65. 고든 비 힝클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쪽.
66. Gordon B. Hinckley, in “President Gordon B. Hinckley Awarded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mormonnewsroom.org/article/president-gordon-b.-hinckley-awarded-presidential-medal-of-freedom; accessed Sept. 21, 2015.
67. 고든 비 힝클리, “용서”,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1쪽.
68. 고든 비 힝클리,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리아호나*, 1996년 7월호, 65쪽.
69. “Milestones in the Presidency of Gordon B. Hinckley,” *In Memoriam*. 참조.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supplement to the *Ensign*, Mar. 2008), 13.
70.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553-54.
71.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98.
72. 고든 비 힝클리,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께서로서 오신 선생”,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26쪽.
73. 고든 비 힝클리,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1쪽.
74. 고든 비 힝클리, “영구 교육 기금”, 61쪽.
75. 고든 비 힝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0쪽 참조.
76. 고든 비 힝클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6쪽.
77. 고든 비 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00쪽.

78.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정책, 발표 및 약속(Policies, Announcements, and Appointments)” 중에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이 주제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10장과 11장을 참조한다
79. 고든 비 힝클리, “개종자와 청년”,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이 주제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22장을 참조한다.
80. 제프리 알 홀런드, “내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1쪽.
81. Gordon B.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325.
8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629.
83. 고든 비 힝클리,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9쪽.
84. 고든 비 힝클리, “제일회장단 정원회”,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36쪽.
85. 고든 비 힝클리,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쪽. 소규모 성전 건립에 대한 영감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23장을 참조한다.
86. 고든 비 힝클리,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4쪽.
87. 고든 비 힝클리,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65쪽.
88. 고든 비 힝클리, “이 위대한 새천년의 해”,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3~84쪽.
89.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90. 고든 비 힝클리, “나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2쪽 이 주제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8장과 24장을 참조한다.
91. 고든 비 힝클리,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3~104쪽.
92. 고든 비 힝클리,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2쪽.
93. Thomas S. Monson,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In Memoriam: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30.
94. 고든 비 힝클리, “산을 옮기는 신앙”,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2쪽
95. 고든 비 힝클리,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8쪽.
96. Virginia H. Pearce, “A Daughter’s Tribute,” *In Memoriam: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18~19.
97. Gordon B. Hinckley, “What Is This Thing That Men Call Death?” *In Memoriam: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32.

## 복음의 회복—찬란한 아침이 밝아 옴

“소년 조셉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살아오면서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키웠다. 그는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한 조셉의 역할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느꼈고, “주님의 신성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관해 간증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자라났다.”<sup>1</sup>고 말했다.

1935년,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든과 다른 귀환 선교사들은 성스러운 숲과 쿠모라 산을 방문했다. 그들은 또한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한 카테지 감옥에도 들렀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 성도들이 늪지대에 세웠던 아름다운 도시 나부의 흙길을 걸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든이 이들 장소를 방문하고 개척자들의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솔트레이크 시티를 향해 여행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초기 성도들의 역경과 승리에 대한 생각이 밀려들었을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성스러운 회복의 장소들을 거듭하여 다시 방문했다. 2000년 12월 3일,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그는 성스러운 숲을 방문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몇 년 전 저는 뉴욕 주 로체스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저는 함께한 형제들에게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회 시작 전에 성스러운 숲에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 봄날의 안식일 이른 아침에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와 저는 팔마이바로 가서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첫번째 시현은 “지상의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긴 연대기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린 후였습니다. 나무마다 어린 새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축한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은 없었습니다. 시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참으로 그 일이 조셉이 말한 대로 이곳에서 있었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네 살의 소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비할 데 없는 광채가 그의 위에 머물렀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장엄한 사건, 첫번째 시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기 위한 물꼬를 텃습니다. 어둠의 광야에서, 과거 여러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나아와 새날의 영광스러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증거인 물문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스럽고 거룩한 신권이 고대에 그것을 소유했던 자들의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열쇠와 권능이 선지자와 그의 동료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고대의 교회가 다시 한 번 지난 경륜의 시대의 모든 축복과 권능과 교리와 열쇠와 원리를 갖추고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 불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신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 주님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sup>2</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점차 배도에 빠져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의 위대한 중심 인물이며 모든 인류의 시대와 절기의 정점이십니다.

사망하기 전에 그분은 사도들을 성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sup>3</sup>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점차 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이사야 24:5)<sup>4</sup>

바울은 서신을 보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힘을 기를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도의 영이 만연해졌습니다.<sup>5</sup>

여러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구름이 지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이사야 60:2).

약탈과 수난의 계절이요 길고 피로 얼룩진 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 절망의 시대이며 영주와 농노들이 살았던 때였습니다.

첫 번째 천 년이 지나갔고 두 번째 천 년이 밝았습니다. 처음 몇 세기는 그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sup>6</sup>

---

## 2

---

###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복음의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길었던 어둠의 시기가 지난 후에 촛불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학문과 예술과 과학을 꽃피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 부릅니다.<sup>7</sup>

[기독교]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개혁가들로서 루터, 멜란히톤, 후스, 츠빙글리, 그리고 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나큰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개혁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개혁가들은 각자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신권 권세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열망하는 한 가지는 그들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소요가 기독교 세계를 휩쓰는 동안 정치 세력들 또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 전쟁이 발발하여 새로운 나라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정부가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말도록 헌법으로 규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국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종교도 다른 종교가 받지 못한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암흑과 고통과 투쟁의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복음의 회복을 위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오래 기다려 온 이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가 이 시기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희망과 함께 여러 세기가 도래하고 지나갔습니다. 온 나라를 심판하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시대가 왔음을 결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다니엘 2:35, 44 참조]<sup>8</sup>

### 3

#### **조셉 스미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으로써 회복이 시작되었다.**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증오, 어둠과 악 속에서 지낸 후에 비로소 회복의 위대한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sup>9</sup>

1820년 조셉이 숲속에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가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중 한 분이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조셉 스미스—역사 1:17)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요소가 한 곳에 모이게 될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서막을 여섯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sup>10</sup>

신성한 권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주장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진리는 소년 선지자의 첫번째 시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시현이 없었다면 우리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막을 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권능과 은사와 축복을 모두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시대가 시작 된 것입니다.<sup>11</sup>

### 4

#### **신권의 권세와 열쇠들이 회복되었다.**

아론 신권이 회복될 때 부활한 침례 요한은 손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회복의 일환으로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와 열쇠들이 회복되었다.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교리와 성약 13:1)<sup>12</sup>

그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주님의 손으로 친히 주신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 받은 자들입니다.<sup>13</sup>

[구주의] 사도 중 세 명,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스케하나 강 근처 “광야”에서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났습니다.(교리와 성약 128:20 참조) 그들은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성스러운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

제가 받은 신권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게 성임을 받았습니다. 맥케이는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성임을 받았고, 스미스는 브리검 영에게 성임을 받았으며, 영은 세 증인에게 성임을 받았고, 세 증인은 조셉 스미스 이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서 성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성임을 받았으며, 이 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임을 받았습니다.

[각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이와 비슷하게 신권을 받았습니다. 이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개개인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여한 신권을 직접 이어받았습니다.<sup>14</sup>

## 5

###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진리들을 드러내 보이셨다.

짧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로 받은,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되는 여러 교리와 의식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반복해서 반복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신회

이들 중 첫 번째는 ...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장중한 신의 출현은 절정의 시대에 우리 주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 및 부활 이래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버금가는 다른 사건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논쟁했습니다. 325년에 콘스탄틴이 니케아에서 여러 종파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두 달 동안 열띤 토론을 한 후에 그들은 하나의 정의에 타협을 보았고, 그것은 여러 세대 동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신회에 관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정의를 읽고 소년 조셉의 진술과 비교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서서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합니다. 조셉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지닌 실체의 존재이셨습니다. 그분 옆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별개의 존재로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조셉은 또한 그분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시현이 진행되는 짧은 시간 동안 조셉이 과거의 모든 학자와 성직자들보다 신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한 계시에서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이 의심 없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세상에서 숨겨져 있던 신회에 대한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된 종에게 계시하신 첫 번째 지식이자 위대한 지식이었습니다.<sup>15</sup>

## 성경과 한 쌍을 이루는 물문경

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유명한 학자가 쓴, 새로 출판된 책 한 권을 이제 막 다 읽었습니다. 그 학자가 말한 내용에서는 성경의 여러 책들이 비체계적인 순서로 짜여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에 대한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것인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참되다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작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귀중하고 중요한 진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경전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고 선포하였습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책은 그분의 탄생, 성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 및 미대륙 풍요 땅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읽을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것의 거룩한 기원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현재 그 약속을 시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참되고 거룩한 기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성경이 구대륙의 성약인 것처럼 물문경은 신대륙의 성약입니다. 그 두 책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진행하신 분의 계시로 나오게 된 이 성스러운 책은 실로 우리 주님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sup>16</sup>



“물론정은 ...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 신권 권세와 교회 조직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입니다. ... 저는 최근에 ...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것은 초기 교회의 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되어야 하겠습니까?

신권 권세는 그것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인 하늘에서만 옵니다. 그 권세는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것을 지녔던 자들의 손으로 부여되었습니다. ...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되기까지 회복의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 계시를 통해 교회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교회였습니까? 조셉 스미스의 교회였습니까? 올리버 카우드리의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후기에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sup>17</sup>

### 가족

선지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위대하고 독특한 계시는 영원한 가족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은 전능하신 분의 창작품입니다. 가족은 모든 관계 중 가장 신성한 관계입니다. 가족은 기울여야하는 모든 노력 중 가장 중대한 노력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조직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가족은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인봉된다는 교리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sup>18</sup>

### 어린이들의 무죄함

어린이들이 무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조셉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이른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 유아에게 침례를 줍니다. 회복된 교리에서 침례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죄 사함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약이 됩니다. 침례는 사람들이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수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및 부활을 상징하며 침수로 행해집니다.<sup>19</sup>

### 죽은 자의 구원

계속해서 또 다른 계시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중 어느 곳도 살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죽음의 휘장 저편에 있는 자들이 받도록 준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교리는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죽은 자들에게는 산 자가 받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 번, 전능하신 분이 그의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일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까!<sup>20</sup>

###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 목적, 잠재력

인간의 영원한 본질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계획 아래 이생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우리의 합당성을 시험받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전세, 둘째는 현세, 그리고 셋째는 내세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휘장을 통해 각자 들어가기 합당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계시를 통해 오게 된, 이 교회의 독특하고, 유일하며, 귀중한 교리입니다.<sup>21</sup>

## 현대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의 머리에 부어 주신 엄청난 지식과 권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계시의 원리입니다. 선지자가 쓴 신앙개조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땅에 퍼지며 발전하고 있는 교회는 인도받고 전진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고, 계시가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과 그를 통해 온 하나님의 계시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sup>22</sup>

조셉 스미스 때로부터 열다섯 번째인 저는, 그에게 주어졌던 선지자의 겹옷을 걸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회복의 사건들이 참됨을], 즉 ...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성함을 증거해 주시고, 아들이 소년 선지자에게 지시하셨으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가 세워졌음을 간증드립니다.<sup>23</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편 참조) 주님께서 복음의 회복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신 데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2편 참조)
- 첫번째 시현에 대한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숙고해 본다.(3편 참조) 첫번째 시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 신권이 하늘에서 온 사자들에게 의해 회복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4편 참조) 벨기세텍 신권 소유자들의 신권 권세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

- 5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어진 진리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을 복습한다. 이 진리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했는가? 우리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이사야 2:1~3; 사도행전 3:19~21; 요한계시록 14:6~7; 니파이후서 25:17~18; 교리와 성약 132:19~21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의 복음 공부는 성신을 통해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다. 복음 공부를 할 때는 성신이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년], 18쪽)

주

1. Sheri L. Dew, <i>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i> (1996), 326.	12. “제가 알고 있는 것들”, <i>리아호나</i> , 2007년 5월호, 84쪽.
2. “My Redeemer Lives,” <i>Ensign</i> , Feb. 2001, 72.	13.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i>리아호나</i> , 2005년 5월호, 82쪽.
3. “At the Summit of the Ages,” <i>Ensign</i> , Nov. 1999, 73.	14. <i>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i> (2005), 411.
4. “산에서 뜨인 돌”, <i>리아호나</i> , 2007년 11월호, 84쪽.	15.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0~81쪽.
5.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i>리아호나</i> , 2004년 5월호, 82쪽.	16.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1~81쪽.
6. “At the Summit of the Ages,” 73.	17.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2쪽.
7.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82~83쪽.	18.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2쪽.
8. “At the Summit of the Ages,” 73.	19.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2쪽.
9.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83쪽.	20.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2쪽.
10. “산에서 뜨인 돌”, 84쪽.	21.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3쪽.
11.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226.	22.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83쪽.
	23.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i>리아호나</i> , 2001년 4월, 24쪽.



##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명의 의미와 그 폭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주저 없이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곧 자신의 선교부 회장이었던 조셉 에프 메릴 회장이 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기도 했던 메릴 회장은 고든에게 제일회장단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 그리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 어떤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든은 제일회장단 비서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고든이 제일회장단 평의회실에 들어서자 그랜트 회장과 그분의 보좌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그런 후 그랜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 형제님, 15분을 드리겠습니다. 메릴 회장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고든은 1시간 15분 후에 그 방을 떠났다. 그에게 주어졌던 15분 동안 그는 자신의 선교부 회장이 걱정하는 바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나은 인쇄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짧게 내용을 전달하고 나자 제일회장단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토론이 계속됐다.

이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고든은 “그의 선교 사업이 이제야 완전히 마무리 되었으며, 앞으로 전진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이미 유타 대학교(University of Utah)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제일회장단과의 만남을 가진 후 이를 뒤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계획은 변경되었다. 전화를 건 맥케이 회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힝클리 형제님, 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은 어제 모임을 갖고 형제님과 만나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원방에 세우는 기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증드립니다.”

는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설명했던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님을 회장으로 하는, 십이사도 여섯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형제님이 그 위원회와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sup>1</sup>

고든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 조직된 교회 라디오, 홍보 및 선교 문헌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고용되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세상의 소식을 발행하는 언론인으로 일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출판하고자 전 생애에 걸쳐 노력했다. 이후로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했을 때, 이와 같은 책임은 더 광범위해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켰던 고든 비 힝클리리는 뉴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라는 지명을 자주 받았다. 그는 교회 회장으로로서도 이런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감감한 데서 이끌어 나아오[도록]”(교리와 성약 1:30) 돕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힝클리리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원방에 세우는 기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피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포괄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sup>2</sup>

## 고든 비 힝클리리의 가르침

### 1

#### 교회는 다니엘이 시현에서 보았던 돌처럼 나아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조셉 스미스가 부친의 농장 근처에 있는 숲에서 드린 겸손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첫번째 시현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성장한 이 교회는 …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다니엘의 시현이 실현된 것입니다.(다니엘 2장 45~46절 참조)<sup>3</sup>

1830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당시에는 여섯 명의 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숫자였고 이들 모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 오늘날 시온의 스테이크들은 미국의 모든 주, 캐나다의 모든 주, 멕시코의 모든 주, 중미 각국, 그리고 남미 전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영국과 유럽 전역에도 있습니다. 이곳은 다년간 수천 명이 교회에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발트해 연안 제국과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곳까지 뻗어있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지역에도 뻗어 있습니다. 몽고와 그 아래의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전진할 것입니다.<sup>4</sup>

## 2

###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사업이 지닌 운명을 예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1847년 7월 24일, 이 백성들의 선발대가 이 [솔트레이크] 밸리로 들어왔으며 그들 중 선두 그룹은 그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도착했었습니다. 브리검 영이 도착한 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안식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회당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7월의 폭염 속에서 형제들이 말씀할 때에 수레 위에 걸터앉거나 바퀴에 기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을에 파종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영 회장은 그 당시나 또는 그 후에도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주위를 탐사하기 위해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브리검 영, 윌포드 우드럽 및 그들의 몇몇 동료들은 … 그들의 야영지로부터 … 산을 올라갔습니다. … 당시 영 회장은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둥근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은 정상에 올라서서 남쪽에 있는 그 계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산맥으로부터 호수로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자라는 수목들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브리검 영이 “이곳이 그곳이다”라고 말씀했던 곳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던 정상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엔사인 피크]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사야 5:26)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이사야 11:12) …

[저]는 또한 당시 [그 형제들]이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 성전 건물에 관해 이야기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이사야 2:2~3)

어떤 사람이 1847년 7월 아침 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커다란 꿈을 지닌 정치가들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살피며 제국을 구상하는 지배자들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에 건설한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서부의 황량한 지역으로 쫓겨난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전과 계시의 말씀에 따른 이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무리의 통찰력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 야심에 찬 것이었으며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부로 가는 가장 인접한 거주지와는 약 [1,600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태평양과는 약 [1,3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소한 기후 속에 있었으며 토양도 그들이 가장 최근에 살았던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의 검은 토양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곳에서는 곡식을 재배한 적도 없었으며 겨울을 지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곳에서 건축물을 지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무로부터 이 계곡까지 [1,600킬로미터] 이상의 여행으로 인해 다 낡아 버린 장화를 신고 해진 옷을 입은 이 선지자들은 복천년의 시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때의 놀라운 상태에 대한 선지자의 시현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날 언덕을 내려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sup>5</sup>

### 3

####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의 신성한 운명과 그 사업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길만을 바라보고 걸으며 세상적인 책임만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웅대한 미래를 그려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에는 말을 끌고 다니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마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의 고삐였습니다. 고삐에는 양측에 하나씩 눈가리개가 있었습니다. 눈가리개 때문에 말은 앞만 똑바로 볼 수 있으며 옆을 볼 수



솔트레이크 벨리에 도착하고 이들이 지난 후, 브리검 영과 다른 몇몇 형제들은  
엔사인 피크라고 이름 붙인 둥근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다.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놀라거나 주의가 산만[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앞으로 길을 가는데만 집중하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몇몇 사람은 자신의 눈에 눈가리개를 차고 있는 것처럼 일을 수행  
합니다. 우리는 오직 작고 좁은 통로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다 넓은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이 교회 내에서 작은 책임일 수도 있습니  
다. 부지런히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 책임이 하나님의 왕국  
을 발전시키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는 것도 좋은 일입  
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언젠가 ... 저자 미상의 “넓은 지역을 내다보며 작은  
것들을 개발함”이란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프로그램에 관한 폭과 깊이 및  
높이, 웅대함과 훌륭함, 그리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인식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우리는 각자 한 가지씩 개발해야 할 작은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성스러운 이 사업의 보다 중요한 면을 결코 간과해  
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며 우리 각자는 그 훌륭한 비단을 짜는 데 있어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헌이 비록 작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 목적에 관련된 장엄하고 놀라운 영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화려한 비단을 여러분의 조그만 실로 아름답게 엮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표준을 높게 세우십시오. 그 깃발 아래에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도록 근면하고 진실하며 유덕하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국의 이상은 해가 뜨면 사라져 가는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국의 주초를 놓기 위하여 이 [유타의] 서부 계곡의 잡목을 제거할 때와 살아 남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개척자였던]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큰 이념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조들이 간직했던 것과 같은 이상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이생을 떠난 후에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뜻에 따라 부름받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불완전한 손이나마 열심히 그 손으로 왕국을 세우며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루기 위해 함께 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sup>6</sup>

#### 4

###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국가의 기가 될 수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좀 더 당당하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행해야 할 원대한 복천년의 사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명의 의미와 그 폭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주저 없이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로에게 사려 깊고, 선하며,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좀 더 그리스도다워져야 합니다.<sup>7</sup>

세상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진로를 바꾸지 않고 (또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선지자의 가르침을 계속 따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세상이 주목할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례로서, 세상의 압력으로 가족의 고결함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대에 가정을 중히 여

기고 신성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는 더욱 현저하고 독특하게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 개방주의가 만연해 가더라도 교회의 교리는 일 세기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가르쳐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매년 우리의 사회적 관행의 범위 내에서 알콜 음료의 소비와 약물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일 세기 반 전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표준은 세상 앞에 더욱 더 독특한 것이 될 것입니다. ...

안식일이 판매 촉진 및 오락의 날로 바뀌어 감에 따라 시내산에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시고 현대의 계시로 다시 강화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욱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안 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표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

우리가 이러한 것과 교회에서 가르친 다른 표준을 지킬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며 그들도 옳은 길을 따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이사야 2:3)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이 경륜의 시대에 켜신 등불은 온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서 본 모범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여가를 즐길 때조차도 우리 생활의 모범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될 산위의 동네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원방의 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sup>8</sup>

우리가 이 교회를 원방에 세우는 기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성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옳은 일을 수호하는 데 결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데후서 1:7~8)<sup>9</sup>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의인 이 대의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기를 옆에 서서 관망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

… 저는 제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굳게 일어서서 우리 문명 사회를 빛나게 하고 우리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 대의를 위해 소리를 높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을 넘어서는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교회가 설립된 대의를 위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를 이겨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sup>10</sup>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위대한 여호와이자 위대한 메시아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교리와 성약 6:34, 36~37)

단합하여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사랑 받는 아들이며, 우리의 주이신 그분의 일을 수행하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sup>11</sup>



“우리가 이 교회를 원방에 세우는 기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성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보호자, 우리의 안내자와 계시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를 존경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를 성원하며, 우리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sup>12</sup>

이 훌륭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거만하거나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전능하신 분이 이 장엄한 사업에 빛을 더하고, 세계 만민이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강함과 선함의 근원으로서 빛을 발하겠다고 결심합니다.<sup>13</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1편을 읽으면서 1830년부터 현재까지의 교회 성장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 솔트레이크 밸리에 처음 도착한 개척자들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예언적인 시현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원방에 세우는 기”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사야 5:26; 11:12 참조)
- 3편에서 힝클리 회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업의 “웅대한 미래”와 “보다 넓은 [시아]”를 보라고 격려했다. 우리는 왜 이 웅대한 미래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것을 때때로 보지 못하는가? 우리의 미미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왕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힝클리 회장이 어떤 면에서 후기 성도들이 더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4편)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지 살펴본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용기를 키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성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옳은 것을 수호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5:14~16; 니파이전서 14:14; 교리와 성약 1:1~6; 65:1~6; 88:81; 115:5~6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된 교사’라고 믿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 성신의 영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진 알 쿡,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1쪽에서 인용)

## 주

1.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 (1996), 83-85 참조.
2.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2쪽.
3.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5쪽.
4. “산에서 뜨인 돌”,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84쪽.
5. “만방에 기를 세움”,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68~69쪽.
6. “만방에 기를 세움”, 69, 71쪽.
7.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0쪽.
8. “산 위에 있는 동네”, *성도의 벗*, 1990년 11월호, 8쪽.
9.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84쪽.
1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138.
11.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70쪽.
12.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83쪽.
13. “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쪽.



## 행복한 태도와 낙관의 영을 고양시킴

“믿음을 가지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어머니인 에이다 비트너 힝클리는 “행복한 태도와 미소 짓는 얼굴은 사람을 어떠한 불행에서도 건져 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sup>1</sup>라고 자주 말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의 아버지인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태어난”<sup>2</sup> 사람이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판적인 말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비판론자는 아무런 공헌을 못하고, 불신자는 창조하지 못하며, 의심하는 자는 달성하지 못한다.’”<sup>3</sup> 부모의 조언과 모범의 영향으로 어린 고든 힝클리는 낙관과 신앙으로 삶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힝클리 장로는 부모님의 조언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반자와 악수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인생은 멋집니다.”<sup>4</sup> 거의 70년이 흐른 뒤 그는 필리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똑같이 실천해 보라고 조언했다. 힝클리 회장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는 제 인생에서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하루 하루가 멋진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멋진 날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동반자와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형제님(자매님), 인생은 멋집니다. 나가서 멋진 날을 보냅시다.’라고 말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다가 만난 누군가를 도와 주었습니다. …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교회로 오도록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선교 임지에서 맞는 매일매일은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sup>5</sup>



“우리에게는 낙관적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언은 헝클리 회장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셀 엠 넬슨 회장은 헝클리 회장과 그분의 아내인 마조리 자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다. “그분들은 과거에 짐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초조해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 다.”<sup>6</sup>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도 이렇게 언급했다. “헝클리 회장은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가족과 친구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되풀이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sup>7</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에라도 우리는 행복과 낙관의 영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 땅에는 비판주의라는 끔찍한 질병이 있습니다. 거의 고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신 공격을 하고, 흠잡고, 서로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꾸준하고도 좋지 않은 습관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

저는 … 우리가 폭풍우를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햇빛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도록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가 선을 좀 더 깊이 고찰하고, 모욕하고 빈정대는 목소리를 잠재우며, 덕과 노력에 대해 더 관대하게 칭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힘이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달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면서도 솔직하게 분명히 표현하는 기술을 추구하고 길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주의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사는 이곳, 이 시대에 존재하는 주목할 만한 선을 찾고 서로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의 덕성에 대해 이야기하여 낙관주의가 비판주의를 대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대신 신앙이 자리 잡게 합시다.<sup>8</sup>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낙관적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 여러분은 비관주의나 냉소주의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낙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일한다면, 일은 이루어집니다.<sup>9</sup>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름에 가려진 빛을 찾으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음울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도록 버려 두지 마십시오.<sup>10</sup>

행복한 마음가짐을 기르십시오. 낙천적인 태도를 기르십시오. 신앙으로 나아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에 기뻐하고, 신성한 것들에 관해 마음속에 간직한 간증에 기뻐하십시오.<sup>11</sup>

주님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영을 키운다면 삶의 짐은 더 가벼워지고, 걱정은 줄어들 것이며, 시련은 덜 어려울 것입니다.<sup>12</sup>

---

2

---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 감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 삶에 주어진 축복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사와 특권에 대한 감사의 영을 기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5 참조) 저는 온유함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느끼기보다는, 우리 위에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감사의 영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삶과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감사함을 지니고 걸으십시오.<sup>13</sup>

지구상에 존재했던 세계 역사 중 지금보다 더 위대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이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sup>14</sup>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인간 역사를 합한 기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경외감과 감사를 느낍니다. 휴대 전화, 비행기, 컴퓨터, 팩스,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 생각해 보면 모두 참으로 기적적이면서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의약품과 위생 시설의 커다란 진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위대한 대의의 기적과 놀라움, 그리고 지상을 휩쓸어 가며 그것이 미치는 곳마다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왕국의 일부입니다. 제가 느끼는 감사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sup>15</sup>

우리는 때가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숙고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거로부터 모이고,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모든 선을 나타냅니다.

제 가슴은 ...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으신 그분의 아들이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찬송가 가사를 생각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찬송가, 142장)<sup>16</sup>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지니고 우리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면서 크게 감사하는 영을 지니며 강한 신앙으로 동기 부여를 받아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나아갑시다.<sup>17</sup>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밤과 낮을 인도하고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sup>18</sup>

### 3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준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네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교리와 성약 25:13] 제가 알기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기쁜 것이며,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제공합니다.<sup>19</sup>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 그분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죄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범법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 불순종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sup>20</sup>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이 교회를 신앙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 주는 본보기로서의 삶을 사시도록 권고드립니다.<sup>21</sup>

회개는 복음의 첫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는 신성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가 죄로 인해 흉하게 변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생명체에는 큰 재미와 웃음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목적입니다.<sup>22</sup>

저는 끊임없이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물론 그 중압감은 엄청납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압박감과 더불어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 또 자주 공개적으로 이런 모든 부담감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니파이후서 2:25 참조]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빛을 발하게 하고 여러분의 간증에 묻어나게 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주님의 호소가 빛을 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저는 몇 년 전 *Deseret News*(데저렛 뉴스) 칼럼에서 오려 둔 쟈킨스 로이드 존스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드립니다. ...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더 없는 행복이 정상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았다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의 퍼팅은 실패로 끝납니다. 쇠고기는 대체로 질겁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란 대개가 단조롭고도 지루합니다. ...

인생이란 마치 옛날 기차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착되기도 하고, 매캐한 연기며 먼지, 재 등이 날리고, 털경거리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아름다운 숲도 지나고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결은 주님께 그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Deseret News*, 12 June 1973)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 비결이 그 기차에 탈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행을 즐기십시오! 그것을 생각하고 웃기도 하시고 노래도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언 17:22)<sup>23</sup>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행복이 있게 합시다. 재미와 행복, 유머 감각, 가끔은 재미있는 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집시다.<sup>24</sup>

모든 생명체에는 큰 재미와 웃음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sup>25</sup>

---

#### 4

---

### **복음은 열정, 애정, 그리고 낙관을 아우르는 승리의 메시지이다.**

저는 오늘 이곳에 주님의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을 품고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이 지상에 세우시고 실패하게 하실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업이 더 약해질 것이라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제게는 의로움이 승리할 것이며 진리가 널리 퍼질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진지한 신앙이 있습니다.<sup>26</sup>

저는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의 다른 정탐꾼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모세는 각 열두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 그곳의 자원과 백성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올 대표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그들 중에 열두 명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풍요로운 곳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생산성의 증거로 처음 익은 포도 몇 송이를 가져왔습니다.(민수기 13:20)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27절)

그러나 그중 열 명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인구와 체격에 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31절) 그들은 자신들을 그 땅에서 보았던 대장부들 앞에 있는 메뚜기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14:7-9)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는 열 명의 의심하는 자들을 더 믿으려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 여호수아와 ... 갈렙은 생존하니라”(37~38절) 그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 40년간의 방황에서 살아남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유일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사업의 장래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편협되게 말하거나, 두려움을 표하거나, 약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데 시간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결과도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 미래에 관한 비전도 없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잠언 29:1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절망적인 복음만을 믿는 사람이 거할 곳은 없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업입니다.

주님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었지만 슬픔 중에서도 신앙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업은 꾸준히 진보해 왔으며, 한 번 시작한다면 뒤에는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

… 이 사업은 전능하신 분의 사업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진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

주님께서는 모세를 취하신 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정과 애정으로 껴안으십시오.<sup>27</sup>

## 5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서고,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는 슬픈 풍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와는 반대되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도록 노력합시다. …

우리 사회 내에는 우리들 스스로를 경시하려는 서글픈 풍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자신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서글프게 느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 여러분은 거룩한 출생의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품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sup>28</sup>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라고 노래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의 일이라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부에 일구어서 표면으로 나타내고 표현해야 할 신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신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sup>29</sup>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위대하고 선한 일들을 행할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복하지 못할 산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헤쳐 나가지 못할 폭풍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 여러분은 끝없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sup>30</sup>

우리 모두 조금 더 크게 서도록, 조금 더 높게 올라가도록, 조금 더 나아지도록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sup>31</sup>

물론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sup>32</sup>

우리의 기초가 되어 줄 감미롭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쁜 소식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영광스러운 성취의 사업입니다.

어두운 시련의 순간에 주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런 위대한 확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 대한 햇불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약속은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sup>33</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선을 “고찰하고” “행복한 마음가짐과 낙천적인 태도를 기르[라는]” 힝클리 회장의 조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조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가짐을 키울 수 있는가?
- 힝클리 회장은 “감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할 때 “놀라운 결과”가 온다고 말씀했다.(2편) 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가? 감사의 영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 인생이 마치 “옛날 기차 여행”과 같다는 비유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3편 참조) 복음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 여행을 대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4편 참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낙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낙관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가? 주님의 사업에 대한 낙관주의를 증대시켜 준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런 풍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크게 서고” “조금 더 높게 올라가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5편 참조)

### 관련 성구

요한복음 16:33; 빌립보서 4:13; 모사이야서 2:41; 엘마서 34:38; 이터서 12:4; 교리와 성약 19:38~39; 128:19~23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배운 것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의 이해는 증가되고 지속될 것이다.(요한복음 7:17참조)”(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9) 이 가르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책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본다.

### 주

1.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6), 37.
2.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37.
3. “끝없는 진리 탐구”, *성도의 벗*, 1986년 2~3월호, 9쪽.

4. See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76.
5.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995-1999* (2005), 343.
6. 러셀 엠 넬슨, “영적인 능력”, *성도의 벗*, 1998년 1월, 15쪽.
7.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Ensign*, June 1995, 4.
8. “The Lord Is at the Helm”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6, 1994), 3-4, speeches.byu.edu.
9.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4에서 인용.
10. “끝없는 진리 탐구”, 10쪽.
11. “만일 네가 충실하면”, *성도의 벗*, 1992년 3월호, 7쪽.
12.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0쪽.
13. “With All Thy Getting Get Understanding,” *Ensign*, Aug. 1988, 3-4.
14. “The Spirit of Optimism,” *New Era*, July 2001, 4.
15. “Keep the Chain Unbroken”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30, 1999), 1-2, speeches.byu.edu.
16. “My Redeemer Lives,” *Ensign*, Feb. 2001, 70.
17. “The Lord Is at the Helm,” 6.
18. “청소년을 위한 선교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4쪽.
19. “만일 네가 충실하면”, 7쪽.
20. “참되고 충실하라”,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93쪽.
21. “충실한 신앙”, *성도의 벗*, 1996년 9월호, 5쪽.
22. “참되고 충실하라”, 94쪽.
23. “Four Imperatives for Religious Educators”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Sept. 15, 1978), 4.
24. “A Challenging Time—a Wonderful Time”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Feb. 7, 2003), 4.
25. “참되고 충실하라”, 94쪽.
2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410.
27.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0~71쪽.
28. “서로를 강화함”, *성도의 벗*, 1985년 6월호, 3~4쪽.
29. *One Bright Shining Hope: Messages for Women from Gordon B. Hinckley* (2006), 90-91.
30.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452.
31. “The Quest for Excellenc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10, 1998), 5, speeches.byu.edu.
32.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5쪽.
33. “끝없는 진리 탐구”, 11쪽.



## 개척자들의 신앙과 희생의 유산

“개척자 조상이 있든지, 아니면, 바로 어제 교회에 가입했든지 그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남성들과 여성들이 꿈꾸었던 웅대한 전체 그림의 일부입니다. … 그들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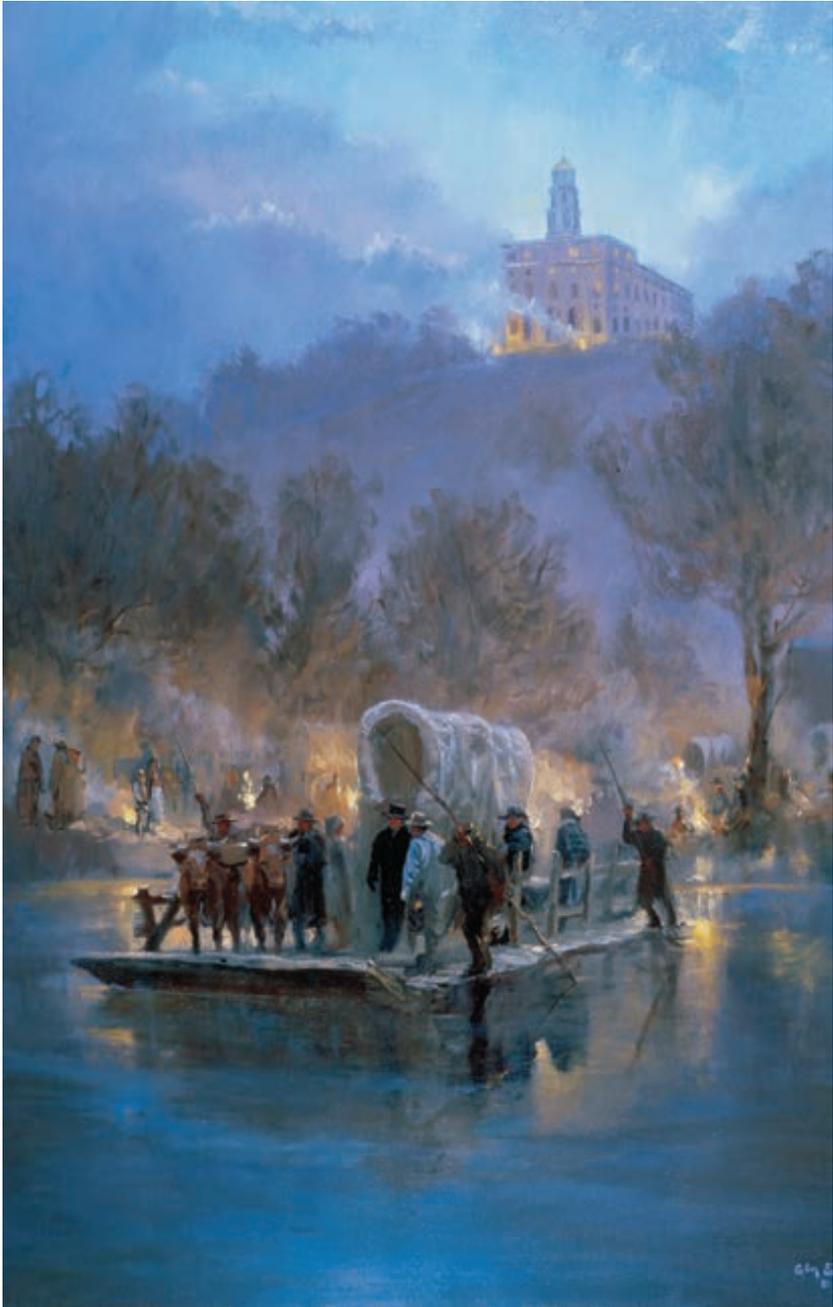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오하이오 콜럼버스 성전 헌납식에서 자신의 개척자 선조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해의 왕국실에 앉아 있으면서 제 증조부를 생각했습니다. … 저는 최근에 그분이 묻히신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뉴욕 주의 북쪽 경계선 근처였습니다. … 그분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힝클리 회장의 증조부가 사망했을 때, 그분의 아들이자 힝클리 회장의 조부였던 이라는 세 살이 채 못 되었다. 이라의 모친은 곧 다시 결혼했으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오하이오로 이주했다가 일리노이로 옮겨갔다. 그녀는 1842년에 사망했으며 이라는 13세의 나이로 고아가 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이 이야기를 이어 가며 이렇게 말했다.

“제 할아버지[이라 힝클리]는 나무에서 침례받으셨고 … 그 뒤에 [개척자들과 함께 광야를 횡단하셨습니다.] 1850년, 여정을 함께하던 이라 할아버지의 “젊은 아내와 그의 [이복 동생]이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조악한 관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매장한 후에 갓난 딸을 데리고 [솔트레이크]밸리로 갔습니다.”

그분은 브리검 영 회장의 요청에 따라 코브 요새(Cove Fort)를 건설했으며, [유타] 필모어 스테이크의 첫 번째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고, 이 일이 진척되도록 다른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움직였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제 부친이 태어나셨습니다. … 할아버지께서는 만 오천 명이 넘는 회원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힝클리 회장의 생각은 곧 조상에게서 그의 후손으로 향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다.

“성전에 앉아 이 세 분들의 생애를 반추하다가 저는 제 딸, 제 딸아이의 딸, 제 손녀의 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현듯 제 앞의 세 세대와 제 뒤의 세 세대를 아우르는 일곱 세대의 정중앙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룩하고 신성한 집에서 제가 조상에게서 받은 모든 유산을 제 이후에 올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머리 속을 스쳤습니다.”<sup>1</sup>

힝클리 회장은 개척자였던 자기 선조들과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유산에 대해 감사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도 개척자임을 자주 강조했다. 그는 1997년에 과테말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올해 우리는 물론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 밸리 도착 1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차와 손수레로 긴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척자들은 변함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개척자들입니다.”<sup>2</sup> 그는 태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나라에서 주님의 일을 추진해 가는 개척자들입니다.”<sup>3</sup> 2002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다. “교회 초기에 개척자들이 있었으며, 여러분은 현재 이 시대의 개척자들입니다.”<sup>4</sup>

힝클리 회장이 전하는 초기 개척자들에 관한 말씀에는 과거에 살았던 개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 그는 그 성도들의 신앙과 희생에 “우리 모두 … 자극을 받아 강렬한 동기를 마음에 품[고] … 우리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삶, 때로는 자기 가족 중에서 개척자”<sup>5</sup>가 되기를 소망하며 미래를 바라보았다.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

### 1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시현, 노동,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으로 신앙을 실현시켰다.**

[미국 동부에 있던] 소수의 초기 개종자들이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오하이오에서 미주리로, 미주리에서 일리노이로 평화의 안식처를 찾아 그들의 양심

의 지시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던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일리노이 코머스의 늪지대를 걸으면서 그곳을 아름다운 도시[나부]로 본 것은 신앙의 눈을 통해서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늪지대를 개척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예배와 교육을 위한 집과 가옥들을 세웠으며, 심지어 그 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인 성전을 건립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 [꿈] 핏박이 가해져 악의에 가득찬 폭도들이 그들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조셉이 그려 놓았던 방식대로 다시 자신들을 이끌고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눈물과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은 행복했던 집과 일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그들의 성스러운 성전을 뒤돌아보고 신앙으로 그들의 눈을 서부로 돌렸으니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고 전진했습니다. 가는 동안 추운 겨울이 닥쳐왔으므로 그들은 1846년 2월에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아이오와의 대초원 진흙땅을 고생하며 지나갔습니다.

신앙으로 그들은 미주리 [강변]에 윈터쿼터스를 세웠습니다. 전염병과 이질과 디프테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신앙이 살아 남은 자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강 위 높은 경사지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묻고 1847년 봄에 서부를 향해 출발하[여] … 서부의 산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이 [솔트레이크] 밸리를 바라보며 덥고 메마른 이 골짜기를 향하여 “이곳이 그곳이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신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흘 후, 다시 신앙에 의해 그는 … 지팡이를 두드리며 “이곳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스럽고 웅장한 [솔트레이크 성전]은 신앙의 증거이니, 그 집을 지은 분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위대한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제가 말씀 드린 모든 위대한 성취는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통찰력과 수고와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실현시켰던 것입니다.<sup>6</sup>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움직였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의 긴 여행을 거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힘입니다. …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하고 열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생활하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든 다른 고려 사항을 초월했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부에 도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 정착촌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무려 1,600킬로미터, 서쪽으로는 1,3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힘의 본질에는 신앙으로 바라보았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경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엘마서 37:47)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신 그분께 보고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지니고 쓰러질 때까지 신앙으로 일했습니다.<sup>7</sup>

우리 뒤에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영웅적인 사실로 가득 차 있으며 완강한 원리와 시들지 않는 충실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신앙의 산물입니다. 우리 앞에는 위대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머무를 수 없으며 속도를 늦출 수도 없으며 걷는 폭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sup>8</sup>

## 2

### **후기 성도 초기 개척자들은 시온에 대한 원대한 꿈을 지니고 미래를 바라 보았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은 분들에게 경건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들의 원대한 목표는 시온[교리와 성약 97:21; 모세서 7:18 참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해 노래하며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커다란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대한 여정은 유례 없는 업적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함께한 서부로의 여행에는 죽음을 포함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 암울한 현실은 모든 마차 부대와 손수레 부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브리검 영 회장님께 정중하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훨씬 전에 시현으로 솔트레이크 밸리를 보셨습니다.

미리 보지 않았다면 그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 더 경작하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깊고 비옥한 토양이 있었습니다. 목재도 충분하고 더 많은 물과 기온 변화가 적고 더 상쾌한 기후를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 산 속에도 개울이 흘렀지만, 실제로 아주 큰 물줄기는 없었습니다. 토양은 경작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쟁기가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었던 표면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저는 영 회장님께서 큰 무리를 … 씨 뿌린 적도 없고 수확한 적도 없던 곳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 그저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길 뿐입니다. …

이 개척자들은 긴 여행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윈터쿼터스에서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111일간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닳아서 해졌으며 가축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7월의 날씨는 덥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복천년을 꿈꾸었고 원대한 시온을 소망했습니다.<sup>9</sup>

저는 언젠가 영국 리버풀의 오래된 부두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금요일 아침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곳은 엄청나게 바쁜 곳이었습니다. 1800년대 수만 명의 백성들이 우리가 걸은 것과 똑같은, 돌로 포장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개종한 그들은 영국과 유럽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간증이 있었고 마음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긍정적으로 열성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돛이 달린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항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곧 대부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와 질병을 견뎌냈습니다.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수장되었습니다. 힘들고 무서운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의심보다 컸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에겐 시온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sup>10</sup>

### 3

#### **윌리 및 마틴 손수레 부대가 개척자들을 구조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를 보여준다.**

1856년 10월[로] …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 프랭클린 디리차즈와 몇몇 동료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동

료들과 함께 가벼운 마차로 윈터쿼터스로부터 여행하여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리차즈 형제는 즉시 영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스코츠 블러프에서 이 계곡까지의 긴 행로에 수백 명의 남녀와 어린이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 그들 앞에는 로키 산맥 분수령으로 이르는 오르막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가야 할 머나먼 길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 구조를 받지 않으면 다 전멸할 처지였습니다.

저는 영 회장님이 그날 밤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굶주[린] … 이들의 모습이 가득했을 것 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드릴 장로들을 위해 제목과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와 함께 평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약 1,1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주제는 ‘그들을 바로 여기로!’입니다.

그것은 제 신념이요, 제가 받은 성신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독님들을 소집하겠습니다. 내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육십 마리의 좋은 노새와 12~15대의 마차를 위해서 말입니다. 황소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말과 노새가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이곳에도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노새를 몰 사람 말고도 밀가루 12톤과 마차를 잘 몰 줄 아는 사람 40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원리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앙과 종교와 서약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얼른 가서 평원에 계신 분들을 데려오십시오.*”(리로 이 알 헤이픈과 앤 터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 [1960], 120~121쪽)

그날 오후 여성들은 많은 양의 음식과 침구와 의복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말에 편자를 박고 마차를 수리해 짐을 실었습니다.

그다음 날인 10월 7일 화요일 오전, … 16마리의 노새를 이끌고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10월말 경까지 구조하러 떠난 팀이 250조에 이르렀습니다.<sup>11</sup>



“구조대가 몹시 지친 성도들에게 도달했을 때, 성도들에게 그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았습니다.”

구조대가 몹시 지친 성도들에게 도달했을 때, 성도들에게 그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레 부대 사람들은 솔트레이크 지역으로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도록 마차로 옮겨 탔습니다.

약 200명 정도가 죽었지만 1,000명이 구조되었습니다.<sup>12</sup>

고통받던 성도들과 그들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 구조 이야기도 거듭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 우리에게는 이곳 시온까지 오는 동안 눈에 간혀 동상에 걸리거나 죽어 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환경에서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궁핍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회 회원들 중에도 고통, 역경, 외로움, 두려움 등으로 절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누군가가 굶주렸다면 먹이거나 돕고 용기를 주며, 진리와 의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 영을 양육해야 할 크고 엄숙한 임무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젊은이가 정처없이 방황하고 마약, 불량배, 부도덕 혹은 이에 따르는 여러 문제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할 말과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걱정을 해 주길 바라는 남편을 여윈 이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이 뜨거웠다가 차갑게 식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따뜻한 우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의 식탁에 돌아와 성찬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 각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들어 올려 교회의 품안에 안기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라며, 또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강한 팔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여 행복하고 건설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길 바랍니다.<sup>13</sup>

## 4

### 우리 각자는 개척자이다.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오늘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시각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무엇이 앞에 놓여 있든지 헤쳐 나갈 힘을 얻고자 앞서간 사람들의 덕행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도 얻은 것이 거의 없는, 그러나 아주 잘 육성된 꿈과 초기 계획으로 현재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고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사람들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뛰어난 모범에 자극을 받아 강렬한 동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은 모두 자신의 삶, 때로는 자기 가족 중에서 개척자이기 때문이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개척자로서 매일 전 세계의 먼 곳에서 복음의 거점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sup>14</sup>

우리는 여전히 개척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 마침내 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온 그때로부터 개척을 멈춘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개척의 여정에는 모험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이 자립하고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

이제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들어갈 가망성이 거의 없던 곳까지 점점 세계 전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1961년에 그곳에 선교 사업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1961년 5월에 모임을 했을 때 필리핀 원주민 교회 회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1966년에] 우리는 마닐라의 아라네타 콜로세움에서 약 35,000명의 회중과 함께했습니다. ... 위대한 나라인 필리핀에 선교 사업의 문을 열었던 그 순간부터가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이 경험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29~30쪽을 참조한다.]

우리가 뻗어 나가는 모든 곳마다 개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지역 중에 최상의 조건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일을 하며 결과를 맺습니다. 머지않아 소수의 회원이 생겨나고 백 명, 오백 명, 그 다음에는 천 명의 회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sup>15</sup>

포장마차와 손수레 시대는 종언을 고했지만, 교회에서 개척의 시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척자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발견되며, 교회에 가입하는 개종자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그들 각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박해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꺼이 치러야 하는 희생이며, 그것은 한 세기 전에 개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으며 평원을 건너면서 치렀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희생입니다.<sup>16</sup>

개척자 조상이 있든 없든, 바로 어제 교회에 가입했던 그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남성들과 여성들이 꿈꾸었던 웅대한 전체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예비했고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온 세상에 닿을 때까지 확장하고 넓히며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앙은 그런 고난의 시절에 지침이 되는 원리였습니다. 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지침이 되는 원리입니다.<sup>17</sup>

## 5

### **우리는 개척자들의 본보기를 따르며 그들이 세운 터전에서 발전해 가며 개척자들의 희생과 유산을 기린다.**

형제 자매 여러분, 위대한 유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가며 제시해 주고, 우리 삶과 우리 후손을 인도하는 별빛임에 틀림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를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음을 안



“개척자 조상이 있든 없든, 바로 어제 교회에 가입했던 그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웅대한 전체 그림의 일부입니다.”

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위대한 신앙, 대단한 충성심, 상상을 뛰어넘는 근면함, 그리고 절대적으로 굳건한 고결성을 지녔던 분들이었습니다.<sup>18</sup>

현재 우리는 [개척자들의] 큰 노고의 수혜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 개척자들이 위대한 일들을 할 기대를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무엇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왕국을 건설해야 할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

우리의 선조들은 굳건하고 훌륭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종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sup>19</sup>

여러분은 모든 [개척자들이] 마음에 그리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열매입니다. …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그분들의 노고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길이 힘들게 보이거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낙담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염려될 때,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토록 위대한 유산과 함께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한 결심을 유지하며 고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일 하[며] 보람”(“의의 일 하세”, 찬송가, 1985, 177장)을 느껴야 합니다.<sup>20</sup>

## 학습 및 교수 제안

### 질문

- 솔트레이크 밸리로 모이기를 원했던 개척자들에게 신앙이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편 참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 헝클리 회장은 초기 개척자들이 시운을 “원대한 목표”, “커다란 소망”, “꿈” (2편)으로 삼아 미래를 바라보았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초기 개척자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와 유사한 소망은 무엇인가?
- 윌리 및 마틴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의 구조에 관한 헝클리 회장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는가? (3편 참조) 브리검 영 회장의 구조하라는 외침이 어떻게 그의 선지자적 영감을 나타내는가? 그의 외침에 응답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복돋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오늘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4편 참조) 우리 각자는 어떤 면에서 개척자인가?

- 초기 개척자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5편 참조)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회 회원들이 초기 개척자들의 신앙과 희생으로 축복 받았는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초기 개척자들의 모범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25:40; 이터서 12:6~9; 교리와 성약 64:33~34; 81:5; 97:8~9; 98:1~3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의미 있는 토론은 대부분의 복음 가르침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 잘 이 끌어진 토론을 통해, 반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증진된다. 참여한 각 사람은 학습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격려받게 된다. ... 생각이 깊은 의견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3쪽)

### 주

1. “Keep the Chain Unbroken”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30, 1999), 2, speeches.byu.edu.
2. Address given at the Guatemala City North and South Regional Conference, Jan. 26, 1997, 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 Address given at a member meeting in Bangkok, Thailand, June 13, 2000, 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4.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360–61.
5. “The Faith of the Pioneers”, *Ensign*, July 1984, 3.
6.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77쪽.
7. “The Faith of the Pioneers,” 5–6.
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77쪽.
9. “These Noble Pioneer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Feb. 2, 1997), 1–2, speeches.byu.edu.
10.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70~71쪽.
11.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5~86쪽.
12. “산을 옮기는 신앙”,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4쪽.
13.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86쪽.
14. “The Faith of the Pioneers,” 3.
15.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 (1996), 592.
16. Gerry Avant, “Present-Day Pioneers: Many Are Still Blazing Gospel Trails,” *Church News*, July 24, 1993, 6.
17. “These Noble Pioneers,” 2, 4.
18. “These Noble Pioneers,” 2.
19. “참된 신앙”,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6~67쪽.
20. “These Noble Pioneers,” 2, 6.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지닌 모든 놀라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하나님의 딸들

“신앙을 가진 여성의 권능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는 그의 삶 동안 여성이 갖춘 능력과 그들의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여성의 중요성에 관해 강하게 간증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들이 구주를 믿는 신앙과 그들의 가족과 교회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했다.

고든 비 힝클리의 어머니인 에이다는 발랄하고 학식 있는 여성으로 문학, 음악, 예술을 사랑했다. 아내와 사별한 브라이언트 힝클리와 29세의 나이에 결혼한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여덟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으며, 큰 가정을 꾸리는 법을 배워 나갔다. 고든은 에이다와 브라이언트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자녀 중 첫째였다. 에이다는 고든이 20세 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가르침과 모범은 고든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쳤다. 고든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고든 비 힝클리의 아내인 마조리 페이도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또한 훌륭한 신앙과 명량한 성격, 삶에 대한 사랑을 지녔다. 힝클리 회장은 아내에게 보낸 애정 어린 편지에서 자신이 가진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우리는 함께 멀리 그리고 많은 지역을 여행했소. 우리는 모든 대륙을 방문했소. 우리는 세계의 대도시와 많은 작은 도시에서 모임을 가졌소. …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감사를 표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말 씀을 했소. 당신의 친숙한 말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소. 당신의 훌륭한 현실적 감각, 생동감 있고 기발한 재치, 당신의 차분하고 한결같은 지혜, 그리고 놀랍고 꾸준한 신앙은 당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소. … 독서에 대해 불타는 당신의 욕구, 지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는 이 길고도 보람된 삶 동안 당신을 깨어 있게 하고 생기를 되찾게 해 주었소.”<sup>1</sup>

힝클리 회장은 여성이 지닌 신성한 본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으며, 그들에게 더 큰 성취와 신앙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청년들에게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면, 미래는 기회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sup>2</sup> 성인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은 여성의 손길, 여성의 사랑, 여성의 위로, 여성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냉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들의 격려하는 목소리, 그들 안에 자연스레 녹아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타고난 자애의 영이 필요합니다.”<sup>3</sup>

사랑하는 동반자 마조리 자매가 사망한 후 열린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말씀 중 하나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맺었다.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에 대해, 저는 큰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큰 사랑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광채와 아름다움, 은혜와 신앙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sup>4</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여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고귀하고도 성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지닌 모든 놀라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저는 여러분에게 선지자 조셉이 1842년 4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여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4쪽]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까!<sup>5</sup>

여러분 모두가 …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고귀하고도 성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매우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sup>6</sup>

먼저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과 복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뒤로 물러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히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좌절될 것입니다.<sup>7</sup>

여러분에게는 생득권으로 아름답고 성스럽고 신성한 무언가가 주어졌습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그분의 딸로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분께 이야기할 때 들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sup>8</sup>

## 2

###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조언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교리와 성약 25편(은)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아내 에머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 그분은 에머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에 관한 계시를 내가 네게 주노니, 만일 네가 충실하고 내 앞에서 유덕한 길을 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전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서 기업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25:2; 또한 16절 참조] …

큰 안목으로 볼 때 우리 각자는 진지진능하신 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의 일부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내부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에 충실하십시오. 어떠한 여성도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비하시킬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위대하고 신성한 속성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복음에 충실하십시오.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헐뜯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고, 교회 프로그램의 결점을 찾아내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힘의 참된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주님은 에머에게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 유덕한 길을 걸으면”

저는 … 모든 여성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지켜야 할 조건으로서, 에머 스미스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덕의 결핍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덕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미덕의 고귀성에 필적할 만한 고귀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덕만큼 매력적인 자질은 없습니다. …

에머는 “택함을 받은 여인”[교리와 성약 25:3]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을 경전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주의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모로나이서 7:31 참조) 여러분 각자는 택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참여자로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였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

에머는 “나의 영이 네게 주는 바에 따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교리와 성약 25:7]하도록 조셉의 손으로 성임되었습니다.<sup>9</sup>

그녀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의와 진리의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 부름에 관하여 주님은 “너는 성신을 받을 것이요, 기록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네 시간을 쏟게 될 것”[교리와 성약 25: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후의 계시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기록하여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든 여성이든 또는 젊은 여성이든 오늘날의 여성 여러분에게 [저]는 일지를 작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글을 쓰다는 것은 위대한 훈련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교육적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재 또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입니다. …

주님은 에머에게 “너는 그의 손으로 성임되어 나의 영이 네게 주는 바에 따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해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책임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은 배우고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경전을 해석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교리와 성약 25: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살 집이나 음식 및 의복에 관하여 전혀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에게 의로움과 선함, 순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문제 및 영원에 관한 것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에 관해 생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

주님은 계속해서 “그런즉 네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교리와 성약 2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기쁜 것이며,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운 일과 근심스러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0</sup>

### 3

####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양육해야 할 거룩한 부름이 있다.**

어떤 나라나 사회, 또는 가족의 진정한 힘은 대개는 어머니로부터 매일 차분하고 단순하게 가르침을 받은 어린이들이 습득한 성격적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sup>11</sup>

새로운 세대의 기초를 만드는 곳은 가정입니다. 저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동료애를 느끼는 가운데 사랑과 발전과 성공의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요구되는 책임도 없고,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책임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sup>12</sup>

저는 온 세상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그분들이 받은 부름의 고결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절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어머니의 그것보다 위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의무도 여러분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성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데려온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sup>13</sup>



“하나님께서서는 어머니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 새로운 세대를 위한 힘[으로서] 여러분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키우십시오. 그들이 어릴 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경전을 읽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이 언제나 처음 받는 돈에서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생활에서 이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여성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딸들이 유덕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교회에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름을 받든 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은 자녀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sup>14</sup>

하나님께서서는 어머니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인간이 전력을 기울여 온 모든 승리와 패배가 종결될 때, 인생의 싸움에 일던 먼지들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 정복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모든 대상이 우리 눈 앞에서 쇠약해질 때, 새로운 세대를 위한 힘, 곧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여러분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자질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sup>15</sup>

4

**여성은 구원 사업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힘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 왕국의 일원이 되고 신권을 소유한 분]들과 손을 맞잡고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지도력을 키우고 인생 목표를 알고 자립심을 키우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16</sup>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의 자매들에게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세 가지 위대한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둘째는 교회 회원의 신앙을 강화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셋째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시키는 일입니다.<sup>17</sup>

교회의 여성은 형제들과 힘을 합쳐 주님의 전능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은 커다란 책임을 수행하며 그러한 책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맡은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그러한 조직은 강하고 활기에 차 있으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과 협조하는 위치에 서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지니신 여성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지도력과 힘과 뛰어난 결과를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데 있어 하나님을 도와 드리는 훌륭한 동반자로서 일하시는 것을 지지합니다.<sup>18</sup>

## 5

### 상호부조회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다.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의 팔에 영원토록 안겨 있습니다. 제 판단에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1842년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sup>19</sup>

교회의 여성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올바르고 합당한 것을 위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세계 어디에도 이 교회의 상호부조회에 필적할 만한 조직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 [상호부조회의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힘이 엄청날 것입니다.<sup>20</sup>

제가 참석했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독신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젊은 자매가 자신의 와드에서 젊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봉사과 좋은 기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sup>21</sup>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수많은 공과로 인해 지식이 늘어나고,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진 수백만 여성들의 삶에 상호부조회가 미친 기적적인 영향을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들이 와드나 지부라는 환경 속에서 교제하고, 감미롭고 소중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면서 서로 어울렸을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온 기쁨을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식탁에 음식을 놓아 주고, 병들어 절망에 빠졌을 때 신앙을 보살피고, 상처를 보듬어 주며, 사랑의 손길과 조용한 위안의 말로 고통을 감싸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위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본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행위들을 그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

그 누구도 지역의 상호부조회에서 진행하고 성취해 온 사업들을 계산해 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조직에 속한 자매들과 그들의 선한 행실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깃든 좋은 것들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를 축복하십니다. … 이 조직의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온 사랑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의 자애의 손길이 펼쳐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자애가 무수한 사람들의 생활에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 특별하고 거룩한 조직으로 말미암아 빛과 이해력, 배움과 지식, 그리고 영원한 진리가 세계 만방에서 이어질 세대들의 여성들의 삶을 향상하기를 기원합니다.<sup>22</sup>

## 6

### 마음속에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대규모의 여성 회중입니다. … 아무도 여러분이 발휘할 엄청난 선의 힘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여러분이 …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추가 된 훌륭한 덕성들을 지키기 위해 굳건하고 당당히 서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단합할 때, 그 힘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사탄이 많은 것을 다스리는 듯한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sup>23</sup>



“여러분 안에 내재된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 세상의 여성들에게 여러분 내부의 위대한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성할 목표를 능력보다 너무 높게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sup>24</sup>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충실한 후기 성도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힘은 위대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재능은 놀랍고, 여러분의 신앙과 주님과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경이적입니다. 복음대로 계속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업적은 여러분의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덕성과 진리 안에서 신앙과 충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영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무척 힘든 짐을 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교회 안의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가 그 짐을 함께 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전능하

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여건을 마련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이 사업은 기적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을 압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말고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sup>25</sup>

신앙을 가진 여성의 권능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거듭하여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내재한 신성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 여러분, 그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과 이후에 올 모든 사람이 살기에 더욱 좋은 곳이 되게 하십시오.<sup>26</sup>

우리 교회에 훌륭한 여성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폭풍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줄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sup>27</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에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헝클리 회장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편 참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고귀하고도 성스러운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조언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가? (2편 참조) 2편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택함을 받은 여인”이 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헝클리 회장이 어머니들에게 주신 조언을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3편 참조) 여러분은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부모에게 “어떠한 의무도 여러분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성실 속에서 ...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회의 여성들이 지닌 “힘과 큰 능력”의 어떤 예를 본 적이 있는가? (4편 참조) 여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님의 사업을 앞으로 전

진시킴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보았던 이런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헝클리 회장이 5편에서 서술한 대로, 상호부조회로부터 오는 축복을 살펴 본다. 청년 및 초등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들을 포함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와드의 상호부조회를 강화할 수 있을까?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여성들이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도록 돕는가?
- “여러분 안에 내재된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헝클리 회장의 격려를 숙고해 본다.(6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잠재력을 더 나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 내도록 발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언제 “신앙을 가진 여성의 경이로운 권능”을 보았는가?

#### 관련 성구

잠언 31:10~31; 누가복음 10:38~42; 사도행전 9:36~40; 로마서 16:1~2; 디모데후서 1:1~5; 앨마서 56:41~48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각 공과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가장 신성한 느낌을 함께 나눌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 주시도록 영을 구하기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은 꼭 공과를 마칠 때가 아니라 공과 중에도 몇 차례 간증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4쪽)

#### 주

1.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 ed. Virginia H. Pearce (1999), 194-95.
2.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5쪽.
3.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509-10.
4.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5쪽.
5.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8쪽.
6. “하나님의 딸”,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16쪽.
7.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7쪽.
8.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2쪽.
9. 헝클리 회장이 사용한 성임되다라는 표현은 그가 이 문장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교리와 성약 25편 7절에 그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경전 영문판에서 이 성구에 대한 주석을 보면 성임되다를 “혹은 성별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회복 초기에는 성임되다라는 말과 성별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고, 성임된다는 것이 항상 신권 직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예를 보려면, 교리와 성약 63:45을 참조한다.)

10. “만일 네가 충실하면”,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92~94쪽.
11. *Motherhood: A Heritage of Faith* (pamphlet, 1995), 6.
12.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99쪽.
13.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60쪽.
14.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99쪽.
15. *Motherhood: A Heritage of Faith*, 13.
16.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7~68쪽.
17. “여러분의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118쪽.
18. “만일 네가 충실하면”,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92쪽.
19. “그분의 사랑의 팔에”,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15쪽.
20. “Standing Strong and Immovable,”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an. 10, 2004, 20.
21. “The BYU Experienc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4, 1997), 2, speeches.byu.edu.
22. “Ambitious to Do Good”, *Ensign*, 1992년 3월호, 4~6쪽.
23.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 어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3쪽.
24.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696.
25. “하나님의 딸”, 119쪽.
26. “마음속에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110쪽.
27. “여러분의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118쪽.



##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지혜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위로 및 위안을 간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sup>1</sup>라고 말씀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원리를 실천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비범한 판단력을 지닌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sup>2</sup>

힝클리 회장과 그의 아내 마조리는 가정에서도 이 원리를 실천했다. 그들의 아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가족 기도를 거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기도할 차례가 되면 아버지는 매우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꾸밈이 있거나 감정적인 분위기로 기도하시지는 않았지요. 우리는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의 신앙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마치 지혜롭고 존경하는 스승이나 조연자에게 말씀하는 듯했습니다. 또 깊은 감정을 지니고 구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에게 그분들이 실재하는 분들이고 아버지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sup>3</sup> 마조리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족 기도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응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모두 가족 기도를 통해 들었지요.”<sup>4</sup>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기도와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sup>5</sup>라고 격려했다. 그는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립니다.”<sup>6</sup>라고 간증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나눔께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권고하신다.

제가 읽어 본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감을 주는 약속 중에,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주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sup>8</sup>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 입니다. ...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며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sup>9</sup>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드리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어떤 식으로 초대하시는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요. 그것은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나는지요.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 만 사실입니다.<sup>10</sup>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도의 관행이 사라져 버린 오늘날 대단히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지혜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위로 및 위안을 간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sup>11</sup>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더욱 강한 신앙으로 그분과 더욱 자주 교통할 것을 간청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상의 악에서 보호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신앙과 지식을 쌓으며 성장하

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유익하고 선한 삶으로 인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은 남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문제와 크나큰 번민이 가득한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되고, 축복받고, 보호되고, 영감받도록 전능하신 분께 간청하십시오.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손을 펼치고 그분의 영을 만백성에게 임하게 하셔서 국가들이 서로 분노하지 않고 평화가 지상에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 지혜와 이해를 간구하십시오.<sup>12</sup>

기도에 관한 놀라운 점은 그것이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의로운 포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sup>13</sup>

---

## 2

---

### 가족 기도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기적을 가져온다.

우리 시대에는 정직, 덕성 및 성실에 관해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문명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덕성이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때에만 시대의 흐름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하는 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매일 간구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옛날처럼 가족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병을 막아 줄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제안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 세대 안에 기적을 이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무릎을 꿇는 단순한 행동에는 바울이 “교만하며 … 조급하고 자고하며”라고 표현한 태도와는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는 그 행동에는 바울이 “부모를 거역하며 … 무정하며”라고 묘사한 성품을 없애 주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하신 분께 말씀드리는 그 행동에는 불경한 언행 및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디모데후서 3:1~4 참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과 화평과 그밖의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릴 때에, 바울이 묘사한, 기록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기 쉬운 습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서로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때, 가족은 서로 고마움과 존경심과 애정을 새로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및 억압받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키우게 되며,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려는 소망도 키우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손수 뭔가를 하려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그러한 이웃을 도와 달라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전념한다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피난처가 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자라날 씨앗은 날마다 드리는 가족 기도를 통해 가장 잘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하면 가족 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족 기도를 드리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서로의 결점을 고백하며 주님의 축복이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에게 임하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도드리는 가족은 더욱 훌륭한 사회의 희망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이사야 55:6)<sup>14</sup>

저는 … 한 젊은 선교사가 말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여러 달이 되었지만 이 나라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낮이면 좌절감에 휩싸이고 밤이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편지를 써서 집에 돌아갈 구실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



우리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가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아침 식사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너를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단다. 우리는 기도에 금식을 더했으며 네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형(오빠)를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 말을 잘 배워 부름받은 일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단다.’”

이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기도에 저의 기도를 더하며 가족들의 금식에 저의 금식을 더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사를 받아 이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sup>15</sup>

우리가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두 참된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강화시키며 살기에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미덕을 강화시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옛날처럼 다시 가족 예배를 이 지상에 널리 퍼뜨린다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심각한 문제들도 대부분 한 세대 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성실, 상호 존중 및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 될 것입니다.<sup>16</sup>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구주이시자 구속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하고 간단한 습관을 행하지 않는 가족은 커다란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sup>17</sup>

여러분 중에 가족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복리에 관해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sup>18</sup>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보상받게 되리라고 간증드립니다. 물론 그 변화는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며 매우 미세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히브리서 11:6) 때문입니다.

회원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러한 가족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격려하는 일에 충실하기를 기원합니다.<sup>19</sup>

### 3

####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혼자서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는 그 응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나누기에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sup>20</sup>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문제는 우리가 마치 전화기를 들고 가게에 물건을 주문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나열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우리는 명상하고, 숙고하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생각하고, 그런 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주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이사야 1:18)<sup>21</sup>

최고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문제를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 저는 주저 없이 제 기도가 응답되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데 대단한 재능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sup>22</sup>

기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 거듭 반복됨을 보아 왔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게 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큰 축복에 감사드리며, 인생길의 안내와 보호를 부탁드릴 기회를 줍니다. 지상에 널리 퍼진 이 위대한 사업은 한 소년의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다음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이것이 약속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있겠습니까?<sup>23</sup>

친구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귀 기울이십시오. 음성을 듣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감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분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sup>24</sup>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는 그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요한 밤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고난 중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을 인도하는 속삭임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러하듯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

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sup>25</sup>

기도로 여러분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sup>26</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발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기도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헝클리 회장의 조언을 다시 살펴본다.(1편 참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가진 것 이상의 지혜”를 찾았던 때는 언제인가? 기도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가져 온 때는 언제인가? 때로 기도가 “감사를 드리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헝클리 회장이 말씀한, 가족 기도를 통해 올 수 있는 각각의 축복을 생각해 본다.(2편 참조)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식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지속해서 가족 기도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가족 구성원들은 그러한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할 수 있는가?
- 3편에 나오는 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왜 기도에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게” 해 주는 힘이 있는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6:5~15; 누가복음 18:9~18; 니파이후서 32:8~9; 엘마서 34:17~28; 37:36~37; 제3니파이 18:15~25; 교리와 성약 19:28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책, 장, 혹은 구절을 빨리 읽거나 머리글을 살펴봄으로써 개요를 파악한다. 전후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23쪽).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각 장이나 문구를 두 번 이상 읽는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

1. “참되고 충실하라”,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94쪽.
2. Robert D. Hales,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1996), 444.
3. Richard G.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71.
4. Marjorie Pay Hinckley,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71.
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469.
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470.
7. “Dedication of Gordon B. Hinckley Building” (Brigham Young University-Idaho, Oct. 22, 2002), [byui.edu/Presentations/transcripts/devotionals/2002\\_10\\_22\\_hinckley.htm](http://byui.edu/Presentations/transcripts/devotionals/2002_10_22_hinckley.htm); accessed Sept. 21, 2015.
8. “진리의 기본 원리들”,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3쪽.
9. “참되고 충실하라”, 93쪽.
10. “겸손하고 상한 심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3쪽.
11. “신앙과 간증으로 짠 천”,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9쪽.
12.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9~100쪽.
1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468.
14. “가족 기도의 축복”, *성도의 벗*, 1991년 9월호, 3~5쪽.
15. Conference Report, Apr. 1963, 128. (“가족 기도의 축복”, *성도의 벗*, 1991년 9월호, 5~6쪽.)
16. “가족 기도의 축복”, 6쪽.
17.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9쪽.
18.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17.
19. “가족 기도의 축복”, 6쪽.
20. “높은 길을 걸으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1월호, 친2쪽.
21.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469.
2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469.
23.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8쪽.
24. “Watch the Switches in Your Life,” *Ensign*, Jan. 1973, 93.
25.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346.
26. “하나님의 딸”,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118쪽.



## 영의 속삭임

“높은 영적인 수준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영감과 그분의 성령의 동반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든 비 힝클리 의 생애에서

1995년 6월 24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신임 선교부 회장 부부들을 위한 모임에서 그들이 앞으로 3년간 봉사하는 동안 지침이 될 권고를 주었다. 그는 해롤드 비 리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을 당시 그를 스테이크 회장으로 성별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가르침에 관해 말했다.

“저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한밤중에 오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왜 계시가 때때로 밤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물론 낮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시의 은사인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셔야 하며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sup>1</sup>

그는 이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하게 된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 한밤중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 생각에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것들이었습니다.”<sup>2</sup> 예컨대 1992년 7월에 그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홍콩에서 성전 건립 부지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결정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뒤숭숭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를 깨우는 영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아주 흥미로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귀로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영의 음성이 들려왔다. 영은 이렇게 말했다. ‘왜 이것에 관하여 염려하는가? 이미 선교부 회장 사택과 작은 예배당이 자리잡고 있는 훌륭한 부지가 있지 않느냐. 그 건물들은 교통의 요충지인 주룽의 심장부에 있느니라. ... [여러] 층으로 건물을 짓거라. 1층과 2층에 예배당과 교실을 두고, 위쪽으로 두세 층에는 성전을 두면



중국 홍콩 성전

되느니라.” 힝클리 회장은 그 계시를 받은 후에 “편안함을 느꼈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sup>3</sup>

현재 홍콩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룽 지역에는 예전에 예배당과 선교부 회장 사택이 있던 곳에 단일 건물이 서 있다. 예배당, 선교부 회장 사택과 선교 본부,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어진 영의 속삭임을 증거하고 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성신은 보혜사이며 진리를 간증한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으로서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구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는, 구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sup>4</sup>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우리 마음속에 간증합니다.<sup>5</sup>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의] 간증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이 계시해 주시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은사입니다.<sup>6</sup>

성신은 진리를 간증하는 분으로 인간이 서로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위대하고도 도전적인 말씀에서, 물문경을 아는 지식은 “성신의 권능으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4~5)

저는 이 권능, 이 은사를 믿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믿습니다.<sup>7</sup>

### 2

####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성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며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의와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앞서가는 성령의 동반보다 ... 우리 생애에 올 수 있는 더 큰 축복은 없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경우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 가진 이 인도의 권능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sup>8</sup>

우리는 많은 행정상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성신이 필요합니다. 공과 시간에 복음을 가르치거나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데에도 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의 영향 아래 지시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성령의 영감 아래 행해진 가르침의 열매는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그것들은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의 가장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영성을 강화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일에서 성신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sup>9</sup>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영, 태도, 느낌, 겸손함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sup>10</sup>

### 3

#### **계시는 대부분 고요하고 작은 소리인 영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이따금, 저는 언론 매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항상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의 선지자에게 계시는 어떻게 옵니까?”

저는 계시가 과거에 왔던 것처럼 지금도 온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관해, 저는 이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바알의 제사들과 한 시험에 이어 엘리야가 한 경험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고요한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것은 영의 속삭임에 의해 옵니다. 그것은 밤의 정적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sup>11</sup>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며, 나팔이나 학식 있는 자들의 회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작은 계시의 소리로 옵니다. 헛되이 진리를 찾으려 애쓰는 자나 세상의 병폐에 대한 나뭇의 처방 [또는 치유법]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 본 사람은 시편의 저자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라고 하신 말씀과 구주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에 응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마태복음 11:15)<sup>12</sup>

#### 4

### 성령의 일은 우리를 깨우치고, 세워 주며, 드높여 준다.

영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과 발전으로 인도하는 것이면, 그것이 신앙과 간증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보다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면, 그것이 경건성에 기여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를 암흑으로 이끄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혼란과 근심을 불러오는 것이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면, 그것은 악마로부터 온 것입니다.<sup>13</sup>

여러분은 영의 열매로 영의 속삭임을 인식합니다. 마음을 밝혀 주는 것, 강화하는 것, 긍정적이고 확정적이고 고무적이고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언어와 더 나은 행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금단의 길로 이끄는 것은 대적에게서 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만큼 분명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sup>14</sup>

어떤 학자가 한번은 우리 교회가 지성주의의 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지성주의를 “지식은 전적으로 또는 그 주요 부분이 순수한 논리로부터 나오며, 그 논리가 궁극적인 실존 원리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철학 지파라는 의미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켄덤하우스 영어 사전*, 738쪽에서 인용) 그런 해석은 인간에게, 또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의 발전을 믿지만 지성만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에 따라 주어지 이렇게 훌륭한 말로 주어진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니”(교리와 성약 121:26)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실재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비판하는 인본주의자 및 품위를 떨어뜨리는 지성주의자들은 영적 시현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지도 않고, 그에 합당하도록 준비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식은 논리와 마음의 작용으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여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실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얻은 지식이 오감의 작용을 통하여 얻은 것 만큼이나 실질적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 대부분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성령에 일치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생애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혈연 관계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의 단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만적인 방법에 말려들지 맙시다. 이것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신 열매를 맺을 때가 너무 많습시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걸읍시다.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확신 있는 태도를 발전시킵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sup>15</sup>

높은 영적인 수준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끊임 없이 주님의 영감과 그분의 명령의 동반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sup>16</sup>

## 5

### 합당하게 생활할 때 성신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교리와 성약 121:46) 되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가르치며 인도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며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sup>17</sup>

“어떻게 주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영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올바르게 생활하십시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외설물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멀어지십시오. 여러분을 빈곤하게 만들면서 다른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자극적인 것들이 가진 영향력에 굴복한다면, 여러분이 읽는 책들과 잡지들, 여러분이 시청하는 비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여러분이 관람하는 쇼를 비롯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멀어지십시오.<sup>18</sup>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맺은 맹세와 성약을 새롭게 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겠다는 맹세와, 약속을 맺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그분의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닙니까!<sup>19</sup>

신성한 권세를 지니고 행하는 이들에게서 그 은사를 받아 신뢰를 구성하는 한 분이 베푸는 성역의 영향력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덕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맺으신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교리와 성약 121:46)<sup>20</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우리에게 왜 성신이 필요한가?(1편 및 2편 참조) 여러분은 언제 성신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느껴 보았는가? 그러한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 선지자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방법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설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3편 참조) 성신이 주로 “고요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신에게서 오는 속삭임을 인식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 힝클리 회장이 4편에서 “영의 열매”에 관하여 요약한 내용을 복습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영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지성만이 유일한 지식의 근원 …”이라고 믿는 것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가?
- 5편에서 성신을 동반하는 것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성신의 축복을 받아왔는가?

###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2:9~14; 니파이전서 10:17; 니파이후서 31:17~18; 모사이야서 3:19; 모로나이서 8:25~26; 교리와 성약 11:12~14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우리가 우리의 반원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 각자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그들의 취미, 성공, 필요 사항, 관심사 등을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그들이 결석하고 출석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32쪽)

### 주

1.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556.
2.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995-1999* (2005), 441.
3.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6), 481.
4.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성도의 벗, 1998년 3월호, 8쪽.

5. "Latter-day Counsel: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July 1999, 72.
6.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8쪽.
7.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8쪽.
8.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59.
9.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4, 6쪽.
10.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440.
11. "제일회장단 정원회",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38~39쪽.
12. Conference Report, Apr. 1964, 38-39.
13.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9쪽.
14.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61.
15. "끝없는 진리 탐구", *성도의 벗*, 1986년 2~3월호, 11쪽.
16.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4쪽.
17. "확신에 찬 생활",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5~6쪽.
18.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377-78.
19.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319.
20. "Priesthood Restoration," *Ensign*, Oct. 1988, 72.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딴 ... 교회의 으뜸되시는 모퉁잇돌이십니다.”



##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197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다.

“우리는 최근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을 공개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개축된 다음에, 약 2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내부를 관람했습니다. 공개한 첫날에는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이 귀빈으로 초대되었는데, 수백 명이 이에 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에도 기꺼이 응답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신교도 성직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다 둘러보았는데, 이 건물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어 있더군요.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 교회의 건물을 본 일이 있지만, 역시 십자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독교 종파의 형제들이 교회의 침탑이나 예배당의 단상에 십자가를 달아 놓거나 그들의 복장에 십자가를 달아 놓거나 그들의 복장에 십자가를 부착하고, 책에도 십자가를 새겨 놓는 것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우리 신앙의 뜻깊은 표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

… 어떠한 증서나 어떠한 예술품이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경이와 영광을 표시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상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가 비열하고 거짓되고 무례한 짓으로 그의 상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하고 품위 있고 고결한 행위로 우리가 받들고 있는 그의 이름의 상징을 더욱 빛나게 닦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것을 뜻깊게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것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sup>1</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시다.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딴 … 교회의 으뜸되는 모퉁잇돌이십니다.<sup>2</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sup>3</sup>

### 지상 성역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셨던 그분께서는 필멸의 생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의 해의 왕국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으며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누가복음 2:52)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열두 살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에서 학식 있는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리아가 그분을 책망하자,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미래에 펼치실 성역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역은 요단 강에서 그분의 사촌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물에서 일어서실 때 성신이 비둘기의 형태로 임하였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선언은 그분의 신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분이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을 앗아가려는 악마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 대적의 꾀에 그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마태복음 4:7)고 대답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다시 선언 하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먼지 가득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소유라고 할 만한 집도, 머리를 베고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관용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태복음 5:40)

그분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앉은뱅이가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은 그분을 따랐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반을 꾸몄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집에서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파멸시키려고 계획하는 사람들과 결탁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사도행전 10:38)

이것만으로도 그분을 영원히 기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그분을 이 지상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과 유명한 말과 행동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자리매김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분은 온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능하신 분의 아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더 위대한 일들의 전주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이상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sup>4</sup>

### 체포, 십자가에 달림 및 사망

그분은 배반당하여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커다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위에 그는 산 채로 못 박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분의 생명은 천천히 꺼져 갔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떠나자 땅이 요동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엄숙하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태복음 27:54)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옷을 입히고 그것을 ... 새로운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

그분의 친구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했으며 자신의 신성을 증거 할 증인으로 불렀던 사도들도 울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 일 만에 일어나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담과 절망과 비탄의 처참한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sup>5</sup>

### 부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 내려져 있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묘지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의 메시지는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관용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누가복음 24:5~7)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단순한 말은 모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제껏 지상에 태어난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질문, 즉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응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생에서 실재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실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께서 고통받던 시간에 틀림없이 우셨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껴안았을 때의 재회의 기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분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은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라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니 이다”(요한복음 20:28) 그분은 [또 다른 때]에 500명과 이야기하셨습니다. …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동반자인 물론경입니다. 이 책은 그분께서 구대륙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신대륙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이 서반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구름을 통하여 하강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들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제3니파이 11:7)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

만일 이 모든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확실하고도 분명하며 솔직한 간증이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는 숲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빛과 이해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나타나 조셉의 위 공중에서 계셨는데 그분들의 찬란함과 영광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셉이 그후 다른 때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0, 22)<sup>6</sup>

의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주님의 상처난 손을 만지는 도마에게 주어졌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27]는 말씀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생애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요 신약의 메시야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였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서반구를 방문하여 그곳의 주민을 가르쳤고,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으십시오.<sup>7</sup>

---

 2
 

---

###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전쟁을 하지만 적군과 아군이 항상 명확하게 나뉘지는 않습니다. ... 기독교인들 중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그다지 유혹적이지 않거나,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 폭넓지 않거나 그들의 의도가 그렇게 교묘한 것이 아니라면 주목받지 않을 것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여러 곳에 모일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의 설교자들이 아름답고 희망에 찬 언어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자녀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요단 강 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하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병약한 자를 되살리시고 죽은 자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요셉의 무덤에 매장된 후 삼 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생명이 깃들고 인격을 갖춘 채로 여전히 살아 계시며, 그분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약속했던 바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진실로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철학자들에게서 비웃음을 사고 있으며, 일부 교육자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 수가 늘고 있는 성직자들과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 “구식”이라고 치부하는, 그 세력이 줄고 있는 직역주의자입니다.

... 학식 있는 자들의 눈에는 유대의 평야에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탄생,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들을 행하신 분,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미신처럼 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함께 걸으셨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주님에게서 신성을 제거한 후에 왜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이 영리한 학자들은 예수에게서 신격을 없애고 그분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한정된 사상에 적합하게 바꾸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부자 관계를 부정하고, 세상에서 그들의 적법한 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

...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엄숙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가 생명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 합리적인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성한 구속주라는 그분의 유일하고도 비할 곳 없는 위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이해와 열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높은 교육을 받거나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서로 상치되는 것

은 아니나 철학 서적만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좀 더 단순한 과정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11 참조)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주님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세 가지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개념상 초보적인 것이며, 반복하기에 단조로울 정도이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것이며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합니다. ...

첫 단계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 조용한 확신과 함께 그분의 말씀이 올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몰몬경 표제지)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서 나온 신세계의 성약인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은 봉사, 즉 주님의 사업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시간, 재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의심은 차츰 작아질 것입니다. ...

셋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씀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아마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듣지 못하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롭고 확실한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 ...

... 모든 철학의 혼란과 비판과 오늘날의 부정적인 신학을 뚫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세상의 구속주이자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하여 오실 주님이시라는 성령의 빛나는 증거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sup>8</sup>

## 3

###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저는 이천 년 전에 빌라도가 했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마태복음 27:22)라는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만들 수 있는가? ...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그분의 가르침과 비할 곳 없는 모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의 삶은 진실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다른 쪽 뺨을 돌려 대고, 더 멀리 함께 가 주라는 가르침, 돌아온 탕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또다른 수많은 가르침들은 시대를 거치며 만연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친절과 자비를 끌어 내는 촉매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잔인한 행위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에서는 친절과 관용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그러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4:9) ...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5~36) ...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 배우십시오. 경전에서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분의 삶과 사명이라는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열심히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준수하십시오.<sup>9</sup>

## 4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 곧 우리의 힘, 위안, 신앙의 중심으로서 바라본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날이 어떨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대한 성취의 날이 올 테지만, 어떤 이에게는 낙담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은혜로운 삶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질병과 큰 슬픔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압니다. 하늘의 복극성처럼, 미래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우리 불멸의 삶의 닦으로 굳건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곧 힘이요, 위안이요,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겉 때나 흐릴 때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미소지어 주실 것입니다.<sup>10</sup>

승리한 나의 구속주  
살아 계심을 아오니  
고통과 사망 이기신  
나의 왕 나의 구속주  
신앙의 반석 인류의  
밝은 빛 살아 계시니  
사망의 휘장 너머로  
더 좋은 길 밝히시네  
주님의 영광 평안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  
의로운 길 걷는 신앙  
영생으로 이끄시네<sup>11</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1편에 나오는 헝클리 회장의 간증을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은 왜 구주의 성역과 속죄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가? 구주의 삶 중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화와 가르침은 무엇인가?

- 2편에 나오는 각각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본다. 여러분이 한 대답은 매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같은 편에서 힝클리 회장이 제시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다시 살펴본다. 이 원리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이해력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힝클리 회장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복해서 질문했다.(3편) 우리는 그분의 대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깊이 생각해 본다.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의 영향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겠는가?
- 힝클리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닻이 되심을 강조했다.(4편 참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구주의 힘과 위안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4편에 나오는 힝클리 회장이 작사한 찬송가의 가사를 한 줄 한 줄 깊이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밝[히] 주시는가?”

관련 성구

누가복음 24:36~39; 요한복음 1:1~14; 사도행전 4:10~12; 니파이후서 2:8; 25:26; 앨마서 5:48; 교리와 성약 110:3~4

학습을 위한 도움말

“구주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 …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22쪽)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침이 내가 더욱 구주와 같이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

- |  |  |
|--|--|
| 1. “그리스도의 상징”, 성도의 빛, 1976년 12월호, 3~4쪽.                |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84~85쪽.   |
| 2. “신앙의 네 토통잇돌”,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4쪽.                  | 7.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의 빛, 1990년 4월호, 4쪽.   |
| 3.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280. | 8. Conference Report, Apr. 1966, 85-87.  |
| 4.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3쪽.       | 9.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ich Is Called Christ?” <i>Ensign</i> , Dec. 1983, 3-5. |
| 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83~84쪽.                     | 10.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1~102쪽.  |
|  | 11.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작사: 고든 비 힝클리.  |

## 값진 은사,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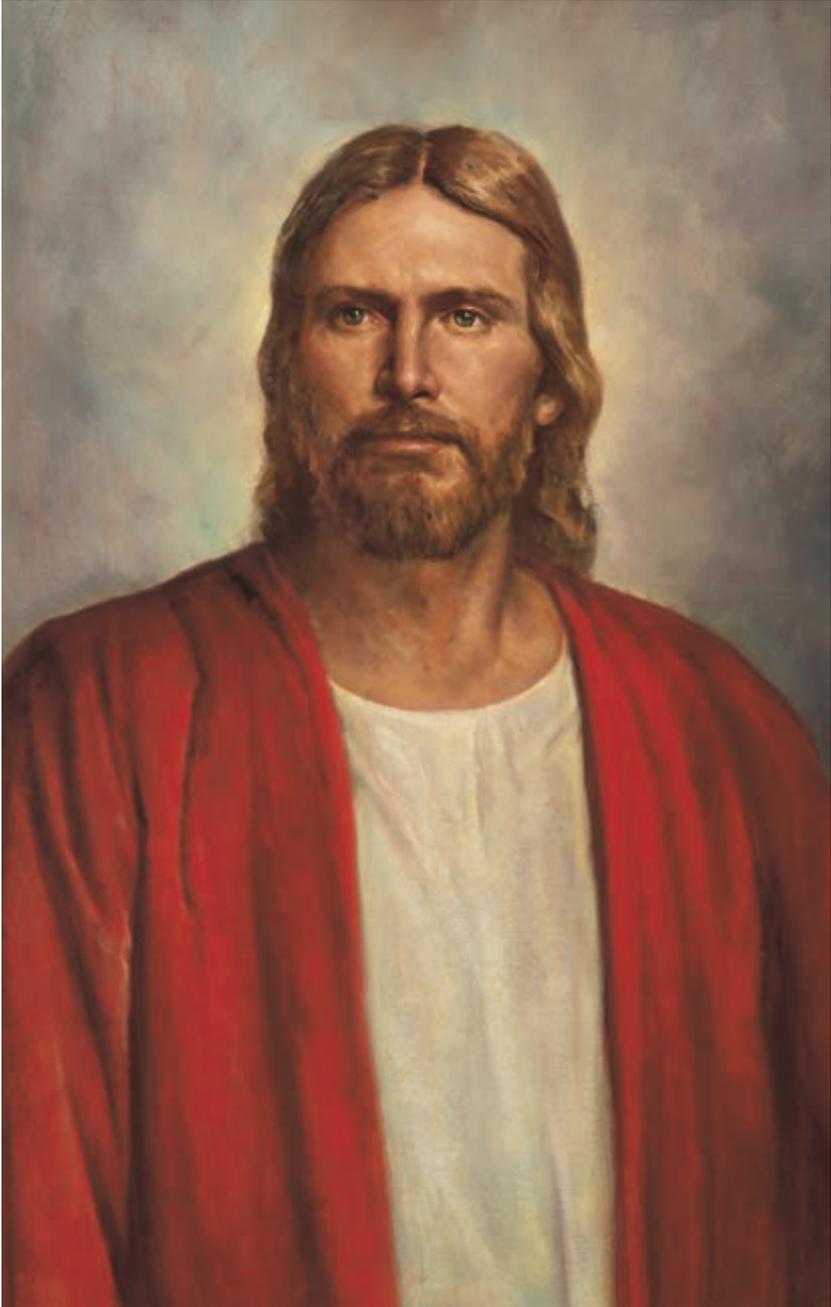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에서 요동치는 간증은 똑같습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영적인 느낌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은 제가 다섯 살 무렵의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귀가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 저의 어머니께서는 작은 주머니에 식탁용 소금을 넣어 그것을 난로에 데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드럽게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시며 신권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과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저를 부드럽게 그의 팔에 안고 따뜻한 소금 주머니를 저의 귀에 대 주셨습니다. 고통은 가라앉고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안전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신권의 권세를 행사한 최초의 기억이었습니다.

후에 청소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겨울에 형과 함께 불도 때지 않은 방에서 잤습니다. ... 따뜻한 침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 저는 아멘 소리가 끝나면 침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 당기면서 방금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대화할 때 잠시 동안 계속되는 평온함과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

그러한 간증은 제가 선교사로서 신약전서와, 그분에 대한 증거를 더해 주는 물문경을 읽을 때 저의 마음속에서 커 갔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어린 시절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 인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은 더욱 커 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sup>1</sup>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안에서 하나가 된다.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간증은 교회의 큰 힘이며 신앙과 활동의 원천이다.

우리는 광활한 세계에 퍼져 있는 거대한 가족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에서 요동치는 간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사업을 주도하는 방향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으며, 이 후일의 경륜의 시대에 앞장 서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이 그분의 머리 위에 회복되었음을 알며 그 신권이 오늘에 이르는 동안 중단없는 계통을 따라 내려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신성을 실증하는 참된 증거임을 알고 있습니다.<sup>2</sup>

간증은 바로 이 교회의 큰 힘이 됩니다. 이 간증은 신앙과 활동의 원천입니다. … 지상의 어떤 힘에 못지 않게 실질적이고 강력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한복음 3:8)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간증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sup>3</sup>

### 2

#### 간증은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를 지탱해 주고 행동하게 하는, 조용하고도 용기를 북돋우는 목소리이다.

개인적인 간증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원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은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림 없이 지탱해 주는, 조용하고도 용기를 북돋우는 목소리입니다.

간증은 신비하고도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간증은 봉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빈부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간증이 전달되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게 됩니다. 이 간증은 노소를 불문합니다. 이 간증은 세미나리 학생에게서도, 선교사에게서도,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서도, 선교부 회장에게서도, 상호부조회 자매

들에게서도, 모든 총관리 역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간증은 회원으로서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간증은 주님의 사업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간증은 행동하게 합니다. 간증은 우리가 요청받은 일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간증은, 인생에는 목적이 있으며,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는 영원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

간증은 처음엔 약하고 다소 휘청거리지만 모든 구도자를 개심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간증은 모든 개심자가 안전하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해 줍니다. …

이 교회가 어디에 조직되어 있든지 그 권능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뚝 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합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모든 것이 그분들의 대업이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마디 되지 않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가르치든지 간에, 회원들이 어디에서 신앙을 나누든지 간에 간증은 영향을 미칩니다.

간증은 논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대자들은 성구를 인용해 끝없이 교리 문제로 논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현명하고 설득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논쟁은 사라집니다.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내면의 영혼에서 조용히 우러나오는 음성을 논박하거나 부인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sup>4</sup>

### “우리 삶에 빛을”

[다비드 카스테네다]와 그의 부인인 토마사와 자녀들은 [멕시코] 토레온 근처의 꽤 허름한 목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닭 30마리, 돼지 2마리, 그리고 여윈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닭들이 낳아 주는 달걀 몇 개로 생계를 유지하고, 좀 남으면 팔아서 돈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가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교사들이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카스테네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희 눈에서 가리개를 벗겨 내고 삶에 빛을 가져다주셨죠. 저희는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학교라고는 2년밖에 다니지 않았고 남편은 무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이 그들을 도와 결국 침례받게 되었습니다. … 그들의 사업은 점차 번창하여 갔는데, 아버지와 다섯 아들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

양 하나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대로 살았으며, 어떤 부름이든지 받아들여 봉사했습니다. 아들 네 명과 딸 세 명이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활에 미치는 주님의 권능에 관한 간증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들의 집안과 친구 200여 명이 그 부부의 영향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집안과 친구 가운데 30명이 넘는 아들딸들이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현재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는 부지를 기증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으며, 부모들은 차례를 바꿔 가면서 매달 멕시코 시티로 갑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사업이 갖는 큰 권능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간증이 생활에 임재함으로써 몰몬이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한 전형입니다.<sup>5</sup>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멀리 외국에서 선진 기술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온 한 훌륭한 젊은 해군 장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미 해군에 있는 미군 동료 중 몇몇 사람의 행동에 마음이 끌려,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흥미를 갖고 들었습니다. 미군 동료들은 그에게 세상의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및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또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와 현대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들려주었고, 주님의 복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젊은이를 소개받아 만난 때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나라의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형제님이 기독교인, 특히 몰몬교인이 되어 귀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실망을 하겠죠. 아마 저를 쫓아내고, 저를 죽은 자식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장래와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여건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갈지 모르겠군요.”

저는 “복음을 위해 것처럼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에 촉촉히 젖은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잘생긴 갈색 얼굴을 들고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같은 질문을 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됩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그 젊은이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하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참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sup>6</sup>

### 인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

저는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회원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술자였는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가 그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는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고나 저러는 걸까? 그렇게 되면 시간을 빼앗겨야 하고 십일조도 내야 하며 친구도 잃게 되고 또 담배도 끊어야 하는데. 그는 급히 옷을 걸쳐 입고는 문을 활 닫고서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아내와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한 자신에게 마구 욕설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몸이 피로해지자 화가 가라앉으며 웬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걸어가는 채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느낌으로 “그것은 참되다.”라는 말씀이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 왔습니다.

그는 “그것은 참되다. 그것은 참되다.”하고 계속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를 것처럼 화나게 했던 규제와 요구 사항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회중에게 그의 삶에 찾아온 기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십일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다. 그의 가정에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수입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바치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다. 조금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내면의 영혼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음성을 논박하거나 부인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몇 시간만 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책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임을 통해 발전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 후, 지성과 세상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 익숙해 있던 이 기술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생애에 일어난 기적에 관해 간증을 했습니다.<sup>7</sup>

### “내 생애에서 가장 값진 것”

몇 년 전에 독일 베르흐테스가덴에서 열린 한 물몬 군인 대회에서 총명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어떤 자매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곳에서 그 자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녀는 군의관으로서 계급은 소령이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1969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 보니 양복을 입고 흰 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두 젊은이가 서 있는데, 머

리도 잘 빚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도 인상이 좋아서 저는 ‘무엇을 판매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젊은이가 ‘우리는 판매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신앙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증을 갖게 된 시초입니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특권과 영광에 대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제 마음에 가져다준 기쁨과 평화는 바로 지상의 천국 그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의 간증은 제 생애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sup>8</sup>

이러한 일이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잘 훈련된 사람들과 사업계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빈틈없는 사람 등 세상 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고, 복음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어 그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는 간증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sup>9</sup>

### 3

####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실재성, 그리고 그분들의 사업이 회복되었음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다.**

이 증거, 바로 이 간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모든 남녀가 자신의 내부에서 이 위대한 후기의 사업이 참되며,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 살아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자 또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간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우리가 봉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과 지식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다시 왔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그분의 신성,

곧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교훈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들은 일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요한복음 6:60) 이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실망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6~69)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가장 확실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당신께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간증은 바로 이러한 확신, 곧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신성을 가지셨으며, 이 시대에 그분들의 사업이 회복되었고 뒤이어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토대가 되는 영광스러운 계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조용히 갖는 그러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 저는 최근에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보았던 곳과 가까운] 뉴욕 주 팔마이러에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었던 행사를 보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 일어난 것이다. 회색 지대, 즉 중간은 없는 것이다.”

그때 신앙의 음성이 속삭입니다. “그 일은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다고 말했으므로 일어난 것이다.”

근처에는 쿠모라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몰몬경으로 번역된 고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의 거룩한 기원을 인정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상고해 보면 신앙을 가지고 읽었던 모든 사람은 “이 책은 참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가 고대 복음의 회복, 고대 신권의 회복, 고대 교회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의 다른 요소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 이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자 직설적인 확언이 되었습니다.<sup>10</sup>

#### 4

### 우리는 우리 간증에 따라 생활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디모데전서 4:16)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준 이 조언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능의 마음, 즉 메시지의 권능, 그리고 사랑의 마음, 즉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건전한 마음, 즉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데후서 1:8)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이자 요청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sup>11</sup>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난 시현은 조셉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의 중요성에 대해 저는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참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의 신권은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전해 준 신권의 열쇠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고, 우리는 그 간증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간증과 저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저의 사랑과 이 후일의 위대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 생활하시라는 저의 권유를 전해 드립니다.<sup>1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여러분 개인의 간증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힘에 공헌하는가?(1편 참조)
- 힝클리 회장은 간증이 우리를 지탱하고 “행동하게 한다”고 강조했다.(2편 참조)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탱해 주었는가?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2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편 참조) 여러분이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된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왜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 그것이 더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간증을 나누는 것이 두렵다는 느낌을 어떻게 극복했었는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4편 참조)

###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2:3; 베드로전서 3:15; 앨마서 5:43~46; 32:26~30; 모로나이서 10:3~5; 교리와 성약 8:2~3; 80:3~5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각 반원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공과를 더 잘 준비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력은 여러분이 각 반원을 토론에 참여시키고 다른 활동을 배우게 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34쪽)

### 주

1. “나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3~85쪽.
2. “영의 권능으로 들음”,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5쪽.
3. “간증”,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9쪽.
4. “간증”, 69~70쪽.
5. “간증”, 70쪽.
6.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성도의 빛*, 1993년 10월호, 3~4쪽.
7.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5~6쪽.
8.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6~7쪽.
9.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6쪽.
10. “간증”, 70~70쪽.
11.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369.
12.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5쪽.



힝클리 회장과 힝클리 자매는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결혼 생활을 누렸으며 “재결합하여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누릴 것이라는 조용하고도 분명한 확신”으로 강화되었다.



## 결혼 생활에서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키움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과 고결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결혼 생활에서 찾게 됩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어느 날 저녁 힝클리 회장 내외가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데 힝클리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제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당신의 그러한 점이 좋았어요.”<sup>1</sup> 힝클리 회장은 아내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내의 개성, 성격, 소망, 배경, 포부를 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담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길을 막지 않을 때, 그녀가 하는 일에 놀라게 됩니다.”<sup>2</sup> 힝클리 자매 또한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개인적인 관심사, 광범위한 교회 봉사를 지지했다.

고든 비 힝클리와 마조리 페이는 성장기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와드에서 보냈으며, 서로의 집은 여러 해 동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 힝클리 회장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녀를 초등학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가 성구를 낭독했지요. 그것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나이가 들어 가면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으며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sup>3</sup>

그들은 교회 무도회에서 첫 데이트를 했으며 당시 그는 19세였고 그녀는 18세였다. 마조리는 후에 어머니에게 “이 젊은이는 크게 성공할 거예요.”라고 말했다.<sup>4</sup> 그들의 교제는 고든이 유타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1933년에 그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1935년에 귀환한 후 그들은 다시 교제를 시작했으며, 1937년에 솔트

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결혼 초기를 회상하며 힝클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부족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낙관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초기 시절이 항상 더없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으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심과 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하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 초에 끊임 없이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익숙해지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양보와 넉넉한 용통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sup>5</sup>

힝클리 회장이 1958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아 봉사하던 초기 시절에 교회 업무차 여행을 할 때면 힝클리 자매는 보통 집에 머물면서 다섯 자녀를 돌보았다.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부부가 자주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1977년 4월, 호주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 중에 결혼 4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힝클리 회장은 그날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머물렀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지난 세월이 우리에게 안겨 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루 종일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모임을 했다. 간증과 가르침을 들으며 보낸 훌륭한 하루였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한 코르사주를 선교사들이 마조리에게 선물해 주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꽤 긴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삶이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아 왔다. 사람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영원의 의미와 영원한 동반자 관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 오늘 밤 집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훌륭한 경험이다.”<sup>6</sup>

22년 후에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힝클리 자매에게 6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 관한 소회를 편지로 표현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보석 같은 동반자였다요. 지금까지 함께 나이 들어 온 것도 달콤한 경험이었소. … 장차 어느 날 죽음의 손길이 우리 중 하나를 스치게 되면 당연히 슬픔이 밀려들겠지만,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이룰 것이라는 조용하고도 분명한 확신 또한 있을 거라오.”<sup>7</sup>

2004년 초, 핑클리 회장 내외가 가나 아크라 성전 헌납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핑클리 자매가 피로로 쓰러졌다. 이후로 그녀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4년 4월 6일에 별세했다. 6개월 후에 열린 10월 연차 대회에서 핑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필멸의 목숨이 아내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 벅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 제가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세기의 3분의 2 이상 동안 사랑하는 동반자로 주님 앞에서 저와 동등한 사람이었으며, 실제로는 저보다 나았습니다.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아내는 다시 제가 꿈속에서 그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sup>8</sup>

핑클리 회장은 슬픔 속에서도 아내인 마조리와 영원히 인봉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온 진정으로 사랑하는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온 마음을 파고드는 외로움이 점차 커집니다.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안겨 줍니다. 하지만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그리고 미지의 곳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주며,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삶은 계속되며, 해야 할 일과 함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선사합니다. 필멸의 귀로는 들을 수조차 없는 그 고요한 목소리는 헤어짐이 있으니 기쁨에 찬 재회도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sup>9</sup>

## 고든 비 핑클리의 가르침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결혼을 계획하셨다.

결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 및 인류의 지속을 위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지혜로 준비하신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태초부터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세기 2:23~24)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의 계시에서도 주님은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

분명히 고대 경전과 현대 경전을 읽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분명코 결혼의 성스러운 뜻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과 고결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결혼 생활에서 찾게 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야말로 온 세상의 남성과 여성들이 간구하고 갈망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10</sup>

## 2

### 성전에서 남편과 아내는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봉될 수 있다.

이 성전들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이 거룩한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영원한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됩니다. 결혼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영원한 것입니다.<sup>11</sup>

내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그들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 가운데 다음 세상에서 그 자녀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속성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의미 있게 구현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마땅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를 갈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방편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sup>12</sup>

우리가 합당하게 결혼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죽음이라는 확실성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얼마나 달콤하며, 또 그로 인한 평안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갈망하고 소망하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는 권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단지 낭만적인 동경에 불과합니다.<sup>13</sup>

### 3

#### 남편과 아내는 옆에서 나란히 영원한 길을 걸어간다.

그분의 원대한 계획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성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그 두 종류의 성별이 고상하게 표현됩니다. 한쪽은 다른 한쪽을 보완합니다.<sup>14</sup>

결혼의 동반 관계에는 열등이나 우월도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가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옆에서 나란히 영원한 길을 걷습니다.<sup>15</sup>

결혼 생활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상대방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 주고 배우자가 어떤 책임이나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그를 도와주는 평등한 동반자 관계인 것입니다.<sup>16</sup>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귀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위험과 영광을 통해 햇빛과 폭풍우를 거치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간주하십시오.<sup>17</sup>

저는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 알았던 두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 마을에서 온 소년으로서 외모도 평범하고 돈도 없었고 별로 장래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농장 일을 하면서 자랐으며 그에게 매력적인 자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일하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촌스럽게 보이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도시 소녀였습니다. …

이 두 사람 사이에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 [그들은] 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함께 웃고 춤추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먹고 살 돈이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렵게 직업 학교 과정을 계속했으며 그의 반에서 잘 해냈습니다. 그녀는 돈을 모으고 일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항상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정말로 어려워질 때는 조용하게 “우리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신뢰심에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생겼으며 그들은 함께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양육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성실에서 나오는 안정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성장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저는 침침한 비행기 내부의 통로를 지나가다가 흰 머리의 여성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깨어 있었으며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도 잠에서 깨었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역시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상당한 학자들의 단체에서 논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아주 조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부인은 남편에게 주어진 명예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

저는 비행기의 제 자리에 돌아와 앉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들을 시골에서 온 농촌 소년과 코에 주근깨가 있는 미소 짓는 소녀로밖에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미래의 사랑과 성실과 화평과 신앙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마음이 끌렸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랬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어떤 거룩한 것이 이들에게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 시절에 그 사랑이 꽃피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미덕과 신앙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업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노력하면서 서로 함께함으로써 지상에서 가장 큰 힘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숙한 시기에 도달하여 함께 화평과 조용한 만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이외에도 그들은 오래 전에 성전에서 맺은 신권 성약과 받은 약속을 통하여 영원히 기쁘게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sup>18</sup>

#### 4

### **하나님께서서는 결혼하지 않은 합당한 개개인들에게서 어떠한 축복도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무리에게 꼬리표를 달니다. 그 꼬리표에는 “독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 또는 “행동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김새나 정서적인 반응,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 비참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중요하며, 그분의 자비 아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이 거두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sup>19</sup>

저는 이제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느끼는 외로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

여러분은 이 시기를 훌륭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하며 판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훈련받았고 경험을 지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양하고 도우며 격려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 영의 배터리를 가득 충전 하셔서 다른 사람의 등불을 밝혀 주십시오.<sup>20</sup>

미혼이신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며 친절과 관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

지식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선택한 교육 분야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기술을 닦아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 여러분이 독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지혜와 영생을 지니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sup>21</sup>

이혼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결혼에 실패한 패배자라고 알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의 의무는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으며, 북돋우고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 30)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부인하지도, 내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선뜻 이해되지 않거나 심지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받아 왔다는 것을 아실 날이 올 것입니다.<sup>22</sup>

## 5

### 결혼 생활의 행복은 배우자의 복리에 사랑이 담긴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서 온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주어 잘 가꾸십시오.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이 굳건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결혼은 전능하신 분의 계획하에 남녀간에 이뤄진 계약이고 서약이며 결속입니다. 그것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sup>23</sup>

오랫동안 수백 건의 이혼 상황을 다루어 본 끝에 저는 이 비통한 문제를 푸는 데 하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그 밖의 다른 무엇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그 동반자의 위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끊임없이 한다면, 이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논쟁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랑과 관심이 확대와 비열함을 대신할 것입니다. ...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 친절과 관심의 표현에 있습니다. 황금률의 적용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약을 맺으면서 제단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런 다음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모욕적인 언사, 경박하고 가슴 아픈 말, 높은 음성, 모진 비난을 서로에게 할 때 그 모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이런 “천하고 보잘것없는 요소들”(갈라디아서 4:9 참조)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신성한 성품을 서로에게서 찾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훈육하는 반면, 우리의 동반자를 훈육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생활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sup>24</sup>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주어 잘 가꾸십시오.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이 굳건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문젯거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며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과, 회개,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질은 정열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평안과 복리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방법만 생각한다면 신뢰나 사랑 뿐만 아니라 행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에만 사랑이 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번영과 발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sup>25</sup>

많은 사람들이 결점 찾기를 그치고 장점 찾기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행하게도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남편을 개조하고 싶어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표준에 아내들을 억지로 맞추어 넣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시도는 단지 불화와 오해, 그리고 슬픔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재능의 발전과 표현에 대한 기회와 격려도 있어야 합니다.<sup>26</sup>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충실하십시오. 영원의 견지에서 볼 때, 배우자는 여러분이 갖게 될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러한 배우자는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sup>27</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힝클리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남녀간의 결혼을 마련하셨다고 가르쳤다.(1편) 이 지식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받는 영원한 결혼의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2편 참조) 영원한 관계에 관한 감사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해 준 경험이 있었는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
- 결혼 관계에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3편 참조) 3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종류의 힘을 기를 수 있는가?
- 4편에 있는 힝클리 회장의 약속과 조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편에 있는 가르침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우리의 재능과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주어 잘 가[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5편 참조)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더 큰 행복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례들을 보았는가?

###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1:11; 마태복음 19:3~6; 교리와 성약 42:22; 132:18~19; 모세서 2:27~28; 3:18, 21~24

### 학습을 위한 도움말

“매일 시간을 들여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평화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및 가족과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올 것입니다.”(리차드 지 스코트,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3쪽)

## 주

1. “우리 삶에서의 여성”,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5쪽.
2. “힝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32쪽.
3.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Ensign*, June 1995, 10-11.
4.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 ed. Virginia H. Pearce (1999), x.
5. *Glimpses*, 184.
6. Gordon B. Hinckley journal, Apr. 29, 1977.
7. Gerry Avant, “A Tender Farewell to an Elect Lady,” *Church News*, Apr. 17, 2004, 4.
8. “우리 삶에서의 여성”, 82쪽.
9. Marjorie Pay Hinckley, *Letters* (2004), 264; see also R. Scott Lloyd, “Apostle’s Work Continues beyond Veil,” *Church News*, July 31, 2004, 3.
10.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70쪽.
11.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5쪽.
12. “왜 성전을 지을까요?”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24~25쪽; 또한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5~6쪽 참조.
13.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6~7쪽; 또한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44쪽 참조.
14. “우리 삶에서의 여성”, 84쪽.
15.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함당성”,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0쪽.
16.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빛*, 1993년 3월호, 7쪽.
17.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73쪽.
18.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의 빛*, 1984년 8월호, 2~3쪽,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
19. “To Single Adults,” *Ensign*, June 1989, 72.
20. “To Single Adults,” 72-73.
21. “여러분의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116~117쪽.
22. “To Single Adults,” 74.
23.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9쪽.
24. “우리 삶에서의 여성”, 84쪽.
25. “저는 믿습니다”, 7쪽.
26.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2007), 128쪽.
27. “탐내지 말라”, *성도의 빛*, 1991년 2월호, 8쪽.



“우리는 부모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가정—의로운 삶의 기초

“여러분이 사랑과 큰 희망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들의 생활은 더욱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1973년 말 고든과 마조리 힝클리는 어쩔 수 없이 유타 주 이스트 밀 크릭에 있는 그들의 집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에 가까이 살기 위해서였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던 힝클리 회장은 그 해의 마지막 날 시간을 내어 그들의 집에 대해 기록했다. 글을 통해 그는 그 장소뿐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감상적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가족이 함께 그 집을 짓고 주변을 가꾸기 위해 들였던 노력을 회상했다. 그런 후 그의 생각은 가족들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놀았고, 또 함께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웠고, 그분이 살아 계시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에 대해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을 것이다. …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섯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그 안에 눈물과 웃음과 함께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위대하고 조용하고 충만한 사랑의 영이 포함될 것이다. 그곳에서 살고 자란 이들이 서로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다.”<sup>1</sup>

봉사하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서로 사랑하는 충실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했다. 그의 지도하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것을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힝클리 회장

은 1995년 연차 대회에서 이 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렇게 선언했다. “어느 나라라도 그 힘의 근원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우리 교회 회원들이 시간이 입증해 준 이러한 가치에 따라 가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sup>3</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가족 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신성한 관계이다.

가족은 신성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신성한 관계입니다. 오직 가족이란 조직을 통해서만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sup>4</sup>

우리는 가족,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중요성과 우리가 모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할 가치를 가르쳐서 그들이 선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저는 여러분이 이미 익숙히 아는 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과 친절, 감사와 존경, 그리고 주님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결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의로움 안에서 성장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가족들을 압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sup>5</sup>

여러분은 가족을 방치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족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sup>6</sup>

### 2

####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특권이 있다.

제일회장단은 부모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의 원리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서, 그 어떠한 곳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데 가정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없습니다.<sup>7</sup>

복음의 훌륭한 가르침에서 나온 가족 생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부모가 된다는 위험천만한 일을 맡을지라도 분명히 성공하게 되리라는 사실에 저는 만족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신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그들의 필요 사항을 공급하는 것이 그의 특권이자 의무

이며, 가정에서 신권의 영을 지니고,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교리와 성약 121:41) 다스리며,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닐 수 있는 예지와 헌신과 사랑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딸인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녀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남편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녀들에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 [가르치고],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교리와 성약 68:25, 28)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부모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돌보고, 격려하고, 인도해야 할 주님의 선물로 생각될 것입니다.

이따금 실망할 때도 있으며,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기도와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영원히 결속하는 애정과, 언제나 가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충실함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sup>8</sup>

이제 혼자인 부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계속되는 투쟁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적으로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축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는 수천 명의 훌륭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훌륭한 정원회 역원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놀랄 만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과 가정 방문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낸 여러분의 친구이며, 여러분을 돕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힘의 가장 큰 근원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서 일곱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경험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하루밤만이라도 그분께로 가서 다음날의 고된 일상을 맞이할 위안과 힘을 얻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응답이 그녀의 마음속에 계시처럼 떠올랐습니다. “네가 나에게로 올 수는 없으나 내가 네게 가겠노라.”<sup>9</sup>

여러분이 사랑과 큰 희망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들의 생활은 더욱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sup>10</sup>

### 3

#### **가족 기도를 통해 자녀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자란다.**

여러분의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나아갈 세상은 복잡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들은 거센 역경의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힘과 신앙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높은 권능으로부터 오는 더 큰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사조를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들어 올려야 하며, 그들이 가지게 될 유일한 지렛대는 그들 자신의 생활 속에서의 모범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들의 간증과 지식에서 오는 설득력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동안 함께 기도하셔서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sup>11</sup>

저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유익을 줄 관행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진지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

매일 그분과 하는 대화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 여러분의 사랑이 강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에서 생활할 때 오는 안정감을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는 부모를 알고 사랑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도 존중의 정신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하는 친절한 말이 주는 안정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생활하며 서로와 타인들에게 정직하게 생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자랄 것입니다.<sup>12</sup>

## 4

### 부모와 자녀는 가정의 밤을 하며 주님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

제가 다섯 살난 어린 아이였을 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의 밤을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장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우린 그렇게 할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여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한 곡 부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노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각자 되는대로 노래를 하면서 서로를 보며 재밌다고 웃었습니다. 다른 많은 활동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임은 점차로 훌륭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강화시켰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의 밤의 가치를 믿는 확신이 자랐습니다.<sup>13</sup>

저는 매주 갖는 가정의 밤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전 세계의 수많은 가족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매주 한 번 저녁에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서로 가르치며, 함께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께 그분의 자비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을, 조국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폭넓은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sup>14</sup>

여러분이 가정의 밤의 가치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 있다면, 우선 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여러분 주위에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sup>15</sup>

## 5

### 부모는 자녀들이 매우 어릴 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신혼 가정을 꾸릴 때였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조경은 제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심은 나무는 바로 주엽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 데 일조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안고, 저는 그 나무를 계곡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가장 세게 몰아치는 구석에 심었습니다. 저는 땅을 파서 뿌리를 넣고, 그 주위를 흙으로 돋우어 주었으며, 그리고 물을 주고는 이후로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것은 가지도 없이 줄기만 뻗어 오른 나무로, 직경이 겨우 2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아서 쉽게 아무 방향으로나 구부러질 수 있는 휘기 쉬운 나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나무에 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어느 겨울날, 저는 우연히 창문을 통해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나고 또 균형도 맞지 않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나무를 똑바로 세워 보려고 나무를 향해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줄기 직경이 거의 30센티미터나 될 정도로 자라 버렸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장 창고에서 도르래 장치를 가져와 한쪽을 나무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을 단단히 박힌 기둥에 매달아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르래가 조금 움직이더니 나무 줄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저에게 “당신은 저를 똑바르게 할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내게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똑바로 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톱을 가져다가 서쪽으로 뻗었던 가장 무거운 가지를 잘라 냈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서 제가 한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가장 큰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20센티미터 정도의 커다란 흉터가 남았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작은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 최근에 그 나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보기 좋은 나무로 크게 자라 집을 훌륭하게 꾸며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 나무를 곧게 하기 위해 제가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나무를 막 심었을 때, 끈 하나만이라도 묶어서 붙들어 주었더라면 바람을 이겨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끈으로 묶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 가는 방향으로 비뚤어진 채 자랐던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들의 삶이 똑바로 서도록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의 근원은 가정입니다.<sup>16</sup>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이사야 54:13).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화평이 일생을 통하여 그들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sup>17</sup>



“자녀들을 여러분 주위에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 6

### **혹 자녀들이 거역하는 경우 부모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저는 사랑을 듬뿍 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열심히 충실하게 노력했지만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상황과,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께 커다란 연민을 느끼며 에스겔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에스겔 18:20).<sup>18</sup>

가끔, 여러분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 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sup>19</sup>

혹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거역하는] 상태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주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시오.<sup>20</sup>

때로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저의 주엽나무를 기억하십시오.[171~172쪽 참조] 수술과 고통은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 냈고,

나중에 그 나무는 한낮의 더위를 식혀 주는 고마운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sup>21</sup>

## 7

###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기를 때 가족을 강화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망과 어려운 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는 관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청소년 시절까지 이어질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낌없이 쓰는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이 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오는 말을 자제하고 노여움을 자기 훈련을 통해 이겨 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

선행을 하면 빨리 격려하여 주시고 꾸중은 천천히 사려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 데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sup>22</sup>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의 산물입니다. 그 가정이 좋았건, 나빴건, 무관심했건 간에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들의 삶은 대체로 가정 교육의 연장선이자 가정교육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가정에 가혹함과 학대와 자제치 못하는 분노와 불충실이 있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고 눈에 떨 것이며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면에 자제와 용서, 존경과 배려, 친절과 자비,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결과 또한 눈에 떨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긍정적이고 달콤하고 훌륭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비를 베풀고 또 가르치므로 그 자비가 다음 세대의 생활과 행동에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혹한 언행을 금하고, 노함을 자제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존중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sup>23</sup>

옛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잠언 15:1)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언사를 쓰면서 욕을 먹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음성을 높일 때 불꽃이

튀게 마련이고 태산같은 노여움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 하늘의 소리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열왕기상 19:11~12 참조] 마찬가지로 화평한 가정의 소리는 조용한 소리일 것입니다.<sup>24</sup>

물론, 가정 내의 훈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훈육은 교정이 아니라 원망과 비통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자멸을 가져옵니다.<sup>25</sup>

온 세상을 다 보아도 사랑의 훈육 같은 훈육은 없습니다. 그 안에 온갖 마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sup>26</sup>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절대적인 헌신의 정신을 키워 나갑시다. 서로를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영을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sup>27</sup>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모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사랑과 인내, 그리고 격려로써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더불어 자녀들이 보호받으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이 살아가 이 세상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sup>28</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헝클리 회장은 “가족 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신성한 관계입니다.”(1편) 라고 가르쳤다. 이 진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시간과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부모는 왜 “최선을 다해 복음 원리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가?(2편 참조)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의 가르침은 가족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는가? 부모는 자녀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돕는 노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
- 가족 기도의 축복에 관한 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3편 참조) 왜 가족 기도가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가? 정규적으로 가족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가?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어린 시절 가정의 밤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4편 참조) 가정의 밤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온 축복은 무엇인가?
- 힝클리 회장의 주업나무 이야기를 복습한다.(5편 참조)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6편에 있는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은 빛나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부모와 다른 이들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부모가 자녀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랑으로 훈육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7편 참조)

관련 성구

신명기 11:19; 이노스서 1:1~5; 모사이야서 4:14~15; 엘마서 56:45~48; 제3 니파이 18:21;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며, 그것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자신의 간증은 강화되고 더욱 깊어질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9)

주

1. In Sheri L. Dew, <i>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i> (1996), 333.	6. <i>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i> (2005), 387.
2. 엠 러셀 벨라드, “여전히 분명한 메시지”, <i>리아호나</i> , 2013년 9월호, 36쪽.	7. 제일회장단 서한, <i>리아호나</i> , 1999년 12월호, 1쪽.
3.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i>성도의 벗</i> , 1996년 1월호, 101쪽.	8. “진리의 기본 원리들”, 5쪽.
4. “진리의 기본 원리들”, <i>리아호나</i> , 2002년 5월호, 5쪽.	9. “To Single Adults,” <i>Ensign</i> , June 1989, 74.
5.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208.	10.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99쪽.
	11.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i>리아호나</i> , 2001년 3월호, 2쪽.
	12. <i>Cornerstones of a Happy Home</i> (소책자, 1984), 10~11쪽.

13.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402.
14. Conference Report, Oct. 1965, 51.
1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12.
16.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6쪽.
17. 고든 비 힝클리,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1쪽
18.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리아호나*, 2007년 12월호, 6쪽.
19. “Inspirational Thoughts,” *Ensign*, Aug. 1997, 4.
2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54.
21.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8쪽.
22.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60쪽.
23.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79~80쪽.
24. “주님께서 지으신 집이라야”, *성도의 벗*, 1971년 10월호, 29쪽.
25.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5쪽.
26. “우리 가정의 환경”, *성도의 벗*, 1985년 10월호, 6쪽.
27.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105쪽.
28.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60쪽.



니파이의 순종의 모범은 젊은 고든 비 헝클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 순종: 단순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

“복음의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여 생활하십시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열네 살 무렵 고든 비 힝클리는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중요한 결심으로 이어지는 감동을 경험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소년 시절에 몰몬경을 읽던 경험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니파이에 대해서, 그리고 니파이가 그분의 생애에 미쳤던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확신에 찬 짙짙 울리는 목소리로 니파이의 그 위대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니파이전서 3:7)

그때 어린 제 가슴에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 보겠다는 결의가 생겼습니다.<sup>1</sup>

고든 비 힝클리는 그 결심을 늘 마음에 간직했다. 세월이 흐른 후, 그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그의 가르침은 청소년 시절에 그가 들은 이 메시지와 상통했다. 어느 지역 대회에서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많은 [뉴스]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럼 회장의 임기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겁니까?’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이것은 이 교회의 모든 회장과 사도들께 반복적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주제입니다. 단순히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sup>2</sup>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 맞은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좀 더 당당하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행해야 할 원대한 복천년의 사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명의 그 의미와 그 폭과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주저 없이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바른 일을 행할 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로에게 사려 깊고, 선하며,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좀 더 그리스도 다투어야 합니다.”<sup>3</sup>

헝클리 회장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강조했다. 10년 후 그는 연차 대회에서 이 말씀을 거듭했고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은 10년 전에 받은 이 권유를 우리가 얼마만큼 실현했는가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야 합니다.”<sup>4</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그 성약에 따르는 의무는 참으로 크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사업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그 회복의 목적을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회복의 한 가지 이유가 그분의 영원한 성약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약은 ...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 맺어진 것이며 그때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엄숙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를 통해 축복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성약하셨습니다. ... 그때 성립된 관계는 그 성약에 드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삶에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경륜의 시대에 그 영원한 성약은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분의 가족입니다만,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성약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는 각별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 우리는 성약의 백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취할 때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어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각자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행하겠다고 약속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요소가 있으니,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어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그분은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그 성약에 따르는 의무는 참으로 큼니다. 우리는 평범한 백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중 위로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낮고,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고, 더 예의바르며, 더 사려 깊고, 남들에게 손을 더 내밀어야 합니다.<sup>5</sup>

우리는 엄숙한 성약을 맺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어진 백성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sup>6</sup>

## 2

### 주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살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타협과 묵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만 동료들의 압력과 우리를 설득하는 기만적인 메시지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굴복

당하고 나서는 스스로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는 … 자신의 신념을 따를 힘을 길러야 합니다.<sup>7</sup>

복음의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축해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에 따르는 결과는 훌륭하게 드러나고, 한편으로는 흡족한 경험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sup>8</sup>

저의 간곡한 청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내재된 존엄성에 어울리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유산을 끊임 없이 기억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며 모든 인간이 우리의 형제임을 현실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관용적이고, 조금 더 친절하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주의를 쏟는 경향이 줄어들 것입니다.<sup>9</sup>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종교는 일주일 7일 내내 지속되며, 일요일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의 종교는 늘 유효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일년 365일 그렇습니다.<sup>10</sup>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생활에 질서를 세우고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sup>11</sup>

### 3

#### **하나님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기고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도 위대한 말로 엘리야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행하였느니라]”(열왕기상 17:5).

이론을 제기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버무려 그대로 넘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웃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구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떨어진 그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sup>12</sup>

물몬경의 이야기 전체는 그 안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을 때에는 그 땅에서 번성하고 부유하고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

고, 그들이 죄를 짓고 길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는 비참함과 전쟁과 고난에 봉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번영은 전능하신 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sup>13</sup>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25:15.] 그것은 에머 헤일 스미스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서 행복은 오게 됩니다. 후기 성도 … 는 계명을 위반했을 때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관 … 의와 영원한 진리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sup>14</sup>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할 때 옵니다. 고대로부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잠언 6:23)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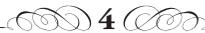
복음은 너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구를 다스리고 행위를 인도하는 자유의 계획입니다. 그 열매는 달콤하고 그 상은 풍성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린도후서 3:17)<sup>15</sup>

우리의 안전은 회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악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도록 합시다. 우리 생활 가운데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고치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sup>16</sup>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sup>17</sup>



#### **교회 지도자들은 길을 가리키고 회원들에게 복음대로 살도록 권유한다.**

“교회는 나에게 이런저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에 대해 지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따라 살며, 그러한 삶에 따르는 축

복을 누리도록 길을 알려 주며 권유할 뿐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 지시하는 대신, 회원임을 선언한 사람들에게 권고하며, 설득하며, 독려하며,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생이었을 당시 저는 아버지께, 총관리 역원들은 특정한 사안을 주장하실 때 그분들이 지닌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현명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회장은 우리를 가르치신단다. 나는 그분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분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 이 교회의 본부 평의회에서 봉사했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간증은, 그동안 교회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논의된 수천 번의 모임에 참석했지만, 그 어떤 모임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참석자들이 바라는 바가 누구에게 해를 입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주장이나 행위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sup>18</sup>

우리들[교회의 본부 평의회 일원들] 가운데 누구도 사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계획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권고나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일점 일획도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 없이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 일들에 관해 피력된 결정 사항들은 심사 숙고와 토론과 기도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가족 및 생활을 돕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외의 다른 어떤 사항도 가르칠 의사가 없다는 것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

에스겔은 우리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에스겔 3:17)

우리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행복하게 되고, 화평과 사랑이 그들의 가정에 깃들며 그들이 여러 가지 의로운 일을 행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받기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사로운 욕심도 없습니다.<sup>19</sup>

하나님께서서는 변함없이 그의 백성에 관한 그의 뜻과 방법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요구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기도와 결단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것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후기 성도의 행복, 후기 성도의 평화, 후기 성도의 발전, 후기 성도의 번영, 후기 성도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의 신권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sup>20</sup>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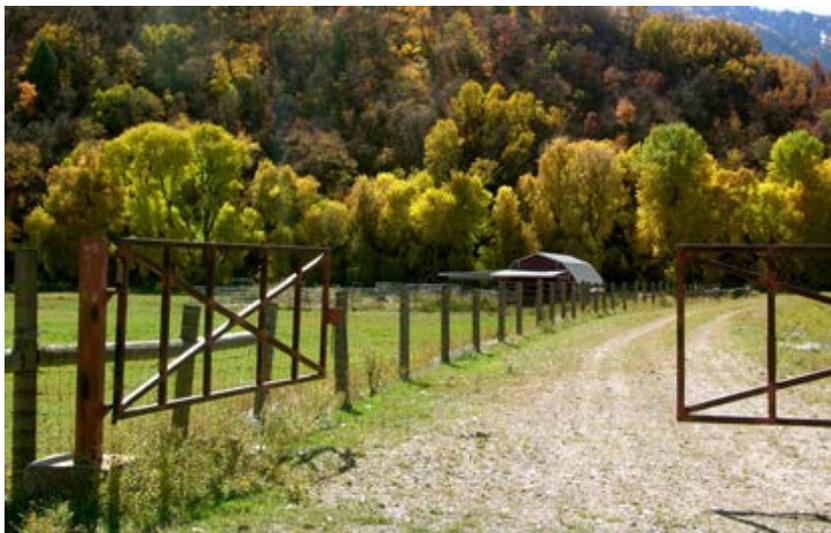
### 사소한 결정들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이 원리를 준수한다면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고, 따라서 인생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원리는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어떻게 결정하라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표준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큰 유익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크나큰 행복과 성취를 맛볼 것입니다.<sup>21</sup>

저는 오래전에 철도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저지 주 뉴어크 사무실에 있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번 몇 번 열차가 막 도착했는데 수하물 차량이 없어요. 300명쯤 되는 승객들이 짐을 잃고 대단히 화가 났어요.”

저는 즉시 회사로 가 수하물 칸의 행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화물 차량이 짐을 제대로 싣고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물 차량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선로를 바꾼 뒤 [결국에] 세인트루이스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 짐은 선로를 이동해 뉴어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철도 기지에 있는 한 부주의한 직원이 작은 손잡이를 약 7.5센티미터 가량 잡아 당겨 움직인 바람에 화물칸은 본체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뉴저지 주 뉴어크에 가 있어야 할 화물 차량이 목적지로부터 2,400킬로미터나 떨어진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기지의 한 부주의한 직원이 스위치를 7.5센티미터 움직인 일로 차량은 잘못된 선로를 탔으며 결국 원래 목적지로부터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계속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한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움직인 것은 별것 아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인다면 결



헝클리 회장은 우리의 결정을 농장 대문의 경첩에 비유했다.

국 간격은 크게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sup>22</sup>

어느 날 저는 농장의 커다란 대문에 다가갔습니다. 빗장을 열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경첩의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문의 반대쪽 끝은 반경이 5미터에 달하는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첩이 움직이는 것만 보아서도 그 작은 움직임의 결과로 오는 확대된 움직임을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소한 생각,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sup>23</sup>

---

## 6

---

###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강화하고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사업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태도에 따라 [교회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검과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 ... 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전진시켜 나아갈 때 미래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sup>24</sup>

저는 매우 불확실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유산 위에 더 많은 것을 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단순히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장엄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복을 여는 열쇠를 발견한 특별한 사람들로 추앙받을 것입니다.<sup>25</sup>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주님의 사업을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고 강건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더 강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성장하고 있는 이 위대한, 전진하는 대업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리한 개인적 확신이 교회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sup>26</sup>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든지, 굳건히 서서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며 전진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왕국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이 길에 머물며 신앙을 수호합시다.<sup>27</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왜 “평범한 백성일 수 없”는가? (1편 참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신념을 따를 힘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다.(2편) 때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신념과 타협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유혹에 대항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 힝클리 회장이 말한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3편 참조) 계명이 자신을 너무 제약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와 안전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을 어떤 경우에 보았는가?

- 교회 지도자들이 권고와 경고를 주는 방식에 대해 힝클리 회장이 설명한 부분을 복습한다.(4편 참조)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 힝클리 회장이 들려준 잃어버린 화물 차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편 참조) 우리 삶에서 작은 결정이나 행동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은 결정이 큰 차이를 가져온 경우는 언제였는가?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소한 편차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불확실함에 대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6편 참조)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단순화 하는가?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지상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신명기 4:39~40; 히브리서 5:8~9; 교리와 성약 64:33~34; 93:26~28; 98:22; 아브라함서 3:24-26; 신앙개조 제3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유형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경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한 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영을 동반하여 봉사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0쪽)

주

- |  |   |
|--|---|
| 1.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3~4쪽.              | 8.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6쪽.  |
| 2.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404. | 9.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 160-61.                                     |
| 3.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0쪽.           | 10.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 404.                                       |
| 4.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4쪽.                       | 11. <i>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i> (2005), 412. |
| 5.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 148-49.    | 12.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4쪽.  |
| 6.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 146.       | 13.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 406-7.                                     |
| 7. “자신의 태버나클을 지음”,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52쪽.              | 14. “만일 내가 충실하면”,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94쪽.  |

15. Conference Report, Apr. 1965, 78.
16.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8쪽.
17.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70쪽.
18. “충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0쪽.
19.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59~60쪽.
20.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성도의 빛*, 1972년 11월호, 13쪽
21. “Keep the Faith,” *Ensign*, Sept. 1985, 3, 6.
22.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8쪽.
23. “Keep the Faith,” 3.
24.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72쪽.
25.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69쪽.
2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38-39.
27.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72쪽.



“이 세상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입니다.”



## 현세적인 자립을 통한 평안과 만족

“우리는 인생의 한 원리로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며 자신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야 한다는 자립심을 가르칩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어린 시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부모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자립의 원리를 배웠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저희는 당시 제 생각으로 꽤나 큰 집에 살았습니다. ... 넓은 잔디밭과 많은 나무들이 있었으며 해야 할 일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 부엌과 식당에는 난로가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나중에 난방로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양의 석탄을 필요로 하였으며 자동으로 석탄을 넣어 주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삽으로 석탄을 퍼 넣어서 밤새도록 탈 수 있도록 잘 다독거리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큰 난방로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만일 방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삽질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아들들이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일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 육천 평의 농장을 사셨고 나중에 그것은 사만 평으로 커졌습니다. 저희는 여름 동안 농장에서 살았고 학교가 시작되어야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큰 과수원을 갖고 있었으며 봄이 돌아올 때마다 가지치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농과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가지치기 설명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2월에 가지를 치는 방법에 따라 9월에 어떤 종류의 과일을 거둘지 거의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훌륭한 진리를 배웠습니다.”<sup>1</sup>

이들 진리는 힝클리 회장의 개인적 토대가 되었고, 그는 종종 복음 생활에 관한 현실적인 교훈을 가르쳤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했고, 후기 성도들에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라고 가르쳤다.

그러한 원리를 가르치는 일에 더하여 헝클리 회장은 성도들이 그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다. 예를 들면, 2001년 4월에 그는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하였으며, 그것이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마련되었다고 말씀했다.<sup>2</sup>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한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귀환 선교사인 교회 회원들에게 단기 용자를 제공하여 그들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고 의미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돈은 다시 기금의 일부가 되어 미래의 참여자들을 돕게 된다. 영구 교육 기금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헝클리 회장의 표현처럼 영구 교육 기금은 “밝은 희망의 빛”을 준다.<sup>3</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축복받는다.

저는 일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화시키고 불투명한 꿈을 역동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는 과정입니다.<sup>4</sup>

어느 정도 놀고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음식과 의복과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번영하기를 바란다면 능숙한 손과 교육받은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함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sup>5</sup>

저는 인생이 엄청난 영웅담의 연속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란 지속적으로 선량함과 품위를 지키며 세상의 칭송 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천재들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일이 대부분 평범한 재능을 지녔으며 비범한 태도로 노력하는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sup>6</sup>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잔디를 깎고, 나무와 덩불을 가지치기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수백 가지의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는 노동이 깨끗하다는 것과 발전과 번영을 얻기 위해 치려야 하는 대가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sup>7</sup>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아이는 노동이 깨끗하다는 것과 발전과 번영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위대한 점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진리에 대한 간증은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냥 두면 약해지고 축 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일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며, 그들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성취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sup>8</sup>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한 이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외바퀴 손수레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두 손으로 잡고 밀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배운다면 일은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축복할 것입니다.<sup>9</sup>

## 2

###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일으키고 자립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

주님께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대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현세에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는 내세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th about Mormonism,” *Out West* magazine, Sept. 1905, 242 참조)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회의 열쇠입니다. …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교리와 성약 81:5) 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들이 자립심을 키우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의 백성들이 가난의 굴레 속에 사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충실한 자가 땅의 훌륭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sup>10</sup>

우리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자원이 고갈되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없으면, 교회가 도움을 줍니다. 교회가 도움을 줄 때는 우선 즉시 필요한 사항을 돌보아 주고 다음에는 회원이 도움받을 필요가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얻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sup>11</sup>

이 프로그램에 수혜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게으름의 저주와 실업 수당의 해약”을 면했습니다. 그들은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지만 식품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일과 수많은 다른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서 오는 기쁨을 간증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폭넓은 파급 효과와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 일을 가능케 하고 선을 이루는 그 실제적 힘을 확장해 준 계시의 영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sup>12</sup>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늘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과 궁핍함과 재난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에 감동되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일하고 격려하려는 사람들도 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영구 교육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후한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 대출금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합당한 젊은 남녀에게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부모와 조상들이 여러 세대 동안 안고 살아온 변함 없는 가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의 영이 이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이 복지 사업은 쌀과 콩, 담요와 텐트, 옷과 의약품, 구직과 더 나은 직장을 위한 교육에 관련된 세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사업은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정신, 즉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사도행전 10:38) 주님의 영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sup>13</sup>

### 3

####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에 맞서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고 현세적으로 준비하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인생의 한 원리로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며 자신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야 한다는 자립심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미리 계획하고 일정분의 식량을 비축하고 은행에 저축하도록 회원들에게 권유합니다. 실업이나 질병 같은 전혀 예상치도 않은 재난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닥치기도 합니다.<sup>14</sup>

이 오래된 세상은 재앙과 대참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믿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대참사나 앞으로 올 대참사들에 관한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

장로들의 증언이 있는 후에 임하게 될 재앙에 관해 교리와 성약 88편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너희 증언 이후에 지진의 증언이 있어 땅 가운데서 신음 소리를 내게 할 것인즉, 사람들이 땅에 넘어질 것이요, 서 있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한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폭풍우 소리와 그 경계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정녕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하리니, 이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8:89~91) …

… 과거에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오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주를 다 짓고 나자 비가 내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교리와 성약에는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야렛 백성과 니파이 백성의 예에서, 불순종에 따르는 형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각 백성은 사악함으로 인해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는 것을 압니다.(마태복음 5:45 참조)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죽더라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의 속죄를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마서 14:8). …

우리 회원들은 재앙이 올 경우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고와 격려를 75년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물, 기본 식품, 의약품 및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줄 의복들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약간의 돈도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sup>15</sup>

우리는 여러 지역에 곡물 저장소와 같은 시설을 갖춘 훌륭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돈과 더불어 식량을 보관해 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

프로그램은 우리 자신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 대여섯 통이 복지 센터에 있는 많은 양보다 낫습니다. …

우리는 아주 검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분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분으로, 그런 다음 석 달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식량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권고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식량 비축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여 점차 알맞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돈을 정규적으로 조금씩 모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놀랄 것입니다.<sup>16</sup>

#### 4

### 우리는 가능한 한 부채를 피하고 필요한 때를 위해 돈을 저축할 때 독립과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자립에 관해서, 부채에 관해서, 검소에 관해서, 거둬 권고를 받았습니 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 저는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과 궁핍한 때를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저축해 두실 것을 권고합니다.<sup>17</sup>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

1938년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 당시,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빛을 지면, 이자는 밤낮으로 매분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며, 그 빛을 피하거나 빛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떨쳐 버릴 수도 없으며, 그것은 간청이나 요구나 명령에 굴복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 중간에 서 있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거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눌러 부서뜨려 버립니다.” (Conference Report, Apr. 1938, 103)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사서, 자비도 중단도 없이 긴 세월 동안 늘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지불금의 액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

교회가 세워진 이후, 주님께서서는 이 부채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마틴 해리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쇄업자와 계약한 빚을 갚으라. 속박에서 벗어나라.”(교리와 성약 19:35)

이에 대해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께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 “만일 인간의 마음과 가족에게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지지해 주고 낙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Gospel Standards, comp. G. Homer Durham [1941], 111)

교회에서는 자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을 때,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고 있을 때, 그는 속박 속에서 독립도, 자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데에도 우리는 모범을 세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를 때를 위하여 교회 수입의 일부를 해마다 저축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를 전혀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운영이나 사업이나 그 사업 조직에서 교회는 돈을 빌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지출을 삭감해서 수입에 맞는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

부채에서 자유로워지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적은 돈이라도 저축해 둘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빚은 피하시고, 빚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세와 관련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빚을 모두 갚았다면, 비록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모진 풍파가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 줄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sup>18</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헝클리 회장은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 없습니다.”(1편) 라고 가르쳤다. 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무엇을 배웠는가? 부모는 어떻게 자녀가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는가?

- 현세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2편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주고 받은 봉사는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힝클리 회장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권고한 것들을 다시 살펴본다.(3편 참조) 어려운 시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았던 경우는 언제였는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고 점차적인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부채와 검소함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복습한다.(4편 참조)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채는 우리에게 현세적으로 및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이 돈을 지혜롭게 쓰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데살로니가전서 4:11~12; 교리와 성약 1:11~13; 78:13~14; 104:13~18; 모세서 5:1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미리 준비한 공과를 모두 다 가르치려는 마음에 훌륭한 토론을 너무 일찍 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원들이 영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돕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며,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고, 계명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64쪽)

### 주

1.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들”,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2쪽.
2.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1쪽.
3. “손을 내밀어 들어 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7쪽.
4.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벗*, 1993년 3월호, 5쪽.
5. “나는 믿습니다”, 5쪽.
6. *One Bright Shining Hope: Messages for Women from Gordon B. Hinckley* (2006), 24.
7.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707.
8.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532.
9.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30쪽.
10. “영구 교육 기금”, 62, 67쪽.
11.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0쪽.
12. “President Harold B. Lee: An Appreciation,” *Ensign*, Nov. 1972, 8; see also Heber J. Grant, in Conference Report, Oct. 1936, 3.
13.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1쪽.

14.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0쪽.
15.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1~62쪽.
16.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8쪽.
17.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4~85쪽.
18. 고든 비 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3~54쪽.



##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젊**은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처음 몇 주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힝클리 장로는 아픈 상태였고,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번번히 거절당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그는 후에 “결정의 날”이라고 부르게 된 경험을 할 축복을 받았으며 이 경험은 그의 나머지 일생 동안의 봉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저는 집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저의 시간과 아버지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이자 스테이크 회장이셨으며, 또 현명하고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짧은 편지를 쓰셨는데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든에게, 네가 최근에 보내 준 편지를 받았단다.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밖에 없구나. 네 자신을 잊고 나아가 일하거라.’ 같은 날 아침에 제 동반자와 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

주님의 이 말씀과 자신을 잊고 나가 일하라는 아버지의 권고는 저의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들고 우리가 살고 있던 와담 가 15번지에 있는 집으로 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저 자신을 잊고 또 잃어버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1933년 7월의 그날은 저의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제 생활에 새로운 빛이, 또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깃들었습니다.<sup>1</sup>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다고 말하려면 그분의 봉사의 생애를 닮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은 고든 비 힝클리의 삶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바쳤다. 힝클리 회장의 장례식에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힝클리 회장이 공헌한 내용을 몇 가지 나열했다. 그것은 지상 전역에 성전을 짓고, 성전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규모 성전을 세우고, 영구 교육 기금을 제정하고, 컨퍼런스 센터를 건축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남기신 개인적인 유산은 이렇게 간략한 목록으로 나타내거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에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항상 기회가 가장 적은 사람들, 일상의 삶이 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헨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 기억하고 있나요?’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sup>2</sup>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일어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결의와 목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축복하고, 간증의 힘과 신앙을 쌓는 데 보내고 싶습니다.”<sup>3</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전 세계에 가난과 빈곤이 넘치며, 모반과 비열함, 불법과 상스러움, 파탄 난 가정과 가족이 난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며 희망 없이 건조한 삶을 살고, 이곳저곳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내어 주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sup>4</sup>

세상이 개선되려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공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사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교리와 성약 88:67)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그를 섬기면 우리에게서 죄의 어두움과 이기심의 어두움과 교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올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좀 더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길을 더 뻗치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sup>5</sup>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다고 말하려면, 그분의 봉사의 생애를 닮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원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 의하여 헤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아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마치 전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 생명을 낭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훌륭하고 신성한 신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너무나 분명히 자주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sup>6</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도전 과제는 훌륭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열정적이면서도 기분 좋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정의하신 그 사업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교리와 성약 81:5)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기거할 곳이 없는 자에게 쉼터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던]”(사도행전 10:38)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sup>7</sup>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 여러분이 인생의 과업을 계획할 때, 여러분의 시간 중 일부를, 보상을 바라지 말고 고난과 궁핍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내어 주겠다는 결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어떠한 것이든 그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뺏는 도움의 손길로 누군가를 괴로움의 진창에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분한 목소리로 그것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누군가에게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놀랍고도 훌륭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하겠습니까?<sup>8</sup>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나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삶은 우리 주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로 인하여 생활에 감동을 받는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되도록 헌납될 것입니다.<sup>9</sup>

---

## 2

---

### **봉사는 자기 연민, 이기심, 절망, 외로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저는 어떤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생들 간에 거의 일반화된 그런 불평을 그곳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주는 압박을 그들이 세상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을 취하는 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거운 부담인 양 불평했으며 기숙사의 형편과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

저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학교의 압력이 너무 크거나 그들의 주거나 음식에 불만스럽다고 느낀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책을 잠시 덮어 두고 교실에서 나와 늙고 외로운 사람들과 병들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삶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자주 다녔던 구두 수선점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까지는 구두가 없는 것을 불평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병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sup>10</sup>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진 짐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 외로움을 치유하는 최상의 치료제는 타인을 위해 일과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들을 도외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돕고, 격려하고자 손길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관심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학업이 저조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만 있어도 어느 정도 희망과 쾌활함을 가질 수 있을 텐데도 비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연명해 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싸매 주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선한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은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큰 축복을,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충족감을 가져다줍니다.<sup>11</sup>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진 짐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숙자들, 배고픈 사람들, 극빈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 약물에 빠진 청소년, 병든 사람들, 집에 틀어 박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에 근심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일입니다. 절망에 가장 좋은 약은 봉사입니다. 권태로움에 가장 좋은 치료제는 더 피곤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sup>12</sup>

선교사들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합니까?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행위 자체가 인류의 구주의 위대한 대리 사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대리 사업을 해 주는 그 사람의 이름 이외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sup>13</sup>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세워 주겠다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긴 고귀한 소망에 대해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기심이라는 폐악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달콤하고도 놀라운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sup>14</sup>

### 3

#### **우리는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저는 아이다호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스테이크 회장 댁에 머문 일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가족은 성구 몇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성구 중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이 무의미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더 심오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뒤이어 이와 같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한복음 12:25)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누가복음 17:33) 바꾸어 말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

는 자는 쇠퇴하여 죽을 것이나 남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자들은 성장하여 이생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인크 대회가 열렸던 그날 아침에 저와 함께 지냈던 스테이크 회장은 13년간의 충실한 봉사 끝에 그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큰 사랑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산이나 세상에서의 그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심없이 베푼 큰 봉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지 않고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차로 달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남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사적인 일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결국 그는 살게 되고 그가 섬겼던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비친 것입니다.<sup>15</sup>

수년 전에 저는 학교 교사로 시골로 간 어떤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반에는 이미 낙제를 한 일이 있고 다시 낙제하게 될 처지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가정은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를 큰 도시로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시력이 나빠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된 젊은 교사는 자비를 털어서 그 학생을 도시로 데려가 눈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문제가 안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 학생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글자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학교 교사의 봉급은 적었지만 그 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돈으로 실패하고 있는 한 학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였습니다.<sup>16</sup>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동기 부여를 해 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정을 쌓고 친분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력과 지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sup>17</sup>

여러분 각자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sup>18</sup>



#### 교회는 비이기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업인 주님의 대

업, 곧 정원회 및 보조 조직, 성전 사업, 복지 사업, 선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축복할 것입니다.<sup>19</sup>

세상에 이 사업만큼 행복이 가득한 일은 없습니다. 그 행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옵니다. 그것은 실재합니다. 그것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합니다.<sup>20</sup>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곳에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모든 부름이 여러분의 능력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조직의 많은 직책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에도 ... 여러분의 비이기적인 헌신과 굴하지 않는 충성과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이 끝날 때까지 많은 직책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부름은 작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교회에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름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름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름이 이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리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 조직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날로 강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여 여러분이 잃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한 봉사가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저장소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굳게 잡기 바랍니다.<sup>21</sup>

행복해지길 바라십니까? 이 대업 안에서 자신을 잊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용서의 영을 키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그렇게 ... 봉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을 좀먹는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이 서고 좀 더 높이 손을 뻗읍시다! ... 당당해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처진 팔을 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잊으십시오.<sup>2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힝클리 회장은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가르쳤다.(1편 참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누군가의 봉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 왜 봉사가 자기 연민, 이기심,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편 참조) 봉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힝클리 회장의 설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손을 뻗어 봉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 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자신을 잇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가? (3편 참조) 3편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 힝클리 회장은 “자신을 잇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업인 주님의 대업을 행하라”(4편)고 권고하셨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왔는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20:25~28; 25:34~40; 요한복음 13:35; 모사이야서 2:16~18; 18:8~9; 교리와 성약 64:33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관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가슴에 와 닿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8쪽) 여러분이 받는 느낌, 설령 그것이 현재 읽는 말씀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바로 그 생각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

### 주

1. “Taking the Gospel to Britain: A Declaration of Vision, Faith, Courage, and Truth,” *Ensign*, July 1987, 7.
2. Henry B. Eyring, “Things Will Work Out,” *In Memoriam: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supplement to the *Ensign*, Mar. 2008), 27; see also page 26.
3. “간증”,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9쪽.
4.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995-1999* (2005), 543.
5.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의 빛*, 1984년 8월호, 5쪽.

6. “자신이라는 선물”, *성도의 벗*, 1986년 12월호, 4쪽; 또한 [lds.org/liahona/1986/12/the-gift-of-self](http://lds.org/liahona/1986/12/the-gift-of-self) 참조.
7. “To Single Adults,” *Ensign*, June 1989, 75.
8.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544-45.
9. “우리를 바쳐 주를 섬기고”, *성도의 벗*, 1987년 8월호, 6쪽.
10.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성도의 벗*, 1983년 2월호, 4~5쪽.
11. “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성도의 벗*, 1997년 11월호, 20, 22쪽.
12. “To Single Adults,” 73-74.
13. “우리를 바쳐 주를 섬기고”, 5쪽.
14. “To a Man Who Has Done What This Church Expects of Each of U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17, 1995), 6,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
1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2쪽.
16.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4쪽.
17.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9쪽.
18.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9쪽.
19. “진리의 기본 원리들”,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8쪽.
20. “Rejoicing in the Privilege to Serve,”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une 21, 2003, 23.
21.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5~6쪽.
2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597.



## 거룩한 신권

“저는 이 교회의 신권을 사랑[합니다.] 신권은 생명력이 넘치며 살아 있습니다. 신권은 이 사업의 핵심이며 힘입니다. 신권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권능과 권세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의 생애에서

1980년에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 아내 마조리는 지역 대회에서 말씀하고 일본 도쿄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3주 동안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집으로 돌아 오기 전에 일본 센다이 선교부를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힝클리 장로는 선교부 내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을 감리했다.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과 모임을 갖기 바로 전에 힝클리 장로는 키요시 사카이 선교부 회장에게 다가갔다. “의아해하는 사카이 회장에게 그분은 성별된 기름이 있는지 묻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몹시 지치는군요. 제게 축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카이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굉장히 두려웠고 주님의 사도를 축복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는 그분께 영어로는 축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힝클리 장로님은 일본어로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역 대표였던 히토시 카시쿠라 장로와 내가 그분을 축복했다. 축복을 하고 나자 힝클리 장로님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아침, 힝클리 장로님은 강건해 보이셨으며, 사카이 회장이 괜찮으 시냐고 묻자 ‘だいじょうぶ(Dai Jobu), 아주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며칠이 지난 후 사카이 회장은 힝클리 장로로부터 다음과 같은 감사 편지를 받았다. ‘... 저를 축복해 주셨던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받은 후 곧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힝클리 자매와 저는 회장님의 선교부 사택에서 머물 수 있었던 특권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sup>1</sup>



“[신권]이 있다면 하나님 왕국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헝클리 회장은 육체적 치유와 같은 기적적이면서도 세상적인 축복부터 성전 의식을 통해 영원히 하나가 되는 축복에 이르는 여러 가지 신권 축복에 대해 자주 간증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그분의 신권에 축복의 권능, 병 고침의 권능, 지상의 제반 문제를 다스리는 권능,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sup>2</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하나님께서서는 신권과 하늘 왕국의 열쇠를 회복하셨다.

신권 권능과 권세는 고대에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소신권이 주어져 세상적인 일과 일부 성스런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권은 베드로에게 주신 다음의 선언과 같이 주님께서 친히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신권의 완전한 회복은 ... 침례 요한의 오심으로, 또한 ...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오심으로, 또한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각기 위대한,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모든 행위와 의식을 회복시키고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신권의 열쇠를 지녔습니다.

신권은 여기 있습니다. ...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 신권의 권능을 압니다. 우리는 병자가 치유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지식과 깨달음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sup>3</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영원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86)

그것은 진실로 전능하신 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세의 위임이며 지상의 모든 다른 권능 및 권세와는 다릅니다. 신권이 고대에 그것을 지녔던 부활체에 의해 인간에게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권세 및 정당성에 관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신권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권세가 없이, 그저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권이 있다면 하나님 왕국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습니

다. 그 자체로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 권세는 현세적이면서도 영원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죽음의 장막 너머에까지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입니다.<sup>4</sup>

---

## 2

### **신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권능이자 권세이다.**

저는 이 교회의 신권을 사랑[합니다.] 신권은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신권은 이 일의 핵심이며 힘입니다. 신권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권능과 권세입니다.<sup>5</sup>

거룩한 신권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세 명의 감리 대제사가 교회를 감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두 명의 사도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데, 그 열두들은 … 칠십인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세 명으로 이루어진 감리 감독단은 회장단의 지시 아래 현세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신권 역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능이 바로 그들이 다스리기 위한 권세입니다. 회장단과 감독단이 있는 스테이크와 와드에서도 그러하며, 정월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보조 조직 역원들은 신권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합니다. 신권이 없다면 교회의 형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참된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교리와 성약 107:3) 권세로 운영됩니다.<sup>6</sup>

---

## 3

### **신권의 축복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이다.**

[신권]은 …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sup>7</sup>

신권에는 병자를 축복하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픈 신권을 지닌 분들에게는 모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내놓으신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회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세가 함께 옵니다. 성찬과 이 상징물들을 취하는 것은 우리 안식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새로이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축복이며 합당한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권세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멜기세덱 신권에는 성신을 부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성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 은사를 받고, 신회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보살피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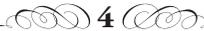
덕을 지니고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고리와 성약 121:46)

신권에는 병자를 축복하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그 신성한 권능을 행사한 적이 없거나 느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 누가 그 효력에 관해 어떠한 의심이라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목격했던 경험 중에서 성스럽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은 예언하며 축복하고, 위로하며, 지지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축복사가 있으며, 그는 그가 지닌 권세에 따라 혈통을 선포하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축복들은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지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닻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신권에는 지상에서 인봉할 권세와, 그 인봉이 하늘에서도 유효하게 만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면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사되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전능하신 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그분에게서 부여받은 신성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그 선물이 얼마나 고귀합니까?<sup>8</sup>



### 하나님의 신성한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 안에 있는 최선의 자신에 진실해야 한다.

궁극이나 민족, 어떤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합당한 남성이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합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신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주님 앞에 합당한가의 여부에만 달려 있습니다. …

그러한 것이 신권의 경이로움입니다. 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교육 또한 요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명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요건은 주님의 인정입니다.<sup>9</sup>

아론 신권 혹은 멜기세덱 신권, 그리고 그에 속한 어떠한 직분이라도 성임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평가해 보며, 우리가 받은 고귀하고도 거룩한 책무에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

나이가 적든 많은 … 성임된 적이 있는 … 남성은 그가 지니고 있는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영원하고도 성스러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sup>10</sup>

권능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 우리가 성임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 신성한 권능을 행사할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리와 성약 121:41~42)

형제 여러분, 그것들은 신권의 행사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입었다 벗었다 하는 외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움으로 행사될 때, 마치 우리 몸의 생체 조직처럼 항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한 부분이 됩니다.<sup>11</sup>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자신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예롭게도 그분의 신성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성한 신권과 전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하도록 권하는 지속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

성인 남성 여러분께 과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저속의 조류로부터 달아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더 나은 자신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최선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신권과 연관된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십시오.<sup>12</sup>

신권 직분을 행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역원과 교사에게는 그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복지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

다. 우리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 한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sup>13</sup>

한 번 신권을 받으면 그것을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성약과 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서도 여전히 자신이 신권의 권능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신권을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도 더럽힙니다. 그들은 성임을 통해 주어진 신성한 은사도 더럽히며, 결국은 범법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권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

…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죄를 멀리하도록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바입니다. 죄와 신성한 권능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역병을 피하듯이 외설물을 피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경우일지라도 성적인 죄는 피하십시오. 부정직과 기만을 멀리하십시오. 모든 교만이나 헛된 야망을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고 강압하는 면은 없는지 … 살펴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임받고 난 후 죄에 빠지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권을 성임받은 바로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와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sup>14</sup>

젊은 나이가 많은 여성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딸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에게 부여하신 것만큼 존중하지 못하는 남성은 신권의 표준에 따라 사는 남성이 아닙니다.<sup>15</sup>

홀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됩시다. 누구든 자신의 집안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택한 동반자에게 존경과 친절과 사랑을 보이지 않는 남성은,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옳지 못한 모범을 보이거나,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권의 권능이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sup>16</sup>

여러분이 택하는 아내는 여러분과 동등할 것입니다. … 아내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며 소유물도 아니고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일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열한 일입니까. 이 교회에서 누구든 아내를 학대하고, 인격을 손상시키고, 모욕하고,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임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고, 주

님의 영은 심히 슬퍼하며,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관련된 사람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

… 혹시 …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혀와 강한 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자녀들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생애에서 재물을 얼마나 모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명예를 이룩했는지에 대해 별로 언급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정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누구든 동반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만 이 영원한 재판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sup>17</sup>

## 5

### **신권 정원회는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신권 정원회는 일요일 오전에 신학을 공부하는 반 이상의 것으로 주님이 계획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효과적인 복음 교육을 통하여 영성을 확립하고 간증을 강화하는 것도 신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회 기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정원회는 모든 회원에 대한 형제애로써 일을 해야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

… 상호부조회가 교회 여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이듯이, 신권 정원회는 교회 남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은 궁핍한 자를 도와야 하는 조직의 근본 목적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 선지자 조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낫선 타인을 구제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 낙담하고 상한 마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고, 미망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2007), 452쪽) 이 말씀이 신권 소유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권 정원회가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회원 각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야말로 놀라운 날,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 회원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준비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권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합니다.”

가 되어 있으며, 그들 역시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된 아들이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당황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언제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적대 세력에 굳건히 견디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sup>18</sup>

## 6

### **남성과 여성은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왕국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한다.**

맞습니다. 남성들은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 동반자입니다. 이 교회에서 남성은 그의 아내보다 앞서서도 뒤쳐져서도 가지 않습니다, 나란히 갑니다. 그들은 위대한 기업의 이 삶에서 동등한 자격을 지닙니다.<sup>19</sup>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는 힘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 왕국의 일원이 되고 신권(을 소유한 분)들과 손을 맞잡고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지도력을 키우고 인생 목표를 알고 자립심을 키우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20</sup>

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교리와 성약 1:20) 할 수 있도록 성신권을 회복시켜 주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훌륭한 교회를 관리하는 그 신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그 권세가 축복과 병자의 병 고침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크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그 신권을 통해 고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로 말씀할 때 그 신권을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온전함과 그 넓이와 범위와 깊이에 대해 간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생사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sup>21</sup>

## 학습 및 교수 제안

### 질문

- 1편에서 힝클리 회장이 신권의 회복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인가?
- 힝클리 회장은 “거룩한 신권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함께 따라[온다]”고 가르쳤다.(2편) 이 진리가 어떻게 스테이크 및 와드에 적용되는가? 정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호부조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권 권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봉사를 강화하는가?
- 3편에서 신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다시 살펴본다. 여러분은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경험해 보았는가?
- 신권 권세와 신권 권능의 차이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편 참조) 신권 소유자가 “[그] 안에 있는 최선의 자신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신권 소유자들은 왜 “오직 [그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가?
- 5편에서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설명 중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조언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와드나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남성과 여성은 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가? (6편 참조)

## 관련 성구

히브리서 5:1~4; 니파이전서 14:12~14; 엘마서 13:1~9; 교리와 성약 84:33~44; 88:133; 112:30~3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62쪽)

## 주

1.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 (1996), 377.
2.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성도의 벗, 1998년 3월호, 6쪽.
3. “신앙의 네 모퉁잇돌”,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6~7쪽.
4. “Priesthood Restoration,” *Ensign*, Oct. 1988, 71.
5. “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68쪽.
6. “Priesthood Restoration,” 72.
7.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475.
8. “Priesthood Restoration,” 72.
9. “스테이크 회장”,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9~60쪽.
10. “News of the Church: Priesthood Restoration Honored,” *Ensign*, July 1983, 76.
11.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8쪽.
12. “충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8~75쪽.
13.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59쪽.
14.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성도의 벗, 1993년 5월호, 22~23쪽.
15. “News of the Church: Priesthood Restoration Honored,” 76.
16.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0쪽.
17.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60쪽.
18.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30~132쪽.
19.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9쪽.
20.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7~68쪽.
21. “나의 간증”,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52쪽.



“[몰몬경]의 진실성과 정당성의 증거는 바로 그 책 안에 있습니다. 그 책의 진리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책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 몰몬경의 권능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몰몬경은 주님의 신성함에 대한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는 어렸을 때 경전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 시절,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몰몬경을 몇 장 읽었고 제 가슴속에는 이 몰몬경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며, 이 확신은 그 이후로 결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sup>1</sup>

선교 사업을 끝내고 교회의 라디오, 홍보 및 선교 문헌 위원회의 직원으로 일할 때, 몰몬경에 대한 그의 지식과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New Witness for Christ*라는 연재 라디오 프로그램 대본을 작성하라는 임무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연재 프로그램은 라디오 청취자들이 몰몬경의 성구들에서 흥미와 생기를 얻게 해 주었다. 그 시기에 힝클리는 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항상 사람들이 몰몬경에 흥미를 느껴서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네. 그러면 영이 그 책의 신성함을 증거할 수 있을 테니 말이네.”<sup>2</sup>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몰몬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5년 8월에 그분은 교회의 회장으로서는 후기 성도들에게 그해 말까지 몰몬경 전체를 읽으라는 도전 과제를 주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 과제를 완수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한 모든 분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에 몰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들의 영은 감동을 받았습니다.”<sup>3</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몰몬경은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구주께서 말씀하셨던 오랜 격언 중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이 확증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sup>4</sup>

성경이 구대륙의 성약인 것처럼 몰몬경은 신대륙의 성약입니다. 그 두 책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sup>5</sup>

몰몬경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몰몬경은 주님의 신성함에 대한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1,50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쓴 그 책의 서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그 책이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sup>6</sup>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의 삶에 굳게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책이 세상에 나온 목적입니다.<sup>7</sup>

### 2

####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는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읽고, 성신의 권능으로 그 기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sup>8</sup>

몰몬경의 기원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몰몬경의 기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에는 그 기원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몰몬경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만져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몬경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논쟁할 수 없습니다. 몰몬경의 기원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은 모두 확실성이 없습니다.<sup>9</sup>

증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에 대한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증거를 혹자에게나 도움이 될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연구나 역사적인 분석으로 확증할 수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몰

문경의 진실성과 정당성의 증거는 바로 그 책 안에 있습니다. 그 책의 진리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책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책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 본 사람들은 그들의 오감을 초월하여 그 책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sup>10</sup>

[모로나이]는 자신의 이름을 뺏으며 니파이의 기록을 완결지는 책에 자신의 마지막 증언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기록했습니다. ...

자신의 기록 마지막 장에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과 함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의 참됨을 알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에 대해 간증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이와 같은 약속이 포함된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로나이가 그밖에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 간증에 포함된 이 약속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설명한 증인으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5)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sup>11</sup>

### 3

#### **몰몬경에 대한 간증은 다른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로 알려는 열의를 갖고 읽는다면, 그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지식으로부터 수많은 다른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몰몬경이 참되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실재하시며, 지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행복을 모색하고 계시다는 엄숙한 사실에 대한 간증이 이 책의 각 페이지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몰몬경이 참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니파이전서 11:13~21 참조)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으로서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

몰몬경이 참되다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이 간증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참되다면 [교회의 회장]은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후기의 사업이 시작되게 한 선지자 조셉이 지녔던 모든 열쇠와 은사와 권세와 권능을 그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이 교회는 참됩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기록이 빛을 보게 한 똑같은 권능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존하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구주께서 팔레스타인에 세우신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주께서 이 거룩한 기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이 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성경도 참됩니다. 성경은 구세계의 성약입니다. 몰몬경은 신세계의 성약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기록입니다. 몰몬경은 요셉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전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의 손 안에서 합쳐졌습니다.(에스겔 37:19 참조) 이 둘은 합쳐져서 세상의 구속주의 임금 되심과 그의 왕국의 실재를 선언합니다.<sup>12</sup>



### 몰몬경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몰몬경]은 오래 전에 있었던 민족의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몰몬경에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에 관한 설명이 현재의 조간신문처럼 잘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보다 더 명확한 영감받은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sup>13</sup>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보면 아름답고 고상한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역된 고대의 기록은 티끌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땅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살면서, 역경을 헤쳐 나가고, 서로 싸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여 변영하기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려 멸망하기도 했던 여러 세대의 백성들의 간증을 기록한 것입니다.<sup>14</sup>

저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길을 따르는 사회의 비참한 결과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다른 기록이 없음을 압니다. 몰몬경 각 페이지에는 한때 이

서반구에 있었던 두 문명국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으며 이 나라는 각기 작은 나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더불어 악도 짝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야심과 음모에 가득 찬 지도자들의 간계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으로 압박하고 허울 좋은 약속으로 달렸으며, 방탕한 호색적인 생활을 묵인하고 권장하기도 하였고, 수백 만 명의 죽음과, 두 시대에 번성했던 두 문명국의 최후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한 무서운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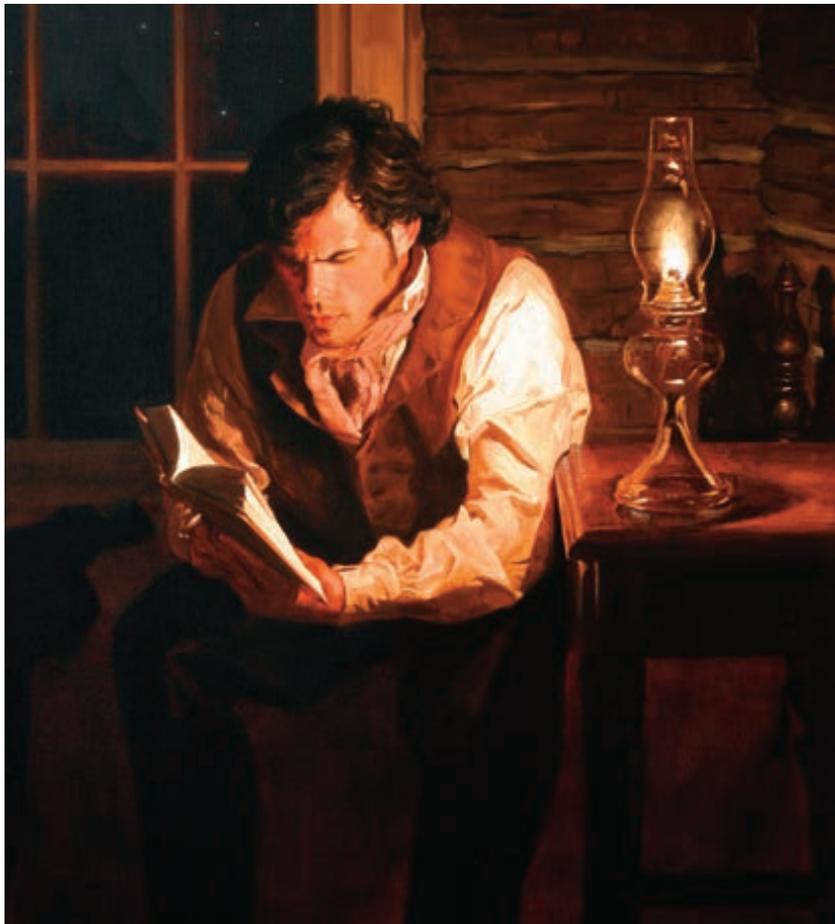
…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번성하고 발전하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의로운 생활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무기력과 죽음에 이르는 쇠퇴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다른 경전은 없습니다. 몰몬경은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증거해 줍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34)<sup>15</sup>

## 5

### 몰몬경에는 우리의 삶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1830년 8월에 팔리 파커 프랫은 오하이오 주로부터 동부 뉴욕 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리 카널과 함께 여행하던 그는 뉴워크에서 보트를 내려 16킬로미터를 걸어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햄린이라는 침례교 집사를 만났습니다. 햄린 씨는 그에게 “어떤 책에 관해서, 어떤 이상한 책에 관해서, 참으로 아주 이상한 책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 그는 이 책의 내용은 원래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에 의해 금이나 은으로 된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뉴욕 주의 팔마이러 근처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시현이나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발견하고 번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음 날 그의 집에서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여 거기서 처음으로 나의 눈으로 ‘몰몬경’을 보았습니다. … 이 책은 나의 미래의 모든 인생 행로에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으뜸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욕적으로 책을 펼쳐서 표제지를 읽었습니다. 그후 나는 몰몬경 금판이 발견되어 번역된 사실에 관한 여러 증인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그 책을 읽었습니다. 먹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자는 것도 짐스러웠습니다. 자는 것보다 그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몬경은 이후에 사도가 된 팔리 피 프렛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깨닫고 알듯이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3rd ed.,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38, pp. 36-37)

그 당시 팔리 피 프렛 형제는 스물세 살이었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므로 얼마 후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극히 유능하고 설득력 있는 교회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

몰몬경에 관한 팔리 피 프렛 형제의 경험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판의 몰몬경이 널리 배부되어 임혁집에 따라 군센 영성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수

년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훌륭한 책의 진리에 대한 간증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 오늘날 몰몬경은 교회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몰몬경의 힘은 진리처럼 영원하고, 전 인류와 같이 온 세상에 미칩니다.<sup>16</sup>

[몰몬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 수백만 명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 [한] 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분은 사업을 하여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여행하던 중 두 명의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약속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듣기로 동의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별다른 관심 없이 선교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은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몰몬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적인 사람이며 결코 울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던 것이 마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지금은 성스런 부름을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sup>17</sup>

몰몬경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분이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비서가 정말 끊임 없이 담배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흡연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비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몰몬경을 한 권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 보세요.”

“좋아요. 읽어 볼게요.”라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쪽이나 읽었는데 어디서도 흡연이라는 말을 볼 수 없던걸요? 담배라는 말도 전혀 없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걸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계속 읽으라고만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와서는 비서가 말했습니다. “200쪽을 더 읽었는데도 흡연이나 니코틴, 담배에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분은 또 계속 읽으라고만 했습니다.

삼사 일이 지난 후 그녀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담배라는 건 나오지도 않고, 흡연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니 어떤 영향력, 어떤 힘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생겼고 그제 세계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마음을 없애 주었어요. 정말 대단해요.”<sup>18</sup>

우리가 몇 년 전에 받은 어떤 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구내 도서관에서 몰몬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으며 몰몬이 그의 타락한 백성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주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었느냐!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느냐! 보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던들, 너희가 엎드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몰몬서 6:17~18) 이 말씀을 읽을 때 몰몬이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책을 한 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몰몬경을 한 권 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는 몰몬경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았으며 재할해서 오늘날 자수성가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정직하게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이 훌륭한 책의 권능은 바로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몰몬경을 몇 번 읽으셨든지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더 많이 임할 것이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것을 굳게 결심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굳은 간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sup>19</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우리는 왜 몰몬경이 필요한가? 몰몬경에서 어떤 성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켰는가? 여러분은 몰몬경과 성경이 “함께” 구주를 증거하고 있다는 어떤 예를 보았는가? (1편 참조)
-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담긴 약속이 왜 몰몬경에 대한 물적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편 참조) 이 약속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가?
- 3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진리들에 주목해 본다. 몰몬경은 어떻게 이 진리들에 대하여 증거하는가?
-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4편) 몰몬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몰몬경의 어떤 성구들이 도움이 되었는가?
- 5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몰몬경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관련 성구

이사야 29:9~18; 니파이전서 13:35~41; 니파이후서 29:6~9; 모로나이서 10:27~29; 교리와 성약 20:8~12; 42:12~13

### 학습을 위한 도움말

“경전을 읽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의 의무라기보다는 매우 즐겁게 행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경전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은 고양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스러운 생각과 말씀으로 인해 지겹다는 느낌이 놀라운 경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고든 비 힝클리, “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98쪽)

## 주

1.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리아호나*, 2007년 3월호, 22쪽.
2.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6), 100.
3.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6쪽.
4. “Inspirational Thoughts,” *Ensign*, July 1998, 2.
5.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2쪽.
6. “우리 신앙의 상징”,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4쪽; *몰몬경* 표제지에 인용.
7. Gordon B. Hinckley,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Apr. 1997, 72.
8. “주님의 선지자를 믿으십시오”,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51쪽.
9. “하늘에서 온 천사 오랜 침묵깨고”,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10쪽.
10. “신앙의 네 모퉁잇돌”,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5~6쪽; *몰몬경* 표제지에 인용.
11. *Heroes from the Book of Mormon* (1995), 198.
12. “몰몬경”, *성도의 벗*, 1988년 10월호, 6~7쪽.
13. “몰몬경”, 6쪽.
14. “신앙의 네 모퉁잇돌”, 5쪽.
15. “몰몬경”, 6쪽.
16. “몰몬경”, 2~3쪽.
17. “몰몬은 ‘더욱 훌륭함’을 의미해야 함”,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62쪽.
18.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402-3.
19. “몰몬경”, 7쪽.



## 값진 배움의 과정을 이어 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하늘이 명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배우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식을 얻는 것을 즐깁니다. 실제로 저는 평생토록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며 믿어 왔습니다. … 제 관점에서 배움은 실용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입니다.”<sup>1</sup>

힝클리 회장과 함께 봉사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일에 적용하는 그의 은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독서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토록 잘 배우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질 때쯤에는 그 사람이 가진 전문 지식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십니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힝클리 회장님의 독특한 점은 자신이 읽은 것 중에서 간직하고 싶은 정보를 뽑아내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통합형 지식인이시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sup>2</sup>

힝클리 회장은 부모님의 본보기에 따라 평생에 걸쳐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는 부친인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가 얼마나 배움에 열정적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 아버지는 제 나이쯤 되셨을 무렵에 완전히 은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적이셨습니다. 꽤 소박하긴 하지만 안락한 시골 지역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분 소유의 과수원을 가꾸면서 과일을 나눠 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집 마당에는 잔디와 관목과 나무가 있었고, 경계를 나누는 높이가 약 60센티미터의 울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아버지는 얼굴로 쏟아지는 여름 태양 빛을 낚은 모자로 가리고 그 벽 위에 앉아 있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가면 저는 그분 곁에 앉아 있곤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격려의 말을 몇 마디 건네시고 당신의 일생에 관하여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

그분은 교육자였고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만 오천 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를 감리하셨습니다. 또 선교부 회장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직책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옹벽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멋진 도서관을 가진 뛰어난 독서가이셨습니다. 탁월한 연사이자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무렵인 94세 가까이 되셨을 때도 읽고 쓰시면서 자신이 얻은 지식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때때로 따뜻한 날이면 그곳에 앉으셔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내용을 몇 시간씩 음미하시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버지께서는 고상하고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담긴 귀중한 보물인 책이 있었습니다. 결코 배움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벽 위에 앉아서 전날 밤에 읽었던 내용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

왜 제가 여러분께 제 아버지와 그분이 앉아 계셨던 벽에 관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거기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믿으며 이생은 영원의 일부로서 그 끝이 올 때까지는 유익하게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sup>3</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 개인적으로 진보하고 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은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생각과 마음과 손을 교육하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반드시 있게 될 일, 국내에 있는 일이나 외국에 있는 일, 열국의 전쟁과 혼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심판과 또한 나라들과 왕국들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 너희가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78~80)<sup>4</sup>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참으로 놀랄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신성을 향한 성장, 발달, 꾸준한 정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의 위대한 선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와 성약 93:36)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9) …

이 경전 구절들에는 참으로 장대한 도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하늘이 명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

주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 게으르기를 그치라.”(교리와 성약 88:118~119, 124)<sup>5</sup>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두뇌와 손을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 어떤 분야를 선택했든, 그것이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술이든, 유능한 외과 의사의 일이든 간에, 자신을 숙련시켜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세상에서 고결함을 지닌 장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훈련으로 여러분은 교회에 영예를 가져올 것이며 여러분 자신 또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육 정도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발전할 기회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학업을 중단하면 계속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sup>6</sup>

그저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더 많은 빛을 얻어서 우리 개개인이 발하는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과 영이 모두 진보하고 성장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sup>7</sup>



“어린이가 일찍 책에 접하게 하십시오.”

## 2

### 부모들은 계획과 자기 수양을 통해 가정에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젊은이의 마음이 뻗어 나가고 강해지는 것을 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텔레비전이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마음을 교화시켜 주거나 강화시켜 주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몇 시간씩 보느라고 엄청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을 개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크고 넓은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방 하나를 도서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탁자 하나, 좋은 등잔 하나, 채광이 잘 되는 곳에 놓인 안락한 의자 서너 개, 그리고 벽에 줄지어 있는 상자에 든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책이 많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두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그 책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은 공부하는 장소로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잡지도 있었는데, 교회 잡지와 두세 가지 좋은 잡지가 있었습니다. 역사책과 문학 서적, 기술 서적, 사전, 백과사전 및 세계 지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

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에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주변 환경은 학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학자들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문학,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온 위대한 사상, 깊이 생각하고 아름답게 글을 쓴 사람들의 언어를 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그런 도서관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잘 세우면 남는 모퉁이가 있어서 우리 주위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소, 앉아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책상이나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교회의 표준 경전, 좋은 책 몇 권, 교회 잡지 및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어린이가 일찍 책에 접하게 하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들며, 사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자기 수양도 필요합니다. 매일 몇 시간 몇 분까지 정리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마음이 온갖 인물들과 표현과 사상을 알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절대로 따분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독서가 즐겨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린이들이 시간을 들이는 다른 많은 활동보다 장기적인 영향에서 볼 때 훨씬 더 유익합니다. ...

부모 여러분, ...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상,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영속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들을 접하게 해 주십시오. ... 가정에서 배움과 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십시오.<sup>8</sup>

### 3

#### **교육은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준다.**

지금 지상에 도래한 이 놀라운 시기는 젊은이인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회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훌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를 거쳐 간 모든 이들의 학문을 모두 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정제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도 누릴 수 있고, 지난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웠던 지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크나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며, 열심히 연구하십시오.<sup>9</sup>

청남 청년 여러분이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 교육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교육은 희생하고 힘써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만일 지식을 넓히고 기술을 익히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회원으로 있는 교회에 영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대한 모든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또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은 아들과 딸에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하십시오.<sup>10</sup>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으고, 장학금, 보조금, 그리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활용하십시오.<sup>11</sup>

저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영예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공, 벽돌공, 배관공, 전기 기술자, 의사, 변호사, 상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도범이 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잡으시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사회에서 인정한 여러분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각자가 준비해야 할 위대한 시기입니다. 희생이 요구된다면 희생하십시오. 그 희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될 것이며, 남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그 보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sup>12</sup>

청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 학교 교육을 모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여 나갈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 세상은 변해 가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밝은 면은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세대의 여성들도 여러분만큼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며, 훌륭한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 그다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도록 교육은 여러분을 보다 잘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sup>13</sup>

결혼, 어머니의 역할, 선하고 역량을 갖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막대한 책임이 교회의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속한 모든 여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sup>14</sup>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모든 영역이 이제 여성에게 열려 있습니다. 결심한다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여성상에, 사회에 봉사하고 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새겨 넣으십시오.<sup>15</sup>

저는 오늘날의 여성에게 과학을 공부하고 습득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4:46 참조) 결혼과 가족의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결혼을 하기 전에는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일과 직장을 제공해 주며, 결혼을 한 뒤에는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게 해 주는 교육 또한 추구하십시오.<sup>16</sup>

[청남] 여러분 앞에는 커다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격렬한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더 큰 기회를 맞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앞에 놓인 큰 기회들의 세계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술을 닦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업 학교나 실업 학교로 가십시오.<sup>17</sup>

저는 젊은 여러분들이 커다란 축복이 될 교육의 기회를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이 지루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우리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낙담하게 될 것이며, 가끔은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큰 축복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sup>18</sup>



#### 영을 단련하는 것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우리 시대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위대한 힘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의 학문을 교육받았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청소년이 교육자들의 제자가 되어 매일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인류 역사의 고금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 지식의 범위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별들, 지구의 지질, 국가의 역사, 민족들의 문화와 언어, 정부 운영, 상법, 원자의 움직임, 신체의 기능, 그리고 정신 세계의 경이로움 등을 포괄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이 있으니 이 세상이 완전한 상태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의 삶에 고통을 가

저오는 논쟁과 골칫거리 및 사회의 병폐가 존재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과학과 수학 이상의 것이며, 역사와 문학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더 크게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세속적인 배움의 본질이 멸망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 교육, 양심 교육, 심성 교육, 영의 교육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성의 정의하기 힘든 측면이 우리의 됴됨이를 결정짓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런던 센트럴 YMCA에 갔었습니다. 그 낡은 건물은 이제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방문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로비에서 마주했던 글귀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7)

무엇에 관한 명철일까요? 우리 자신, 인생의 목적,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 세기 동안 인간의 진정한 진보에 실질적인 힘을 제공해 준, 하늘에서 주어진 위대한 원리들에 대한 명철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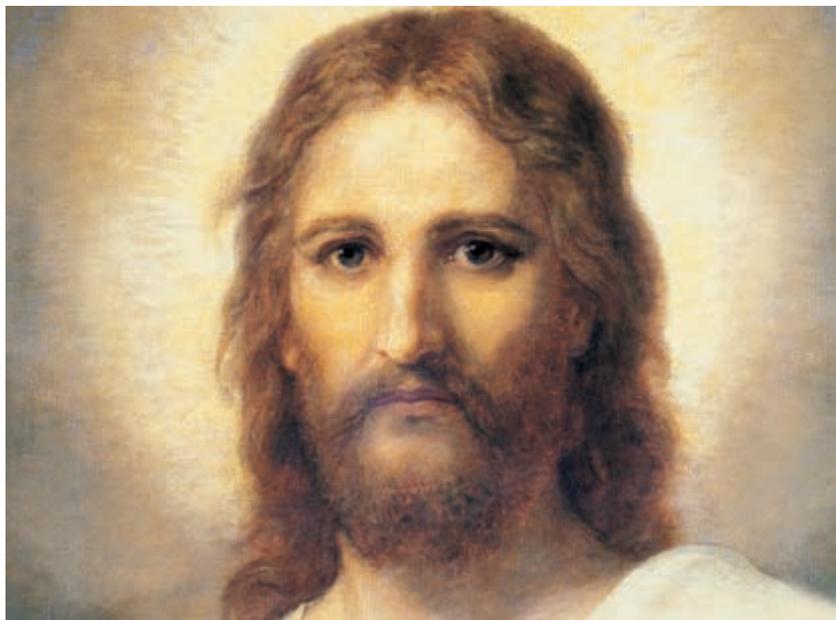
우리는 세속적인 학문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수양도 우리 삶에 더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sup>19</sup>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에 더하여 그분에 관하여 배웁시다. 우리가 얻으려는 모든 학문에 더하여 주님에 대한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여러분이 받는 세상의 훈련을 훌륭하게 보완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과 성품에 다른 방법으로는 올 수 없는 충만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sup>20</sup>

저는 여러분께 영을 단련하는 것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sup>21</sup>

우리의 위대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훈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모두 그 혜택을 받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복음 지식이 증



“우리가 얻으려는 모든 학문에 더하여 주님에 대한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가되고,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어 우정을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 드립니다.<sup>22</sup>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짊어지고 신앙으로 나아가서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것들을 나누도록 합시다. 세상에는 학식과 감화력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진심을 담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세대가 필요합니다.<sup>23</sup>

---

5

---

**우리는 연령에 관계 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모으며,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오랜 탐구와 시행 착오를 거쳐서만 배웠던 것을 짧은 기간에 배울 수 있도록 수 세기 동안에 걸쳐 축적되어 온 지식을 요약하고 여과시켜 온 학문이라는 과정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은 추상적인 지식을 유용하게 만들어 주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게 해 주는 위대한 변환 작용입니다. 교육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그로부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며 삶의 축복과 충족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금을 통틀어 사교력 깊은 작가들의 글과 그들이 쓴 작품의 맛을 더욱 음미하고 있습니다.<sup>24</sup>

우리 중 누구도 ...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끝이 없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읽고,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 저는 발전을 믿습니다. 저는 성장을 믿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30세이든 70세이든 계속해서 지식을 얻으십시오. 부지런히 지식을 쌓다 보면 세월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빨리 흘러가겠지만, 그 세월은 감미롭고 훌륭한 품미로 가득 채워져 여러분의 삶에 맛을 더해 주고, 여러분의 가르침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sup>25</sup>

[유타 주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 영 대학교] 바로 동쪽에 산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많은 이들이] 그 산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상에 오를 수만 있다면, 산 너머에 있는 계곡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은 그 계곡이 그저 작고 약간 움푹 팬 곳이며 그 너머로 올라야 할 더 많은 산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 보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학습 경험이 아주 훌륭했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도전은 더 멋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지식을 함양하며, 배움이라는 위대한 과정을 지속하십시오.<sup>26</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교육을 통해서 “더욱 많은 빛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편 참조) 우리는 학습을 통해 어떻게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학습을 통해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가정에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부모님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을 복습해 본다.(2편 참조) 우리는 자녀들이 배움에 대한 애착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자녀들이 교화하고 선을 행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자료에서 배움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교육이 어떻게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는가? (3편 참조) 교육의 기회는 어떻게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들을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 “영을 단련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4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마음 교육, 심성 교육, 영의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영적인 배움과 세속적인 배움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 왔는가?
- 우리가 평생토록 배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평생 배움에 대한 애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최근에 배운 것 가운데 특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련 성구

잠언 1:5; 베드로후서 1:1~8; 니파이후서 9:28~29; 28:29~30; 교리와 성약 6:7; 90:15; 131:6; 136:32~33

학습을 위한 도움말

헝클리 회장의 가르침에 관한 토론을 권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참여자들에게 이 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추가 제언을 보려면 이 교재의 vi~vii쪽을 참조한다.)

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Standing for Something: Ten Neglected Virtues That Will Heal Our Hearts and Homes</i> (2000), 59.</li> <li>2. Sheri L. Dew, <i>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6), 449-50.</li> <li>3. <i>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995-1999</i> (2005), 406-7.</li> <li>4.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i>리아호나</i>, 2001년 4월호, 34쪽.</li> <li>5. “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i>성도의 벗</i>, 1997년 11월호, 22쪽.</li> <li>6.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35쪽.</li> <li>7. <i>Standing for Something</i>, 67.</li> <li>8. “우리 가정의 환경”, <i>성도의 벗</i>, 1985년 10~11월호, 2~3쪽.</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171-72.</li> <li>10. “영감의 말씀”, <i>리아호나</i>, 1999년 6월호, 5~6쪽.</li> <li>11.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i>리아호나</i>, 2004년 5월호, 113쪽.</li> <li>12.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72-73.</li> <li>13. “참되고 충실하라”, <i>성도의 벗</i>, 1996년 7월호, 92쪽.</li> <li>14. “Youth Is the Season.” <i>New Era</i>, Sept. 1988, 47. [“천사의 수종을 받음”, <i>성도의 벗</i>, 1989년 4월호, 16쪽.]</li> <li>15.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i>리아호나</i>, 2001년 7월호, 115쪽.</li> <li>16. “교회의 여성에게 주는 말씀”, <i>성도의 벗</i>, 1986년 1월호, 99쪽.</li> </ol>
---	---

17.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9~50쪽.
18.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370.
19. “With All Thy Getting Get Understanding,” *Ensign*, Aug. 1988, 2, 5.
20. “With All Thy Getting Get Understanding,” 5.
21. “President Hinckley Visits New Zealand, Australia, and Mexico,” *Ensign*, Aug. 1997, 77.
22. “신앙으로 가능케 된 기적”,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82쪽.
23. “With All Thy Getting Get Understanding,” 5.
24.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벗*, 1993년 3월호, 4쪽.
2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98-99.
2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99.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정결이라는  
주춧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 정결—우리의 삶을 반치는 주춧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신성합니다. 몸은 여러분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7년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했다.

“며칠 전에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키뱅크(Key Bank) 건물이 면밀히 계산된 연쇄적 폭파로 철거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3~4초만에 끝났고 엄청난 먼지 구름이 발생하여 북서쪽 방향으로 퍼져 갔습니다. 내파라고 하는 이 과정은 폭발과는 다릅니다.

그 건물은 거의 3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아마 건축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 어쩌면 2년 이상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몇 초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공들여 인생을 살아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매우 격정적인 상황에 휩싸입니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순결에 대해 타협을 합니다. 내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주변에 자욱한 먼지 구름뿐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찾아온 어느 젊은 남녀에 대한 기억을 더듬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잘생긴 청년과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혹에 굴하고 말았습니다. ...

저에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내파를 겪었고, 수많은 꿈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덕성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세상과 타협하여 헐값에 자신을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은,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신성합니다. 몸은 여러분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고층 건물의 폭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래된 건물이 폭파된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새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수 있으며 그분의 속죄의 권능으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sup>1</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정결한 생활은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다.

이 세상에 덕(정결)처럼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변색되지 않고 빛이 납니다. 그것은 고귀하며 아름답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의 결실입니다

… 주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정결)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교리와 성약 121:45) 이 말씀은 근면과 단련을 통하여 준수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어지는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덕(정결)으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흠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흠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 오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까?<sup>2</sup>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결은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결에서 나오는 양심의 평안은 다른 것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유일한 개인적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8) 이것은 약속을 성취할 권능을 지닌 하나님께서 맺으신 성약입니다.<sup>3</sup>

경험과 하늘에서 오는 신성한 지혜 두 가지 모두가 덕[정결]과 도덕적인 깨끗함을 좌우하게 되며, 이는 인격을 도야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며, 삶에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sup>4</sup>

정결이라는 주춧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sup>5</sup>

## 2

### 세상의 더러움과 부도덕을 초월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도덕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 표준을 어기는 것은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랜 시간을 거쳐 입증된 원리들이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수련은 잊히고, 성적인 부도덕의 탐닉이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표준은 더 높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 산에서의 음성처럼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sup>6</sup>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다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디모데전서 5:22)

참으로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 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생각과 불결한 언어에 이르게 하는 텔레비전 쇼를 멀리하십시오. 악한 생각으로 인도하는 동영상도 멀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해가 될 뿐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글



순결은 “행복한 생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과 그림이 있는 책과 잡지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십시오.<sup>8</sup>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맺는 성관계는 범법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sup>9</sup>

우리는 혼전 순결과 결혼 후의 철저한 정절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이 도덕 계율의 요체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생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족에 이르는 길이며, 마음과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줍니다.<sup>10</sup>

가족과 가정이 도덕과 신의와 상호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깃들 수 없고 생활이 역경의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충실함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따스한 햇빛은 부도덕의 늪에서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sup>11</sup>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환영받고, 양육받으며, 사랑받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충실하게 생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서십시오. 오락과 문학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을 믿게 할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축적된 지혜는 결혼하기 전에는 시간이 입증해 준 미덕의 표준에 따

라 생활하고 결혼해서는 서로에게 완전히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만 더 큰 행복과 더 큰 안전과 더 큰 마음의 평화와 더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sup>12</sup>

우리는 더러움과 부도덕과 문제가 만연한 세상에 삽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한층 높이 서서 세상을 뒤로한 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sup>13</sup>

### 3

#### **외설물은 중독성 있고 파괴적이지만 우리는 이를 초월할 수 있다.**

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 주제에 대해, 내키지는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마의 이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흑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다.” (엘마서 29:9)

… 저는 모든 형태의 외설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것은 악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

… 그것에 말려든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고 그들의 삶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은 거짓된 개념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지속된 노출은 거의 헤어날 수 없는 중독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은 이 저속하고 추하며 부질없는 오락에 소진되고 맙니다.

너무 쉽게 외설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변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광풍이 일며 폭설이 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폭풍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적절한 옷을 입고 피난처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추한 것으로 가득 차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청결, 미덕, 깨끗한 생활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의 피난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이고 숨김없이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외설물이 DVD, 비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잡지 판매대 외에 인터넷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파괴하는

환상으로 이끅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 때때로 질병, 그리고 학대와 관련된 법범 행위로 이어집니다.<sup>14</sup>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내용이 가득한 외설물이 엄청난 파도처럼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약입니다. 그것을 보거나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존심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분별력을 유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사악한 생각의, 더 나아가서는 사악한 행동의 수렁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십시오. 더러운 질병을 피하듯 하십시오.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고결한 생각과 행동을 하십시오.<sup>15</sup>

이 세상에는 추악하고 육욕적이며 외설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그것들에 초연히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탐닉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들어놓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담배처럼 습관이 되며, 거기에 빠지는 자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 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21:45]<sup>16</sup>

#### 4

### 우리는 절제와 노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여러분의 신체를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하 생각은 부정하 행동을 낳습니다.<sup>17</sup>

유혹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너희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를 볼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낼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8:67~68)<sup>18</sup>

예수께서는 우리의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도 자제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

정신의 통제력이 육체적인 욕구보다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시된 진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행동은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우리는 모두 훈련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의 한 부분입니다. ...

우리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도덕적인 범범에 뒤따르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적인 유혹을 물리치기를 당부합니다.<sup>19</sup>

## 5

### 부도덕한 행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용서받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낙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합시다. 더 나은 길로 방향을 바꿉시다.<sup>20</sup>

주변 여건 때문에 자꾸 옆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잡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여러분 안에 내재된 자신의 가장 훌륭한 모습을 끌어내십시오.<sup>21</sup>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면, 즉 부도덕한 행위에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님을 ...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수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과거를 버리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것이며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58:42 참조)

... 교회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들여 놓았던 악을 뒤로 제쳐 놓으십시오. 희망을 새로이 하여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십시오.<sup>2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힝클리 회장은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가르쳤다.(1편) 만약 정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 순결이 왜 “행복한 생활에 이르는 길”인가? 순결은 왜 “마음과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가? (1편과 2편 참조)
- 힝클리 회장은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외설물]에 초연히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3편)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외설물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이 외설물에 대해 초연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외설물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 4편에 있는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 관련 성구

시편 24:3~4; 마태복음5:27~28; 빌립보서 4:6~8; 야곱서 3:2; 교리와 성약 46:31~33; 59:6; 신앙개조 제13조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읽으면서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 단어나 구에 밑줄을 긋고 표시한다. 경전의 여백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구절의 뜻을 분명하게 해 주는 참조 성구를 적는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23쪽)

### 주

1. “True to the Faith”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18, 2007), 2-3, speeches.byu.edu.
2.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4~115쪽.
3. “Words of the Prophet: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New Era*, July 1999, 4.
4. “경건과 도덕”,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49쪽.
5. Conference Report, Oct. 1964, 118.
6.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4쪽.
7.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3~4쪽.
8.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9쪽.
9. “충실한 신앙”, *성도의 빛*, 1996년 9월호, 6쪽.
10.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49쪽.

11. “평화와 자유를 추구함”, *성도의 빛* 1990년 9월호, 5쪽.
12.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9쪽.
13. “Inspirational Thoughts,” *Ensign*, Feb. 2007, 7.
14.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9~62쪽.
15.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1쪽.
16.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성도의 빛*, 1997년 10월호, 14쪽.
17. “깨끗할지이다”,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8쪽.
18.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62쪽.
19. “경건과 도덕”, 48쪽.
20.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62쪽.
21. “참되고 충실하라”,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92쪽.
22.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114쪽.



제일회장단, 1995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중앙);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우).



##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신권 지도력

“주님은 이 사업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 없는 군대도 아닙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교회에서 제가 맨 처음 맡게 된 임무는 집사 정원회 회장인 소년의 보좌가 되어 그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훌륭하신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저의 부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고 소극적인 소년이었기 때문에 집사 정원회 회장 보좌의 직책은 저의 나이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맡은 직책이 저의 나이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게 무척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sup>1</sup>

힝클리 회장은 1961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사도로서 맞은 최초의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세상 앞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이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저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님의 선지자의 저에 대한 신뢰와 사도들이 보여 주신 사랑의 표현에 압도되었습니다. … 저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움을 간구합니다. 신앙과 순종하려는 의지를 간구합니다.”<sup>2</sup>

1995년 4월 1일,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처음으로 그를 선지자요 교회 회장으로 지지한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말씀했다. 지난 14년간 그는 세 명의 교회 회장들의 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반복하여 그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해 간증했으며 후기 성도들에게 그들의 권고를 들을 것을 설득했다. 이제 교회 회장이 되었지만, 그가 집사였을 때나 새로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지지와 권능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더욱 절실히 인식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아침 그 성회에서 여러분이 들어 올린 손은 여러분의 형제이자 종인 저희들을 신앙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하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주님의 방법에는 직분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16)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부르는 권능은 그분의 것입니다.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능도 그분의 것이며, 유지시킬 수 있는 권능도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왜 그분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부름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이 부름을 받으면서 저는 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사업에 저의 온 힘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다시 헌납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러분이 보여 주신 지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sup>3</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주님은 시험과 정련과 연마를 거쳐 교회의 각 회장을 부르신다.

저는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 이후로부터 교회의 여러 회장님들을 모시고 일해 왔습니다. … 이 모든 분들의 보좌들도 알았고 이 회장님들의 재임 기간 중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의 모든 분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몇 가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차고 넘쳤다는 점입니다. 회장이었던 분들은 참된 의미에서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계시의 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또한 기타의 직분에서 여러 해 동안 경험을

쌓은 후에 제일회장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각자를 갈고 닦으시고, 각기 실망과 실패를 알게 하시고, 질병을 경험하게 하시며, 때로는 깊은 슬픔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의 결과는 그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복음 안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사랑하는 아들의 교회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자를 교회의 머리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sup>4</sup>

어떤 사람들은 연로한 분들이 교회의 회장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 그는 젊은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성역을 행해 나가는 그보다 연소한 이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감리 대제사이며 성스러운 신권의 모든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계시를 전달합니다. …

제 마음에 크게 위안이 되는 것은 … 우리가 훌륭하게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은 한 분을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에 대한 충실함과 이 대업에서의 성실성은 봉사의 용광로에서 잘 담금질되었으며, 그분의 신앙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사셨습니다.<sup>5</sup>

… 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계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쁨 부으신 그분께 충실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선지자를 지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는 … 만일 우리에게 선지자가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선지자가 계셨으며, 앞으로도 선지자를 모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선지자가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업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 없는 군대도 아닙니다.<sup>6</sup>



## 교회의 회장이 별세하면 선임 사도가 차기 회장이 된다.

저도 여러 번 참여한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의] 이 권세의 이전은 단순하고 훌륭합니다. 이 방식은 주님이 만사를 처리하시는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

니다. 주님의 절차에 의해 선지자가 한 사람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선정합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은 직업으로서 이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시대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16) 여러 해가 지납니다. 그는 이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훈련과 훈육을 받습니다. 그는 사도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온 세상을 여행합니다. 그 기간은 긴 준비 기간이며, 그 기간에 그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알게 되고, 성도들도 그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과 본질을 시험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원회에 공석이 생기고 새로운 지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한 분이 선임 사도가 됩니다. 그와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성임된 때로부터 신권의 모든 열쇠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행사할 권세는 교회 회장이 지니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돌아가시면 그 권세를 선임 사도가 행사하게 되며,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료들에 의하여 선지자와 회장으로 지명받고 성별받고 성임됩니다.

선거는 없습니다. 선거 운동도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 입증되고 영감에 찬 지도력을 제공하는 성스러운 계획이 조용하고 단순하게 작용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훌륭한 과정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저는 [선지자를 택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sup>7</sup>

[하워드 더블유] 헨터 회장님의 서거로 제일회장단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분의 보좌로 봉사했던 몬슨 형제와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로 돌아갔으며,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감리할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성임받은 모든 사도들이 금식과 기도의 영을 지니고 성전 윗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룩한 찬송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하며 그 신성하고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우리의 성약과 우리의 거룩한 구속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과거 여러 세대에 걸쳐 잘 확립된 선례에 따라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했습니다.

선거 운동이나 경쟁이나 직책에 대한 야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숙하고 평온하며 간결하고 신성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율례에 따라 행했었습니다.<sup>8</sup>

### 3

#### 주님은 회장이 온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회회를 다스릴 원리와 절차를 주셨다.

힝클리 회장은 그가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던 1992년에 다음 말씀을 전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거룩한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인간입니다. 그분들은 필멸의 육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선지자이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한 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은 은사를 지닌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그 음성엔 전 세계에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에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하실 수 없는 연세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활동에 제한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sup>9</sup>

힝클리 회장은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던 1994년에 다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들이 벤슨 회장님의 건강에 대해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벤슨 회장님의 연세는 이제 아흔다섯입니다. … 그분은 연세에 따른 영향과 질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계셔서 그분의 신성한 직분에 따른 중요한 책임들을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다른 회장님들 또한 아프신 적이 있었으며, 그분들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관리를 위해 제정하신 원리와 절차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아프거나 또는 그 직무를 충분히 행하지 못할 때, 교회의 제반 업무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영감과 계시를 받는 권리를 포함하여 교회의 관리와 예언의 은사의 행사에 대해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받아 성임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를 관리하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리를 풀어 가르치고, 교회의 행사들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로 성임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은 각 사람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분 이전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벤슨 회장님께서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1965년. 앉아 있는 사람, 왼쪽부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아 있음), 조셉 필딩 스미스 (정원회 회장), 리그랜드 리차즈 서 있는 사람, 왼쪽부터: 고든 비 헝클리, 델버트 엘 스태플리, 토마스 에스 몬슨, 스펜서 더블유 김볼, 해롤드 비 리, 매리온 지 롭니, 리차드 엘 에번즈,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당시 선임 사도였습니다. 그분의 보좌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분들은 기록한 사도 직분에 따르는 열쇠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성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에서는,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그 무리에 의해서 선택되어 그 직분에 지명 성임되고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22)

회장이 아프거나 또는 그 직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두 보좌가 있어 함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들이 제일회장단의 매일매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하여도, 교리와 성약 102편 10~11절에 나타난 대로 제일회장단의 권세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 제일회장단의 보좌들은 제일회장단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정책과 절차, 프로그램 또는 교리에 관한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회장단

과 십이사도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합니다. 이 두 정원회, 곧 제 일회장단 정원회와 십이사도 정원회가 함께 모여 각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모든 주요한 질문들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회를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요—”(교리와 성약 107:27). …

… 모든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이 담겨 있는 이 교회의 머리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서 이 사업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에 그분의 방법으로 부르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들을 하늘로 불러 해임시키는 것은 그분의 특권이며, 권능이며, 선택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주님의 뜻이 나타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동료 사도들과 일하면서 이 거룩한 사업을 헌납과 사랑, 겸손과 의무 및 충성의 영 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sup>10</sup>

#### 4

### 사도들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들이다.

[사도들은] 거룩한 사도 직분에 성임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별된 후 주로 성역의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 충실히, 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거나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한 자에게 힘을, 좌절한 자에게 격려를, 그리고 친구가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며, 빈곤한 자를 먹여 주며, 병든 자를 축복해 주며, 신념에서가 아니라 확실한 지식으로 그들의

친구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 저는 그분들이 형제애, 헌신, 신앙, 근면, 그리고 위대한 봉사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sup>11</sup>

---

5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는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계시와 온전한 조화를 구한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만장일치가 없이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심의로부터 어떠한 결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들을 토의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배경은 각기 다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에 이르기 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만장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07:27, 30~31 참조] ...

저는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한 동안, 그리고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한 동안에 ...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서 주요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결단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과 생각들이 걸러지고 추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각한 불화나 또는 형제들 간의 개인적인 대립들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한 가지 아름답고 놀랄 만한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지시의 영향과 계시의 권능 아래서 완벽한 조화와 충분한 동의가 있을 때까지 여러 다른 견해들을 종합하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종류의 통치 조직도 알지 못합니다.<sup>12</sup>

---

6

---

**스태이크 회장은 감독들의 고문이요 백성의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영감으로 부름을 받는다.**

스태이크 회장은 계시에 의해 와드의 감독과 교회의 총관리 역원 사이에 위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훈련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감독을 훈련합니다. ...

스태이크 회장은 감독들의 고문 역할을 합니다. 모든 감독은 그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찾아가서 짐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태이크 회장은 또한 주님의 집에 가기에 합당한 자를 판단하는 데 두 번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 마찬가지로 스타이크 회장은 교회를 대표하여 선교사로 나가는 자들의 합당성을 결정하는 두 번째 검토자가 됩니다. 그 또한 후보자를 집견해서 그들의 합당성에 만족할 경우에만 추천서에 서명합니다. 그는 또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을 성별하고, 그들이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그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스타이크의 주요한 선도 역원이라는 것입니다. … 그는 스타이크에서 가르쳐진 교리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도록 하며 그릇된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그의 책임입니다. 만일 어떤 상황에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나 다른 사람에게 의해 이러한 일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의 그릇된 관행을 고집하는 경우 스타이크 회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는 범법자를 선도 평의회에 출석시켜 유예 조치나 회원 자격 정지나 파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가장 번거롭고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스타이크 회장은 두려움이나 감싸는 일 없이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교리와 성약 102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영의 지시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 후 그는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선도 조치를 받은 자들이 정해진 시기에 되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책임에는 이러한 일과 그 이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그의 성도들 앞에 모범적이 되어야 합니다. …

… 저희가 [스태이크 회장들]에 대해 이와 같은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을 찾아가 그들의 조언과 축복을 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이크 회장들은 총관리 역원이 부름받았던 것과 동일한 영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sup>13</sup>

---

## 7

### 감독은 양 떼의 목자이다.

[교회는] 발전할 수 있고 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

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미래에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손을 내밀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가 온 세상에 시온을 건설하고 확대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현명하고 배려하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교회의 모든 회원을 친밀한 목자로서 돌보는 관계가 함께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한 사람도 잊히거나 빠뜨리지거나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비교적 적은 수의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한 사람씩 축복해 주셨던 참된 목자였습니다.<sup>14</sup>

교회의 감독은 ...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을 위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너무나 무거우므로, 저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감독과 지부 회장이 짊어진 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우는 짐으로 단기간에 그들을 몹시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 [모든 감독은]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 부름받았으며 안수에 의해 성별되고 성임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와드에서 회장단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은 대제사로서 그 와드의 감리 대제사입니다. 모두 막중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합니다. 모든 감독은 와드에서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무도 봉사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와드의 감독도 그가 감독으로 일하는 수고에 대해 교회에서 보상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감독의 요건은 그에 대해 디모데에게 서한을 보냈던 바울의 때와 같습니다.[디모데전서 3:2~6 참조] ...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7, 9).

이 말씀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감독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sup>15</sup>

저는 교회 회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먼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는 양 떼의 목자로서 성신권의 권세에 의하여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sup>16</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우리에게 살아 계신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회장을 준비시키고 부르기 위한 주님의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인상 깊었는가? (1편 참조)
- 교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택되는 방식에 관한 헝클리 회장의 설명을 다시 읽어 본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2편 참조) 교회 회장이 “시험을 통해 입증되고 영감에 찬 지도력을 제공하는 성스러운 계획”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 교회 회장이 그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절차는 무엇인가? (3편 참조)
- 후기의 사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4편 참조)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은 이러한 염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은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결정에 도달하는 방식에 관한 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5편 참조) 우리는 그들이 결정에 도달하는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6편과 7편을 살펴볼 때,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의 부름에 관해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에베소서 2:19~20; 4:11~14; 교리와 성약 1:38; 21:1~6; 아브라함서 3:22~23; 신앙개조 제5~6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가 끝날 때뿐만 아니라 영이 속삭일 때는 언제든지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5쪽)

주

1.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57쪽.
2. Conference Report, Oct. 1961, 115~116;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인용.
3.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51쪽.
4. “서로를 강화함”, 성도의 벗, 1985년  
6월호, 4쪽.
5.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6쪽.
6. “주의 선지자를 믿으십시오”,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53쪽.
7. “와서 참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51쪽.
8.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8쪽.
9.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53쪽.
10.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54, 59쪽.
11.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77, 79쪽.
12.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54,  
59쪽.
13. “스테이크 회장”,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60~62쪽.
14.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51~52쪽.
15. “이스라엘의 목자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60쪽.
16.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90~91쪽.



##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유대감

“종교가 무엇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도록 합시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1994년 11월 종교 지도자들과의 회합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다양한 교리적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학적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지닌 악과 문제점들, 대중과 개인들의 삶에 덕과 도덕성이라는 속성이 커질 수 있도록 단합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위대한 책임과 기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경심, 인간관계에서의 정중함과 예의, 그리고 사회의 기본 단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족을 보존하는 것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북돋우며,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우리 시대의 비관론을 낙관론과 신앙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닌 영향력을 발휘하여 분노와 복수심에서 비롯된 논쟁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 우리의 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 그 자체도 힘입니다. 그러나 인종이나 출신 국가, 또는 그 외의 차이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고양하고 축복하는 일에 힘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



힝클리 회장은 타 종교인들과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일”을 함께 하도록 권고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사회에서 증오, 편견, 인종 차별, 분열을 초래하는 모든 말과 행동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에 헐뜯는 말, 인종 차별적 모욕, 증오에 찬 욕설, 악의적인 험담, 그리고 비열하고 악의에 찬 유언비어가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살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sup>1</sup>

이 말씀을 전하고 일 년이 지난 후에 힝클리 회장은 세간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약 30여 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이지만 미국 내에서 주요 언론사의 대표, 편집장, 연출자, 그리고 기자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쾌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누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간 교회와 선교 사업, 인도주의적 사업, 교육적인 추구를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질문에 대답했다. … 그는 각 질문에 주저함이나 어색함 없이 솔직하게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솔직담백함에 약간의 놀라움을 표했다. 그가 유일하게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거룩한 성전 의식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 중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60 Minutes* 진행자인 마이크 월러스 선임 기사는 힝클리 회장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겠습니다.”<sup>2</sup>

힝클리 회장은 후에 집요한 기자로 명성이 자자한 마이크 월러스와 인터뷰하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이것이 수백만의 사람에게 우리의 문화와 메시지를 긍정적인 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과감히 도전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sup>3</sup>

다음 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터뷰가 이뤄졌다.

월러스 씨: “비몰몬을 어떻게 보십니까?”

힝클리 회장: “사랑과 존중심으로 봅니다. 저에게는 비몰몬 친구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월러스 씨: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까?”

힝클리 회장: “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구에게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덕성과 선함을 모두 존중합니다. 그대로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sup>4</sup>

인터뷰를 끝낸 후, 힝클리 회장과 마이크 윌러스는 친구가 되었다. 윌러스 씨는 힝클리 회장을 “따뜻하고 사려 깊고 너그럽고 낙천적인 지도자”이며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sup>5</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들어 올리고 돕기 위해 더 많이 손을 뻗을 수 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의 거주민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여러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sup>6</sup>

어떤 나라에서든 종족 사이의 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가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칩시다.<sup>7</sup>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인류가 형제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친절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복돋워 주고 도우며 지지하기 위하여 좀 더 손길을 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것들은 조금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 그에 적합하게 행하십시오.<sup>8</sup>

### 2

**우리는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중심, 이해심, 그리고 우정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신앙개조 제11조)

우리가 우리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오만하거나 독선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바람에 따라 예배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은 종교 간의 갈등에서 비롯합니다. 저는 제가 천주교 및 개신교를 믿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교회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옹호할 것입니다.<sup>9</sup>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우리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생활하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른 신앙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정중한 예의와 상호 존경을 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리의 우월성을 가진 집단으로 당파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기꺼이 지켜 주어야 합니다.

1843년에 조셉 스미스가 했던 다음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몰몬’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저는 당당히 하늘 앞에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외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논리는 로마 카톨릭교의 권리나 ... 다른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5:498)<sup>10</sup>

우리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대하고 개방적이며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예배 방식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타 종교인들을 관용과 친절함, 그리고 우정과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도록 당부합니다.<sup>11</sup>

우리는 교리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무례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랄한 태도가 유익이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또 고대 선지자들이 직접 주신 열쇠와 권세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이 세상의 구주께서 제정하고 회복하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

우리는 다른 종교들을 존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큰 선행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보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sup>12</sup>

우리는 다른 종파를 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파를 흠집내려 해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파와 인쟁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지녔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리를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덧붙여 드릴 것이 있는지 봅시다.”<sup>13</sup>

### 3

#### **우리는 교리적인 타협 없이도 다른 이들과 선한 대업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관을 위협하는 사회악에 맞서 여러 분야에서 끝없이 싸우고 계시는 다른 종교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바로 우리의 친구요 이웃이며, 여러 대업에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에 기여하여 우리의 힘을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리적인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노력하는 동안 많은 우정 증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sup>14</sup>

우리는 인자함과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심을 보이다가 자기 신앙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지역 사회에서 하는 훌륭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우리 뜻을 굽힐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례하지 않게, 공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격의 문제보다는 원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곳에 속한 모든 시민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

여러분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공적으로 토의할 때에는 항의하면서 내는 요란하고 날카로운 소리보다는 사리에 맞는 이성의 조용한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십시오. 그런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 회원들은 지역 사회, 가족,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sup>15</sup>

우리는 결코 악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조직될 때부터 표방해 온 표준을 우리는 굳건히 지킬 수 있으며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길보다



“친절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홀로 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유덕하고,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지키고 함양할 만한 가치들을 보존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sup>16</sup>

선한 힘을 갖기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합시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악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도록 합시다. ...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입니다.<sup>17</sup>

#### 4

### 다른 사람을 사랑과 존경과 친절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보이는 일이다.

우리가 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말씀하신 명에 따라 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독특하고 훌륭한 대업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만함이나 독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표현했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기록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베드로전서 2:9)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

우리 모두 황금률을 지키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강화하여,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분들을 정중하게 대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모든 악감정의 요소들을 극복합니다. 친절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sup>18</sup>

우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도와 주고, 권고해 주며, 그러한 친구들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어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키워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드윈 마크햄의 시가 생각합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교도라 모반자라 조롱했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기지를 갖고 있었지.  
우리는 원을 그려 그를 받아들였지!<sup>19</sup>

우리는 물론 [우리의 종교]에 대해 자랑하거나 어떤 면에서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가 본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고요하며 자랑치 않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써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흠모합니다.

우리는 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통해 훨씬 더 쉽게 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제심과 자기 수양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어떠한 모욕이나 조롱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sup>20</sup>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정말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세대의 완성이자, 인류가 한 경험 기록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우월한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19:19)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영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우리는 독선을 던져 버리고 옹졸한 이기심을 던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전에 있었던 모든 추수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크나큰 봉사를 성취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sup>21</sup>

다음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컨퍼런스 센터 헌납 기도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당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친절하고 관대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표준과 관습대로 생활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라도,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신앙개조 제11조] 예배할 특권을 허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는 어느 누구라도 손을 붙들어 주고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도록 하옵소서.[고리와 성약 81:5 참조]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으로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하옵소서.<sup>2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1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더 큰 이해심과 존경심을 기를 수 있는가? 성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복습한다. (2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오만함이나 독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큰 우정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대업을 이루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편 참조) 그런 노력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더 크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4편에 있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에서 제자 됨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랑과 존경이 어떻게 악감정을 극복하는지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비결”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9:49~50; 요한복음 13:34~35; 요한1서 4:7~8; 교리와 성약 1:30; 123:12~14; 신앙개조 제13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 지식 및 간증은 강화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9쪽)

주

1.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663-64.	9. <i>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i> (2005), 417.
2. Sheri L. Dew, <i>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i> (1996), 537-38.	10.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i>성도의 빛</i> , 1995년 7월호, 70쪽; 또한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i> (2007), 345쪽 참조.
3.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i>성도의 빛</i> , 1996년 7월호, 83쪽.	11. “Remarks at Pioneer Day Commemoration Concert,” <i>Ensign</i> , Oct. 2001, 70.
4.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i>성도의 빛</i> , 1997년 1월호, 51쪽.	12.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i>성도의 빛</i> , 1998년 7월호, 4쪽.
5. Mike Wallace, in Gordon B. Hinckley, <i>Standing for Something: Ten Neglected Virtues That Will Heal Our Hearts and Homes</i> (2000), viii.	13. <i>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i> , 350.
6.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i>리아호나</i> , 1999년 7월호, 5쪽.	14.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4-5쪽.
7.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i>성도의 빛</i> , 1996년 6월호, 7쪽.	15. <i>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i> (1997), 131.
8. “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Hinckley,” <i>Church News</i> , Oct. 5, 1996, 2.	16.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i>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i> , 2004년 1월 10일, 20쪽.
	17. “우리가 사는 시대”, <i>리아호나</i> , 2002년 1월호, 84쪽.

18. “우리는 주님께 대해 증거합니다”, 5쪽.
19. “청소년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항”,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61쪽; Edwin  
Markham, “Outwitted,” *The Best 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 Hazel  
Felleman (1936), 67에서 인용.
20.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0쪽.
21.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3~84쪽.
22. “이 위대한 새천년의 해” 중 컨퍼런스센터  
현납 기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4쪽.



“선교 사업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회복에 관해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시다.”



## 후기의 기적인 선교 사업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열의뿐 아니라 …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우려는 커다란 소망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는 젊은 시절 충실한 신권 소유자였지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는 이 나라와 세계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의 실업자가 약 35%였으며 비교적 소수의 여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던 때였기에 대부분의 실업자는 남편과 가장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매우 소수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 어떻게든지 진학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sup>1</sup>

고든은 감독님의 “충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1933년에 부름받은 소수의 선교사 525명 중 하나로 영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sup>2</sup> 그는 선교 사업 중에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선교 사업은 그의 신앙에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실제 선교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회고해 보면 저는 영국에 도착하였을 때 필시 이기적인 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님 사업에 대한 더 위대한 관심사를 위하여 저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제쳐두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

그 선교사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그런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행했거나 다른 선교사들이 행한 침례 수에는 결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바라셨던 일을 행했다는 것과, 제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만족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사업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생활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확신과 지식이 제 존재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sup>3</sup>

선교 사업은 핑클리 회장이 일평생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그는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7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sup>4</sup>

핑클리 회장은 자주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자신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가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사십만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이 그 부름에 응했다. 선교사들의 봉사와 회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그 기간에 삼백오십만 명 이상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다.<sup>5</sup>

항상 낙관적이었던 핑클리 회장은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위대한 원리대로 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대업은 당당하고 힘차게 퍼져 나가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꺼려 하며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sup>6</sup>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원대하며 신앙은 강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우리의 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회는 영광스럽습니다.<sup>7</sup>

## 고든 비 핑클리의 가르침

### 1

####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위대한 선교 사업에 동참하여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우리는 진리와 의를 위해 싸우는 대십자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sup>8</sup>

교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선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백성들이 거처온 수많은 고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사업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온 세상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책임감과 새로운 의무감 앞에 분연히 일어서겠다고 마음 깊이 굳게 결심합니다.<sup>9</sup>

후기 성도로서,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도록 합시다. 결코 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경건하다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보다는 그분들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보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크게 오해를 받고 있으며, 그런 오해의 대부분이 우리의 뜻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이웃에 잘 어울리며, 더 우호적이며,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우정과 존경과 사랑과 칭찬으로 대하도록 가르칩시다. 그렇게 할 때, 자기 만족과 오만의 태도를 보였을 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교 사업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회복에 관해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두려움 없이, 그러나 독선적이지 않게 첫번째 시헌에 관하여 말하며, 몰몬경과 신권의 회복에 관하여 간증을 전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같이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기쁨으로 인도할 기회를 주시도록 간구합니다.<sup>10</sup>

성령의 기적으로 감동을 받아 수천 명이 믿고 받아들여 회원이 되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영원히 훌륭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울수록 신앙이 커집니다. 그리고 원리에 원리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sup>11</sup>

## 2

### **우리는 전임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저는 남미에서 최근에 개종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은 복음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고무되어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열성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침례받은 지 불과 일곱 달 만에 그녀는 300명의 친지들을 소개해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60명이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

어왔을 것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저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젊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도 역시 개종자였는데 교회를 알리기 위해 재정적으로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여성은 당시 그 선교사가 교회로 인도했던 4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이 청년은 자신이 개종을 도왔던 43명과, 또 그들 중 한 사람을 통해 개종한 60명,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 개종할 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백배 이상 확대시켰습니다.<sup>12</sup>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그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사업에 친숙한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회원들을 통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소개하는 회원이 있는 한, 즉 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회원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구도자 친구의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는 그 친구가 복음을 배우는 데서 발전을 보이게 되면 매우 행복해합니다.

복음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회원은 이 선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지원해 줍니다. 그는 이 사업의 거룩함에 대해 진지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는 근처에 선교사들이 없을 때 질문에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크고도 종종 힘들 수 있는 변화를 겪고 있는 개종자의 친구가 됩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8)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과정은 결코 선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새로운 구도자들을 소개해 주는 원천이 될 때 선교사들은 가장 확실한 성공을 거둡니다. …

모든 회원들의 가슴에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줍시다. 회원들이 노력하게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시다. …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혼자서 선교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혼자서 해야 한다면, 매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것이며, 추수는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회원인 우리가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에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인식도를 키워 나갑시다. 이 과정에서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전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우리 자신의 선한 생활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생활은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교회의 누구나 더욱 큰 열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사업이라는] 주제를 성찬식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과 청녀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초등회 어린이들조차도 도울 방법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초등회에 초대받은 자녀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와드와 스테이크, 지방부와 지부에 속해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열의뿐 아니라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우려는 커다란 소망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4:4) 주님은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sup>13</sup>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 저는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사실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sup>14</sup>

### 3

#### **전임 선교 사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합당성과 자질의 표준을 높여야만 합니다.<sup>15</sup>

오늘날 세상은 순수한 간증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세상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것을 가르칠 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일찍부터 자녀를 [선교 사업을 위해] 훈련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 기도가 있고, 가정의 밤이 있고, 경전 읽기가 행해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에서 활동적이며 교회와 복음에 관하여 열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는 열의로 가득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에는 선교 사업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녀는 어릴 때 저축 통장을 만듭니다. 소년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며 성장합니다. 선교 사업은 교육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인생의 계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sup>16</sup>

선교 사업은 필수적인 신권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남성들은 그 큰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sup>17</sup>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 사업으로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업이 쉽고 편안할 것이라는 약속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약속도 드릴 수 없고, 가끔씩 실질적인 참담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기에도 이를 수 없는 큰 성장을 선교 사업 기간 동안에 이룰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롭고 훌륭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매기며, 주님과 보다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고, 진정으로 훌륭한 기도를 하게 되며, 여러

분이 행하는 일이 모두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sup>18</sup>

[선교 사업을 할] 젊은 여성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못 가는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청년들은 청년들과 같은 정도의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부모님 및 감독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크게 존중받을 것이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될 것이며, 주님과 교회에 여러분의 노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sup>19</sup>

젊은 장로와 자매들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 임지에서는 부부 선교사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장년 부부 선교사들이 선교부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장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선교부 회장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책임을 받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주님 사업의 엄청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sup>20</sup>

전 세계에서 은퇴 후 교회를 위해 역량을 발휘하며 선교사로서 의미 있게 봉사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곳으로 가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합니다. 우정을 쌓고, 기술을 나누며, 온전한 비이기심을 품고 봉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로 와서 가르치고 선을 행했던 남성과 여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들여 봉사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헌신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들이 들인 노력의 결과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sup>21</sup>

#### 4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주님의 영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서로 피부색이 약간 다르고, 눈 모양이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든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세상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것을 가르칠 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추울 때는 따뜻함을 구하고, 같은 종류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슬픔을 겪고, 기쁨을 압니다. …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문화에서의 차이점이 복음을 나누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보통 정중한 예의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받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주님의 영의 도움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2)는 말씀을 통해 그 과정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에 있어서 우리들 각자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은 주님의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와 가르침 받는 사람과의 표면적인 차이점은 마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이 됩니다.(니파이후서 30:6 참조) 그리고 보기에도 놀라운 따뜻한 관계와 이해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글자 그대로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sup>22</sup>

## 5

###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기이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이 후기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사업은 … 겸손한 남녀노소에 의해 이룩될 것입니다.<sup>23</sup>

그 사업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우리의 책임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요 축복 또한 하늘에서 약속된 것이므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는 영감에 찬 가르침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하도록 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마침내는 온 세계에 가득하여질 것입니다.(다니엘 2장 참조) 저는 이 진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영감을 구한다면, 우리의 상황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축복이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sup>24</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우리는 왜 때때로 복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편 참조) 여러분이 본 선교 사업의 기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선교사들은 왜 “회원들이 새로운 구도자들을 소개해 줄 때 가장 확실한 성공을 거두는가?” (2편 참조) 회원들이 전임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전임 선교 사업은 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가? (3편 참조) 가족들은 어떻게 장년 부부가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4편을 다시 살펴본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복음을 나누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으로 차이점을 극복하는지를 본 적이 있는가?
- 헝클리 회장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음을 나누려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5편)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과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이사야 52:7; 마태복음 28:19~23; 엘마서 26:1~5; 교리와 성약 1:20~23; 4편; 1:15~16; 38:40~41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하거나,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질문을 한 후나 영적인 경험을 나눈 후, 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잠시 멈추고 기다릴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7쪽)

### 주

1. “전도의 문제”,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3쪽.
2.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6), 58.
3. “전도의 문제”, 43~44쪽.
4.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5쪽 참조.
5. “저는 깨끗합니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0쪽 참조.
6.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8쪽.
7. “개회 말씀”, 7쪽.
8. “참된 신앙”,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68쪽.
9.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4쪽.
10. “새로운 시작”,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6쪽.
11. “기적을 낳는 신앙”,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3쪽.
12.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의 벗*, 1996년 5월호, 6쪽.
13. “양을 찾고 먹이라”, 119~121, 124쪽.
14.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374.

15.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7쪽
16.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2~4쪽.
17.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2쪽.
18.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2쪽.
19.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52쪽.
20. “There Must Be Messengers,” *Ensign*, Oct. 1987, 4.
21.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2000-2004* (2005), 517-18.
22.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88년 6월호, 6쪽.
23.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쪽.
24.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쪽.



“주님께서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 사랑으로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에게 다가감

“우리는 끊임없이 ... 개종자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진지하고 따뜻하며 훌륭한 방법으로 친목을 도모해야  
하며, ... 저활동이 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노력했던 여러 사례를 나누었으며, 그중 한 일화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자신의 실패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영국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동반자와 함께 한 젊은이를 가르쳐 침례를 주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학구적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 청년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개종자에서 회원으로 가는 큰 변화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해임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해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지부에서 작은 책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봉사하던 조직의 회장은 좋게 표현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른 저의 친구를 다소 따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 상처를 입고 상심하여 그 전세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돌아가지 않겠어.’

그는 점차 저활동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 영국에 [다시] 갔을 때, 저는 그를 찾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 저는 집으로 돌아왔으며 오랫동안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복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저는 다시 그의 소재를 수소문했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한 날 그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철 역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지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제가 서로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결코 다시 그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늙어 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 스위스로 이사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스위스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기 위해 가던 길을 바꿨습니다. 그 친구 부부와 저의 부부 네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멋진 시간을 가졌으나, 그의 신앙의 불꽃은 오래전에 꺼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으나, 불을 지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에게 책과 잡지,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반 및 다른 물건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전에 숨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소식을 편지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그분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 지쳤을 때 제가 그곳에 있어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면,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파하였던 상처를 제가 감싸 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 되지만, 한편으로 제가 실패하였기에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개종자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개종자 모두는 소중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개종자 모두를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sup>1</sup>

힝클리 회장이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에게 관심을 지니게 된 것은, 복음이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결과였다. 한 신문 기자

가 한번은 헝클리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현재 교회의 사업을 관장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겪은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은 이 복음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줍니다. 또 그들이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관점을 줍니다. 사물에 대한 시각을 고결하고 거룩하게 해 줍니다.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sup>2</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우리는 개인을 돌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는 개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개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비유에서도 개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회원 수가 많기는 하지만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가 육백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혹은 천이백만 명이든, 아니면 오천만 명이든, 개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sup>3</sup>

우리는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염려는 항상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 등 각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큰 책임은 모든 사람이 “기억[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모로나이서 6:4) 주님의 사업과 방법에서 성장과 발표와 훈련의 기회를 갖고 인생의 필요 사항들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궁핍한 자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며, 각 회원이 격려받고 훈련받으며, 불멸과 영생의 길로 나갈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각 개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한 것을 숫자로 표현하지만 모든 노력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sup>4</sup>

교회가 긍정적이고도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우리에게는 고무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신앙이 차갑게 식어 버린 개종자가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저활동이 되는 회원이 있다면 관심을 보여야 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혼아훙 마리의 양을 남겨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그것을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의 주제로 삼으실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누가복음 15:1~7 참조] 우리는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역원들과 회원들이 개종자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진지하고 따뜻하며 훌륭한 방법으로 친목을 도모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저활동이 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sup>5</sup>

## 2

### 모든 개종자는 소중하며, 위대하고도 중대한 책임 대상이다.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교회에 가입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에게서 침례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침례를 받기에 충분한 지식과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가입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게 아끼던 신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의 변화와 취향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과 심지어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종자의 삶에서 이 어려운 기간에는 키워 주고 강화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개종자가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선교사들의 오랜 노력과 그들이 봉사를 위해 사용한 경비, 익숙한 환경을 떠나며 마주하게 된 모든 역경들 때문이라도 이 귀중한 영혼을 환영하고 다시 확신을 주고 그들이 약할 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sup>6</sup>

선교 사업의 열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이 개종자들은 고귀합니다. ... 모든 개종자는 위대하고도 중대한 책임 대상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

저는 언젠가 매우 재미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1년 전에 교회에 가입한 한 자매님이 보내신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또 가장 보람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원으로서 매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모든 회원들께 권고합니다. 교회에 오는 개종자들에게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새로운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방법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신다면, 어떤 것이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외로운 일일 수도, 정말 낙담스러운 일일 수도,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자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도자인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 자체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세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로 여행하는 데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여행이 흥분되고, 우리의 실수 자체도 즐겁지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실망과 분노의 단계에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에 왔던 세상, 우리의 역할을 알았던 세상, 우리가 기여했던 세상,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만 받고 회원들의 보살핌과 우정 증진을 받지 못한 채, 두세 달 후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 침례받은 회원들이] 개종을 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돕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마음속으로 성신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과,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바로 그분들이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몰몬경이 참되며, 신권이 그 모든 은사와 축복과 함께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sup>8</sup>

### 3

#### **모든 개종자에게는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하다.**

개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개종자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sup>9</sup>

#### 우정

[개종자들]은 자신이 할 일을 찾으면 열정을 갖고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즉시 그들의 열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 개종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지도해 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들께 권고합니다. 교회에 오는 개종자들에게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시오.<sup>10</sup>

우리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방법과 문화에 익숙해지는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 따뜻한 미소, 친절한 악수, 격려의 말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냅니다.<sup>11</sup>

그들에게 다가갑시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그들을 격려해 줍시다! 그들의 신앙과 주님의 사업에 관한 지식을 더해 줍시다.<sup>12</sup>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아 주고 친구가 되어 주며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준다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개종자들이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 있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돕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sup>13</sup>

### 책임

교회는 회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준은 높습니다. 교회에는 확고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훌륭하게 봉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무엇인가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봉사를 하는 동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능력과 이해와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들을 더 잘하게 됩니다.<sup>14</sup>

[새로운 회원들]에게 무언가 할 일을 줍시다. 그들이 신앙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신앙과 간증은 팔에 붙은 근육과 같습니다. 제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대로 보살피면, 근육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 제가 팔에 붕대를 감고 그대로 놓아 둔다면, 근육은 약해지고 무력해질 것입니다. 간증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그들이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부름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부름이 왔을 때 제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압도당하는 듯했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압도당하는 듯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고, 제가 하는 봉사를 그분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열두 살이었을 때 집사 정원회 회장의 보좌가 된 것이 이 교회에서 받은 첫 번째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저 또한 노력했고, 그 이후 다른 책임들을 받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드리고, 기꺼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sup>15</sup>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개종자는 즉시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개종자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sup>16</sup>



헝클리 회장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물론 새로운 개종자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개종자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을 통해 오는 성장입니다.<sup>17</sup>

###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함

저는 이 개종자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의 실재하심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으며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믿습니다.

모로나이는 침례받은 후의 개종자들에 관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모로나이사 6:4)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종자들은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아, 기억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바른 길에 있도록 지켜지며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종자들은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회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그들을 도와주도록 합시다.<sup>18</sup>

[모든 새로운 개종자]가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청년, 주일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고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개종자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sup>19</sup>

#### 4

### 다시 돌아와 교회에서 활동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 기록상으로는 교회 회원이나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마음은 간절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감히 염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

영적인 상속을 받아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 생활의 헛됨을 발견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올 길은 열려 있습니다. …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어 한걸음 되돌아온다면, 수많은 친구들이 손을 벌리며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각없이 구는 어떤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을 교회 전체의 행위로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 알고 지내던 곳에서부터 전혀 낯선 곳으로 이사하여 와서 교회에 대하여 별로 배운 것이 없이 지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다니면서는 양립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다른 무리나 습관에 빠져들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면에서 교회의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약간은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이유에 집착할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돌려 버리십시오. …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sup>20</sup>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하며 여러분 또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돌아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사람도 있을 것이며, 비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sup>21</sup>

---

5

---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는 후기 성도들은 고향에  
다시 돌아온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느 일요일 저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과 사진이 지방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스테이크 회장과 저는 스테이크 본부 건물로 들어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제게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모임을 감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스테이크 회장에게 모임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인 그는 겸연쩍은 듯 주저하는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와 같이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으나, 여러 해 전에 영국에서 함께 보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열심이었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건장한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그 후에 지내 온 오랫동안의 공허했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악몽을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허비해 버린 세월에 대한 말을 끝내자, 우리는 그가 교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힘들고 어색한 일이라는 하겠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는 돌아왔네, 돌아왔어. 고향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 참으로 좋구먼”이라고 썼습니다.

이 친구처럼 돌아오고는 싶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 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해 드리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오면 반드시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sup>2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이지만 왜 “우리의 관심과 염려는 항상 개개인에게 있어야” 하는가? (1편 참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인 개인적인 관심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적이 있는가? 각 개인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핑클리 회장이 2편에서 나눈 편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가? 신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해 본다.
- 왜 모든 새로운 개종자에게는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한가? (3편 참조) 우리가 새로운 개종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새로운 개종자가 교회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개종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회원들이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4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가? 언제 교회 활동으로 돌아올 때 동반되는 기쁨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는가?
- 핑클리 회장이 5편에서 나눈 일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았던 누군가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손을 뻗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 관련 성구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0:1~16, 26~28; 13:34~35; 모사이야서 18:8~10; 힐라맨서 6:3; 제3니파이 18:32; 모로나이서 6:4~6; 교리와 성약 38:24

### 학습을 위한 도움말

“경전 학습을 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한밤의 휴식 [후에] … 아침 시간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하루의 일을 끝내고 걱정거리를 옆으로 치워 놓은 한 밤의 조용한 시간에 읽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 하지만 하루 중 경전을 읽을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읽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하워드 더블유 헌터, “경전 읽기”,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94~95쪽)

## 주

1.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48쪽.
2. “개종자와 청남”, 48쪽.
3. “영적인 명상”,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5쪽.
4. “이 사업은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51~52쪽.
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537-38.
6.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5쪽.
7.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쪽.
8. “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Hinckley,” *Church News*, Apr. 5, 1997, 2; 또한 “영적인 명상”, 3쪽 참조.
9. “개종자와 청남”, 47쪽.
10.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1쪽.
11. “영적인 명상”, 4쪽.
12. “Latter-day Counsel: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July 1999, 73.
13.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4쪽.
14. “영적인 명상”, 3~4쪽.
1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538.
16. “Inspirational Thoughts,” *Ensign*, July 1998, 4.
17. “양을 찾고 먹이라”, 122쪽.
18. “개종자와 청남”, 48쪽.
19. “양을 찾고 먹이라”, 123쪽.
20.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5~96쪽.
21.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의 빛*, 1994년 8월호, 7쪽.
22.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96~97쪽.

## 거룩한 성전의 축복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1997년 10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교회의 어떤 회원도 주님의 집에서 성전 축복을 받지 전까지는 이 교회가 주게 될 최상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건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 그 안에서 받는 축복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반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sup>1</sup> 그는 계획 중이거나 건축 중인 여러 성전의 이름을 거명한 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한 가지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교회에는 너무 오지인 데다 회원 수도 적고 가까운 시일 내에 급세 성장할 것 같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 사는 분들은 영원히 성전 의식의 축복을 받지 못해야 하겠습니까? 몇 개월 전 그런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확실하고 명료한 대답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지역에 소규모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 집회소 표준보다 훨씬 높은 성전 표준에 따라 건축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인봉 및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다른 모든 의식들을 이 성전 안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sup>2</sup>

이 계획은 20년도 훨씬 더 전에 힝클리 회장이 교회 성전 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시작된 영감이었다. 수많은 후기 성도들이 성전의 축복을 쉽게 받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했던 그는 일지에 이와 같이 적었다. “교회는 [당시 건축 중이었던] 워싱턴 성전을 짓는 비용으로 [많은 소규모]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고도 성전에 갈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 후아레스 성전

1997년에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져 이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핑클리 회장은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 후아레스 성전 헌납 기도를 드리면서 그 계시의 일부를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곳 멕시코 북부에서 당신께서는 소규모 성전을 지을 발상과 계획을 밝혀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은 충족시키면서 그 크기는 이 지역 당신의 포도원의 교회 회원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참되고 충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한 소망과 기도를 통해 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sup>4</sup>

소규모 성전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6개월이 지난 후, 핑클리 회장은 또 다른 중대한 발표를 했다.

“저희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멀리 계시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물품을 아주 조금 가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후기의 사업에 관하여 위대한, 불타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방문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완행 버스와 낡은 배를 타고 한번에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돈을 저축하고, 또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그 돈을 쓰지 않고 지냅니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성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작은 성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약 30개의 작은 성전을 곧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에 비견할 만한 사업이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성전 수는 47개가 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성전 51개에 더해질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때로부터’(교리와 성약 20:1) 2,000년이 되는 금세기 말까지 딱 100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 2개를 더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sup>5</sup>

2000년 10월 1일, 핑클리 회장은 100번째로 운영 중인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을 헌납했다. 그해가 지나기 전에, 핑클리 회장은 브라질에서 두 개의 성전을 헌납했다. 2008년 1월 27일 그가 작고했을 때, 교회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24개였으며 13개의 새로운 성전 건축이 발표된 상태였다. 핑클리 회장은 124개의 운영 중인 성전 대부분의 계획 및 건축에 참여했으며, 그중 85개는 직접 헌납했다.

힝클리 회장은 여러 개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후기 성도들에게 그 성스러운 건축물의 목적이 개인과 가족을 하나씩 축복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성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 구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시설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해 주신 거룩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고 헌납되었습니다.”<sup>6</sup>

힝클리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다. “누구도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복음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전을 지어 성전을 사람들에게 가깝게 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sup>7</sup>

##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 1

#### 성전은 우리 간증의 표현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본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의해 세워진 모든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전 세대에 걸쳐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유대의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후기 성도들의 간증을 우뚝서서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sup>8</sup>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곳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이 가지는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진능자께서 제정하신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영원함에 관한 것입니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 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빛의 장소, 평화의 장소, 사랑의 장소입니다.<sup>9</sup>

모든 성전은 사실상,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곧 우리가 거치는 이 필멸의 인생이라는 기간은 계속되는 발전의 일부이며 이곳에 생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도 생이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기념비입니다. 그것

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일어났으며 성전은 제  
가 말씀드렸듯이, 이생과 다음 세상을 이어 주는 다리가 됩니다. 성전은 불멸  
의 것들을 다룹니다.<sup>10</sup>

이 독특하고 훌륭한 건물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  
배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신학사상 가장 심오한 표현이 됩니  
다.<sup>11</sup>

성스러운 것들은 성스럽게 여겨져야 합니다. … 주님의 집 문을 나서면 거룩  
하고 신성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스러운 신뢰에 충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63:64)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교리와 성약  
6:12)<sup>12</sup>



## 성전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이 성전들은 구주의 속죄를 온전히 성취하는 데 필  
요합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신권의 권세로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승영으로 인  
도하는 의식들이 집행될 것입니다.<sup>13</sup>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대리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님이 십이  
사도들과 함께하셨을 때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성신권의 열쇠로서 주님의 집  
에서 집행되는 그러한 독특하고 훌륭한 의식들을 포함하여 많은 축복들이 더  
해지는데, 그러한 열쇠는 고대에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 경륜의 시  
대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식 안에서만 “신권의 충만한 것”(교리와 성약  
124:28)이 행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sup>14</sup>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sup>15</sup>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남자나 여자에게는 성전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 축복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씻  
음과 기름부음 의식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복음 원리에 따라 행  
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의무와 축복의 엔다우먼트가 주어지는, 가르침

을 위한 의식도 포함되며, 영속적인 가족을 위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인봉 의식도 포함됩니다.<sup>16</sup>

수년 전에 저는 중병으로 죽어 가는 한 어머니를 병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섯 살 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네 명의 자녀와 남편을 남겨 둔 채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에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닳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닳친 이별이 애절한 만큼이나 언젠가는 기쁜 재회가 있을 것이라는 아름답고도 분명한 신앙이 그들의 눈물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족 관계가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신권의 권능 아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성전 결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고국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멀리 하와이 라이에 성전까지 여행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줄였던 일본 성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하네스버그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11,000킬로미터나 떨어진 영국 런던 성전에 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 필수품까지 절약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났으며,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고, 그들이 치른 대가 이상의 값진 가치가 있었다는 간증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해안에서 온 한 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결혼으로 맺어졌다가, 나중에 아내와 자녀와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대륙을 힘겹게 여행한 다음 타스만 해를 건너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와이카토 계곡에 있는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자동차와 가구와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성전에 갈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인 대가를 치러서도 안 되겠지. 주님께서 내게 일할 힘을 주시면 다시 차와 가구와 접시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구나’”<sup>17</sup>

형제 자매 여러분, ... 성전이 운영되어 이 성스러운 집의 제단에서 아내를 껴안은 건장한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 똑같은 제단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행사되는 권능을 통해 그들은 시간과 죽음도 그들을 함께 묶어 놓은 유대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18</sup>

## 3

### 성전은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받는 봉사의 성소이다.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 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침례, 결혼, 가족 관계를 결봉해 주는 인봉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없으나 똑같은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sup>19</sup>

이곳은 봉사하는 성소입니다. 이 성스러운 집에서 수행되고 있는 의식들은 대부분 죽음의 장막 저편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 대리행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치른 희생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의식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저 세상 분들에게서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봉사이며, 본질적으로 비이기적인 봉사입니다.<sup>20</sup>

아주 많은 소년, 소녀들이 ... 이러한 성전들이 그들의 부모들뿐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했습니다. 12세가 되면 그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죽음의 장막 너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침례받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비이기적인 봉사입니다. 우리의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도울 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비이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증가한 이 성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가족 역사 사업의 증가입니다. 다양하게 세분화된 컴퓨터가 이 사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시다는 결론 외에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컴퓨터 기기의 발달로 많은 성전들이 신속한 가족 역사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21</sup>

우리에게는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즉 지구에 살았던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의 남성들과 여성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sup>22</sup>

장막 저편에서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 계신 분들은 깨어나 “불멸과 영생”(모세서 1:39)으로 발전해 나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sup>23</sup>

#### 4

### 우리가 합당성을 유지하고 자주 성전에 간다면 큰 축복이 올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세워,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시라는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 요구되는 것은 많겠지만, 그 축복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sup>24</sup>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세상 모든 곳의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으며, 그것을 고귀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된 영광과 축복을 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sup>25</sup>

여러분이 성전에 자주 갈 수 있든 자주 가지 못하든 간에,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고 추천서를 언제나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면 후기 성도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sup>26</sup>

저는 진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을 나설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소음과 요란스러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거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sup>27</sup>

이 성스러운 전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온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개요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전세에서부터 현세를 통해 내세로 연결되는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인간의 영원한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진리들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말로 가르쳐줍니다. ...

성전은 또한 개인적으로 영감과 계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계시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전 안에 있을

때나 그 후에 자신들이 따라야 할 방향 제시가 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성전은 영원한 진리의 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4:14) 주님은 위와 같이 성스러운 본질과 영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벽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은 성약의 집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실전하겠다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약속을 하며, 모든 참된 종교의 반석이 되는 원리에 따라 살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습니다.<sup>28</sup>

인생이 불안으로 가득합니까?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방법에 대해 명상할 기회를 갖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며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sup>29</sup>

어둠이 드리웠을 때, 주님의 집으로 가서 세상의 것들을 차단해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의식을 받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도 그 의식들을 확장하십시오. 성전에서 의식을 마칠 때, 해의 왕국실에 조용히 앉아 여러분이 받은, 유익이 되었던 축복들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부풀 것이며 주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sup>30</sup>

이 소란스럽고, 복잡대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성결케 하는 주님의 영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이기적인 영향력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가서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 대리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

여러분에게 이 축복받은 특권을 더 잘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성전 참석은 여러분의 성품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생기는 이기심의 껍질을 벗겨 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성결케 하는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미칠 것이며 우리가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해 줄 것입니다.<sup>31</sup>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간다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삶은 더욱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집에 가



“주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며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받게 되리라고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진심을 다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sup>3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힝클리 회장은 성전 의식이 “우리의 신학사상 가장 심오한 표현”(1편)이며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2편)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성전 의식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힝클리 회장은 성전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2편 참조) 여러분의 경험에서 볼 때, 성전 의식은 왜 것처럼 깊은 감정을 일으키는가?
-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 관해 힝클리 회장은 “우리의 청소년이 ... 완전히 비이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라고 말했다. 부모와 청소년은 이와 같은 봉사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할 시간을 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전 밖에서의 삶에 영향

을 줄 수 있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4편을 참조한다.) 성전에 가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 관련 성구

출애굽기 25:8; 열왕기상 6:11~13; 교리와 성약 88:119~120; 109:12~13, 24~28; 110:1~10; 128:22~24

###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사고는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며, 기억력도 증가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7쪽)

### 주

1.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9쪽.
2.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49쪽.
3.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6), 325.
4. “This Is a Day Long Looked Forward To” (text of the dedicatory prayer for the Colonia Juárez Chihuahua Mexico Temple, Mar. 6, 1999), *Church News*, Mar. 13, 1999, 7.
5.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 87~88쪽.
6.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995-1999* (2005), 311-12.
7.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641.
8.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74쪽.
9.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623-24.
10.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16쪽.
11.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12.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킴”, 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61쪽.
13. “Shining Star in a World Oppressed with Darkness” (text of the dedicatory prayer for the Manhattan New York Temple, June 13, 2004), *Church News*, June 19, 2004, 5.
14.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시대를 기뻐함”,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61쪽.
15.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88쪽.
16. “성전과 성전 사업”, 성도의 빛, 1982년 11월호, 3쪽.
17.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4~6쪽.
18.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시대를 기뻐함”, 62쪽.
19. “왜 성전을 지을까요?”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6쪽.
20. “솔트레이크 성전”, 성도의 빛, 1993년 11월호, 5~6쪽.
21.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쪽.
2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640.
23.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154.
24.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 362.
25.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57쪽.
26. “영감을 주는 생각”,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4쪽.

27. “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57쪽.
28. “솔트레이크 성전”, 6쪽.
29.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Apr. 1996, 72.
30. *One Bright Shining Hope: Messages for Women from Gordon B. Hinckley* (2006), 103.
31.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4~105쪽.
3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624.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만인이 받을 수 있으나 그 효력은 개인적으로 적용됨

“제가 ... 간증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속죄 없이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종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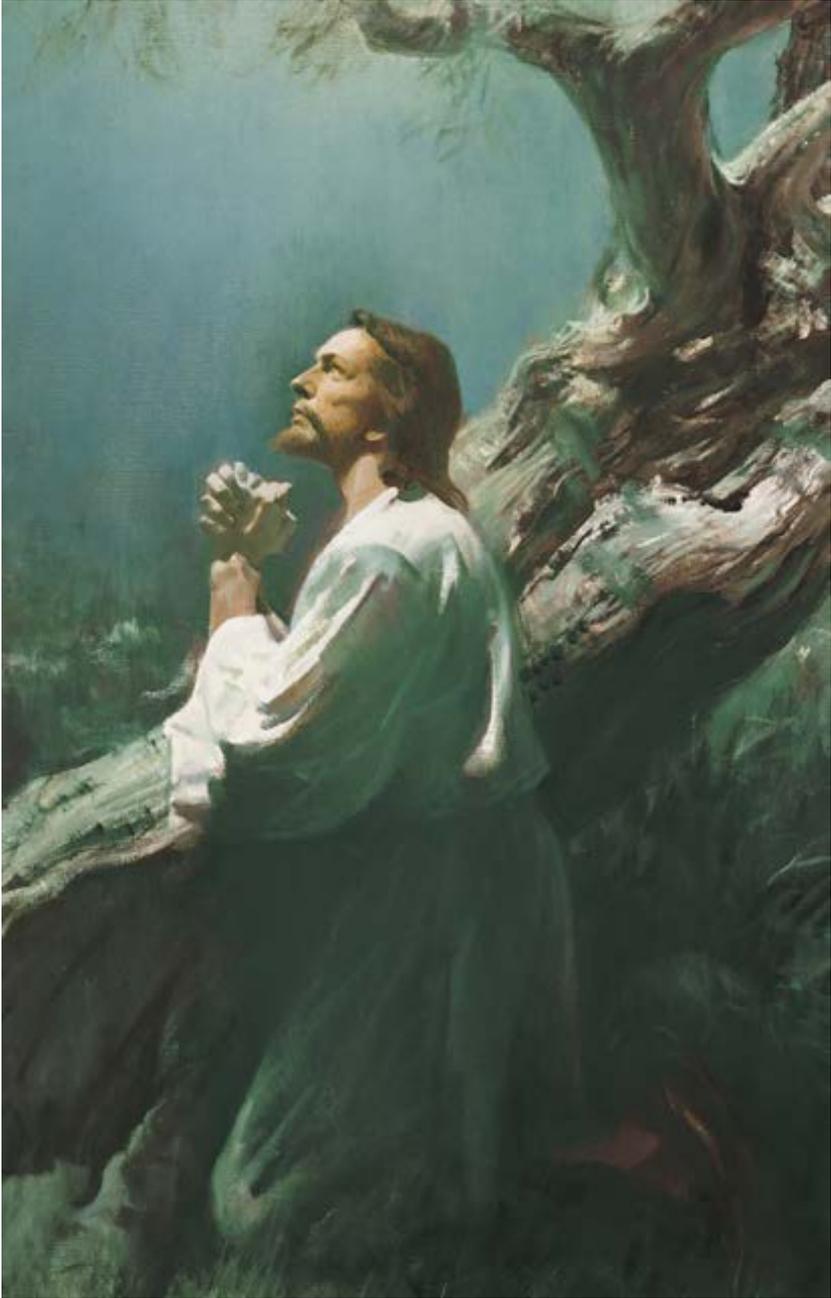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힝클리 회장은 2000년 1월 1일에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구주에 대한 하나 된 간증을 출판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다.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습니다.”<sup>1</sup>

이로부터 3개월 후 연차 대회 말씀에서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삶에 미친 구주의 심오한 영향력에 대해 간증했다. 그는 부드럽게 개인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때때로 목이 메기도 했다.

“오늘 아침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거룩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

예수님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저에게 것처럼 많은 것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그분은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생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과 그분의 속죄 희생에 달려 있었습니다. …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의 종석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이 사신 방법, 절대 사심이 없는 행동,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극진한 봉사, 그분의 최후의 희생은 모두 저에게 모범이 됩니다. 저는 그분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경이로운 기적에 놀랍니다. 저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생명과 죽음의 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참된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성역을 베푸실 때 있었던 기적은 보기만 해도 훌륭한, 동정심, 사랑, 인간성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지도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탄생 이후로 이천 년 동안 그분을 사랑하고 따랐던 긴 행렬 가운데 한 사람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분은 저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죽음에 따르는 영원한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저와, 우리 각자,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빛과 이해, 발전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저의 감사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저의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왕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흠 없고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저는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 이 말씀을 드립니다.”<sup>2</sup>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일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얼마나 깊은 감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무한히 깊은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신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sup>3</sup>

### 구주의 전세 성역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의 장자요,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이 그 계획의 열쇠였습니다. 인간은 선택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죄 짓고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으셨으며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구속주요 구주가 되었습니다.<sup>4</sup>

### 구주의 지상 성역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주님의 장엄함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이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 소년이 되었고,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누가복음 2:52)

주님은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마태복음 3:16~17)

주님은 지상에서의 3년 간의 성역 기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 이전에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희생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이 베풀어졌을 때, 주님은 필멸의 상태로서는 마지막으로 십이사도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sup>5</sup>

###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

그런 후 겟세마네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6</sup>

그분이 깃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여 몸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위대한 속죄를 위한 희생의 일부였습니다.<sup>7</sup>

[언젠가 한번 저는 깃세마네 동산의] 어느 늙은 감람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핏방울을 땀처럼 흘리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이 곧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분명한 미래를 마주한 채 하나님 아버지께 할 만하시거든 그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장면에 관해 읽고 있었습니다. … 저는 그분께서는 탄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십자가형의 육체적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그 고난에 임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것도 분명 그 고난의 일부였지만, 제 생각에 그 고통은 주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의 아들들과 딸들의 영원한 복리를 위한 자신의 역할, 그 안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부분을 알았기에 느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과 그분의 속죄 희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의 영생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의 종석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일은 가혹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분은 받아들여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놀랍고도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으며 두고두고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sup>8</sup>

### 체포, 십자가에 달리심, 사망

주님은 거칠고 잔혹한 인간의 손에 이끌려, 그것도 법률에 위배되게 밤중에 안나스 앞에 끌려갔으며, 그 후에 교활하고 사악한 산헤드린 관원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주님은 이 간교하고 타락한 사람 앞에 두 번째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 후, 그분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갔으며, 빌라도의 부인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마태복음 27:19) 빌라도 총독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으로 주님을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사악한 갈릴리의 헤롯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욕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으며, 피가 흐르는 몸에는 웃음거리로 흉포가 걸쳐졌습니다. 그분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으며,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누가복음 23:21)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비틀거리며 골고다까지 가셨으며, 그곳에서 그분의 상한 육신은 잔혹한 인간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sup>9</sup>

역사상, 속죄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구주와 인류의 구속주로서 겿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더 통렬한 장면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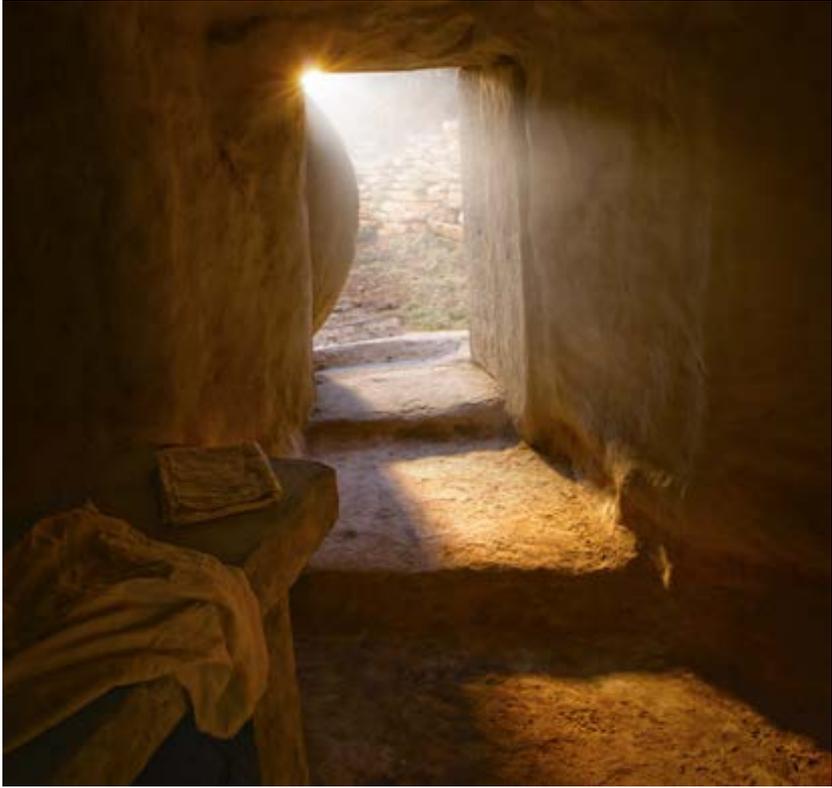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에서 해롤드 비 리 회장과 함께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고통, 즉 예수님이 홀로 영적인 고난을 겪고 계셨을 때,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올 만큼 극심했던 그 고통을 아주 적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2:44;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우리는 신뢰받는 직분에 부름받았던 한 사람의 배반을 회상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야만적으로 다룬 것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 27:46)라고 외치던 모습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행하셨습니다.<sup>10</sup>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생명이 고통 속에서 꺼져 갔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분은 바싹 마른 입술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누가복음 23:46)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이생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약속은 잊혔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무덤에 급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눕혀졌습니다.<sup>11</sup>

## 부활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일찍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에서 돌을 어떻게 굴러 낼지 걱정하며 서둘러 그곳으로 갑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5~6)

이것은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인류 역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sup>12</sup>

---

## 2

---

### 구주의 구속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아침의 기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므로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

님의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한 사랑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sup>13</sup>

죽음보다 더 일반적인 것도 없지만, 불멸에 대한 확신보다 더 밝은 희망과 신앙도 없습니다. 모든 죽음에 따르는 절망적인 슬픔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로 생긴 고통은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에 의해서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죽음의 차가운 손이 닿을 때마다, 그 시간의 슬픔과 암흑을 뚫고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권세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시 취하셔서 잠든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다른 모든 왕들 위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인 주님은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십니다. 몸에서 영이 떠나 밤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평안, 곧 유일하게 참된 평안이 되십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sup>14</sup>

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친구가 보여 준 선함으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의 미소와 친절할 따씨를 알았으며 그가 발휘했던 뛰어난 지성과 타인들에게 베풀었던 광범위한 봉사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토록 명석하고 훌륭했던 그 친구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생명이 없는 그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도, 움직임도 없었고 어떤 친절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저는 울고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듯이, 그들도 이 지상에서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이 평화와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단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거치게 되지. 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단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는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을 소멸하고 무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했단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sup>15</sup>

### 3

####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승영과 영생의 기회를 얻는다.

전능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들께서 죽음의 속박을 끊으시고 모든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 그분은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의 구속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부터 일어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멸뿐 아니라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sup>16</sup>

저는 그분의 속죄의 의미를 어느 정도만 이해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만인이 받을 수 있으나 그 효력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기에 이루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sup>17</sup>

그 속죄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곤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구주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때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고뇌가 너무 격렬하였기에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온 인류에게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함께 구원의 축복이 허락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승영과 영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분, 또한 그분의 위대하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희생을 통해서입니다.<sup>18</sup>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비로우신 용서를 받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할 방탕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입의 막대기로, 또 나의 진노로, 또 나의 분노로 너를 쳐서 네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느니라.] …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15~18, 23)<sup>19</sup>

모든 것을 고려해 보고, 모든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간의 가장 깊은 생각을 탐구해 보아도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자 하나님 왕국의 왕자, 인간에게 여호와로서 말씀하셨던 분, 지상에 강림하고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으로써 필멸의 운명에 처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분의 그 은혜로운 행위만큼 훌륭하고 경이로우며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셨습니다. …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4~5)

이것은 놀라운 실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3년간 성역을 베푸신 것은 그 이야기의 서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장엄한 본문은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완전히 비이기적인 행동 곧 그분의 희생입니다.

이 이야기의 맺음말은 부활의 기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는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성탄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고 또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분보다 더 위해했던 분은 없습니다. 그에 필적할 만한 희생을 치르거나 그에 필적할 만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절대적으로 그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경건함과 놀라움으로 부릅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를 예배 하듯이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래 전에 손을 내밀어 우리들 각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하셨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잠시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움과 위대함에 대해 명상하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sup>20</sup>

제가 … 간증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속죄 없이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필멸의 삶은 미래에 있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경감됩니다.<sup>21</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임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낮추어 지상에 오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정복된 나라의 속박된 백성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으신 장자, 그리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시며,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능케 하셨습니다.<sup>2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편 참조) 이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간추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가?
- 2편에서 힝클리 회장이 사망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그가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들과 비교해 본다. 이 단어들의 차이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구주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힝클리 회장의 간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편 참조) 속죄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구주에 관하여 “명상하고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계획한다.

### 관련 성구

이사야 53장; 요한복음 3:16; 11:25; 니파이후서 9:6~13; 앨마서 7:11~13; 34:8~10; 힐라맨서 14:13~19; 교리와 성약 18:10~1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특정 원리들을 강조하도록 인도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생활의 단순한 활동에서 사례, 소재, 영감을 주는 이야기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도움이 될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담이 떠오를 수도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8쪽)

### 주

1.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2. “나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3, 85쪽.
3.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4쪽.
4.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1쪽.
5. “사망을 이긴 승리”, *성도의 벗*, 1997년 4월호, 4쪽.
6. “사망을 이긴 승리”, 4쪽.
7.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3쪽.
8.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29-30.
9. “사망을 이긴 승리”, 4쪽.
10. “확신에 찬 생활”,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쪽, 4쪽.
11. “사망을 이긴 승리”, 4쪽.
12. “사망을 이긴 승리”, 4쪽.
13. “사망을 이긴 승리”, 4쪽.
14.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67쪽.
15.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4쪽.
1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5쪽.
17.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4쪽.
18. “용서”,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4쪽.
19.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성도의 벗*, 1991년 11월호, 6쪽.
20.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4~6쪽.
21. “제가 알고 있는 것들”, 84쪽.
22. In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6), 560.



## 신앙으로 나아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하게 하고, 신성한 확신을 얻은 후에는 일어나 나가서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일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젊은 시절] 제가 선교사 임지로 떠날 때 훌륭하신 제 아버지는 저에게 짧은 문장을 적은 카드를 건네셨습니다. 그 문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회당장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sup>1</sup> 젊은 힝클리 장로는 영국에서 봉사하는 동안 이 문장을 기억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후에 그는 그러한 경험 중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런던의 서너 개 신문에 한 낡은 책의 재판본을 물몬의 역사라 주장하며 그 책에 대한 비평이 신랄한 어조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선교부 회장이셨던] 메릴 회장님은 저에게 ‘장로님이 그 책의 발행인을 찾아가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쳐다보며 ‘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순하게 ‘예,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두려움에 차 있었다는 것을 속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으며, 모세도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지시하셨을 때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프릿 가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굿지 가로 걷는 동안 배가 몹시 쓰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장실을 찾아가면 저는 비서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비서가 제 명함을 가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오늘 사장님이 너무 바빠서 면회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8천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왔으며, 기다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한 시간 동안 비서는 사장



“신앙은 결국에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참되고 지속되는 희망입니다.”

실을 서너 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본 광경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긴 시가를 피우며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그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힘이 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으며, 심지어 적대감까지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의 약속과 함께 면회가 끝났습니다. 한 시간도 채 안 되어서 영국의 모든 서점에 그 문제의 책을 출판사로 반품해 달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책이 실화가 아닌 소설이며 더구나 훌륭한 물문교인들을 비방할 뜻에서 저술된 책이 아니라는 해명서를 회수된 책의 앞면에 모두 인쇄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 주었습니다.”<sup>2</sup>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하라는 이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헝클리 장로가 일생 동안 반복한 행동 양식의 실천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힘든 과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 일하는 것이었다.

##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

### 1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목적 있는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를 얻기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 역동적이고 강력하고 놀라운 요소는 바울이 선언한 대로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히브리서 11:3 참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천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작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하게 하고, 신성한 확신을 얻은 후에는 일어나 나가서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일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비할 것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결국에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참되고 지속되는 희망입니다.

… 신앙은 목적 있는 삶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구한다면 도움을 주신다는 지식은 가치 있는 노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

… 신앙에 대해 논할 때, 저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식할 때 오는 생명력과 활기를 뜻합니다. …

… 기록하신 분, 전능자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동력입니다.<sup>3</sup>

오래전, 저는 서부 산악 지역을 관통하는 열차를 운영한 철도 회사의 한 역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기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는 증기 기관차가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철로 위의 그 괴물 덩어리는 크고, 빠르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종종 기관사가 밤의 어둠을 뚫고 어떻게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먼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짧은 길의 지속적인 연결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관차에는 4~500미터 전방을 환히 비춰 주는 성능 좋은 헤드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그 부분만 볼 수 있었고, 밤이 가고 새벽이 올 때까지 자기 앞의 그 거리만 계속 보고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의 영원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로 내닫게 되지만 신앙으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키워 나가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그다음 걸음을 내딛고 심지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책임이라도 주어지면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비춰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를 부여받습니다.<sup>4</sup>

## 2

### **신앙은 간증의 토대이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사업의 힘이다.**

교회의 진정한 부는 그 백성들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sup>5</sup>

성신의 기적으로 감동을 받아 수천 명이 믿고 받아들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이들의 삶은 영원히 훌륭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배울수록 신앙이 커집니다. 그리고 원리에 원리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 이 소중한 놀라운 신앙의 은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은사는, 아직도 이 사업의 원동력이며, 그 메시지의 생명력입니다. 신앙은 모

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실체가 됩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든, 십일조를 내는 것이든 모두 똑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입니다.

… 이 사업과 왕국의 힘은 비록 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자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이 왕국이 강대하고 성장해 가는 이유가 그 힘입니다.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내리신 신앙의 은사에서 왔습니다. …

신앙은 간증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충실함의 토대가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즐겁게 바치는 희생을 뜻합니다.<sup>6</sup>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업입니다. …

두려워하지 마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요 힘이요 왕이십니다.

지금은 비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굳건히 하고, 이 사업을 온 세상에서 전진시키도록 당부드립니다. …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들아,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교리와 성약 128:22) 신앙의 시편에서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의 과거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과거는 영웅담과 용기와 대담함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게 될 백성들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현재는 얼마나 기이합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 온 세대의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전진시켜 나아갈 때 미래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든지, 굳건히 서서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며 전진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왕국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 길에 머물며 신앙을 수호합시다.<sup>7</sup>

## 3

###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장애물이나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즉시 정복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져서 정복당하여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무지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주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을 바꾸는 것을 겁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며 이 끈질기고 파괴적인 힘은 진리와 의의 원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두려움은 신앙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매우 해로우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sup>8</sup>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데후서 1:7~8)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성구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기를 바랍니다. 그 성구는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일 용기와 그것을 시도할 신앙을 갖게 해 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온 세상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sup>9</sup>

언젠가 저는 조국을 떠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 패망함에 따라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무런 소식도 나누지 못한 채 3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으며 생활 환경은 말이 아니었고 나아질 전망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 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가벼워지더군요.”<sup>10</sup>

다 잘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데후서 1:8)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sup>11</sup>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더 큰 신앙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을 거라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역경도 너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수치스럽고 사악한 행동으로 이끄는 그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꺾이고 패배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자신의 신앙의 힘과 권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sup>12</sup>

## 4

우리가 신앙을 행사할 때 주님은 그 신앙이  
더 자라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시간과 재능을 바쳐 봉사하는 동안 신앙이 자라고 의심이 줄어들 것입니다.<sup>13</sup>

교회는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다양한 책임을 맡아 봉사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업적 성직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성직자가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이 올 때, 그 부름에 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되고 커질 것입니다. 신앙은 제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제가 팔의 근육을 사용하고 돌보면 팔은 강해지고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팔을 그냥 늘어뜨려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팔은 약해지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sup>14</sup>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드리는 저의 간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누가복음 17:5 참조] 불확실함과 의심의 간격을 없애도록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

… 주님, 주님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업을 약하게 하는 비방자를 물리치고 일어서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위대하신 명에 따라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

…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미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전능하신 당신을 의지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역경의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치고 땅에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 신앙을 주옵소서. 병고에 시달릴 때 신권의 권능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야고보서 5:14~15; 기oul임체 추가) …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시련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과, 우리는 이생의 시련기를 지나 더욱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 모든 자가 죽음에서 일어나며, 충실한 자가 승영에 이르게 함을 알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에 참여하여 모든 시대에 살았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작은 일에서 권고에 따를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

주님, 우리가 가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선하고 위대한 것을 행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시여,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영원하신 사업, 당신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 당신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나아가 일하는 우리의 능력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sup>15</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힝클리 회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동력”(1편)이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신앙의 힘을 배울 수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느 때에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내닫게 되지만 신앙으로 길을 밝힐 수 있[는]” 경우를 보았는가?
- 우리는 2편에서 교회의 힘의 원천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신앙과 희생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 사업을 온 세상에서 전진시키[라는]” 힝클리 회장의 당부에 어떻게 응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왜 신앙이 시련의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편 참조) 신앙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여러분을 도왔던 때는 언제인가? 신앙이 다른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여러분을 도왔던 때는 언제인가?
- 4편에 있는 힝클리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이 기도에서 어떤 문구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가? 불확실함과 의심을 이기는 데 신앙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넘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돕는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14:12~14; 로마서 5:1~5; 니파이후서 26:12~13; 모로나이서 7:33~38; 교리와 성약 27:16~18

교사를 위한 도움말

“규칙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며 진지하게 영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공과를 준비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또한 가르치는 동안 영을 받고 영을 따르는 것에 민감해지도록 준비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4쪽)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69, 114.
2.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6쪽.
3. *Standing for Something: Ten Neglected Virtues That Will Heal Our Hearts and Homes* (2000), 109–10.
4. 고든 비 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0~81쪽.
5. “교회의 형편”,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55쪽.
6. “기적을 낳는 신앙”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3~85쪽.
7.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1~72쪽.
8.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의 벗, 1985년 2월호, 21쪽.
9.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의 벗, 1996년 5월호, 6쪽.
10.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의 벗, 1990년 4월호, 5쪽.
11. “Latter-Day Counsel: Excerpts from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Oct. 2000, 73.
12. *Standing for Something*, 109–10.
13. “그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도의 벗, 1983년 9월호, 8쪽.
14.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8쪽.
15.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60~62.



---

## 시각 자료 목록

- 40쪽: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의 세부, 그레그 케이 올센
- 47쪽: 한 목자, 하워드 라이언
- 56쪽: 엔사인 산에 서 있는 브리검 영, 에이 발로워 이튼
- 60쪽: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의 세부, 하인리히 호프만.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 76쪽: 팔리 거리의 끝, 글렌 에스 홉킨슨
- 82쪽: 손수레 구조대, 글렌 에스 홉킨슨
- 120쪽: 산상 수훈의 세부, 해리 앤더슨
- 125쪽: 제자의 길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 저스틴 쿤즈
- 122쪽: 엠마오로 가는 길, 존 맥너튼
- 134쪽: 주 예수 그리스도, 텔 파슨
- 168쪽: 니파이의 부러진 활, 마이클 자르비스 넬슨
- 192쪽: 베테스다 못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 220쪽: 물문경을 읽는 팔리 피 프랫, 제프 하인
- 234쪽: 그리스도 모습의 세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 284쪽: 더 잃지 않도록, 그레그 케이 올센
- 306쪽: 사진 © *Deseret Morning News*
- 310쪽: 갯세마네의 그리스도, 해리 앤더슨
- 327쪽: 그리스도와 소년의 세부, 칼 하인리히 블로흐



# 색인

## ㄱ

### 가정

- 고든 비 힝클리의 -, 157
- 에서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함, 229~230
- 의로운 삶의 기초인 -, 157~166
- 또한 가족 참조

### 가정의 밤, 161

### 가족

- 관계는 가장 신성한 관계임, 158
- 선언문, 28, 157
- 에 대한 교회의 입장, 57~58
- 은 사랑과 존경으로 강화됨, 164~165
- 은 사회의 기본 단위 조직임, 47~48, 105
- 은 영원히 인봉될 수 있음, 47~48
- 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것임, 158

### 가족 기도

- 고든 비 힝클리 가정의 -, 101
- 는 기적으로 이어짐, 104~107
- 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도움, 160

### 가족 선언문, 28, 157

### 간증

- 고든 비 힝클리의 -, 4, 6, 32, 133, 309~311, 318~319
- 물몬경에 대한 -, 216~217
- 우리는 -을 나누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함, 142

- 우리 생활은 우리의 -을 나타내야 함, 122
- 은 교회에 큰 힘이 됨, 135, 177, 324~325
- 은 신앙 안에서 걷는 우리를 지탱해 줌, 135~140
- 의 은사, 133~143

### 감독, 257~259

### 감사, 66~67

### 개종자 유지, 29~30, 285~294

### 개척자들

- 교회의 모든 회원은 -임, 83~84
- 윌리 손수레 부대와 마틴 손수레 부대의 -, 80~83
- 은 그들의 신앙을 실현했음, 77~79
- 의 유산, 75~86
- 초기 교회의 -, 3, 54~55, 75~86
- 현대의 -, 77, 83~84

### 결정, 175~176

### 결혼

- 마조리 페이와 고든 비 힝클리의 -, 12~13, 89~90, 145~147
- 생활 안에서 정직하고 충실함, 154
- 생활에서의 행복은 애정 어린 관심에서 시작됨, 152~154
- 영원한 동반자 관계로서의 -, 145~154
- 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임, 149
- 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것임, 147~148

계시

- 는 작고 고요한 음성을 통해 음, 114~115
- 소규모 성전을 지으라는 -, 30~31, 297~299
- 중국 홍콩 성전을 지으라는 -, 111~113
- 현대의 -, 49

관용, 264~266, 267~269, 275

교육

- 고든 비 힝클리리의 -, 4~5
- 영구 교육 기금(PEF)을 통한 -, 27~28, 180, 185
- 영적 -은 현세적 -만큼 중요함, 232~234
- 은 기회를 열어 줌, 228, 230~232
- 평생 이어지는 -, 225~235

교회의 개종자들

- 에게는 우정이 필요함, 290~291
- 에게는 책임이 필요함, 287~288, 290~292
- 은 소중함, 287~290
- 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함, 287, 290, 292~293

교회 회장

- 선임 사도가 다음 -이 됨, 251~252
-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때, 253~255
-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음, 250~251

구원의 계획, 48, 304

균형에 맞지 않게 자라는 나무, 161~162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조

기도

- 가족 -는 기적으로 이어짐, 104~107
- 가족 -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도움, 160

고든 비 힝클리리 가정에서의 가족 -, 101

- 는 축복과 행복을 가져옴, 101~103
- 에 대한 응답을 구함, 107~109
- 의 힘, 101~109

L

---

낙관주의, 63~72

C

---

단합

- 교회 회원 간의 -, 59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간의 -, 256
-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의 -, 261~263

더 나은 사람이 됨, 71~72, 170~171, 200, 243

독신 성인, 150~151

두려움, 69~71, 142, 326

M

---

몰몬경

- 고든 비 힝클리리 - 독서 과제, 215
- 성경과 짝을 이루는 증거인 -, 46
- 에 관한 이야기, 172~173, 218~219
- 에 대한 간증은 다른 진리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옴, 217~218
- 에 대한 증거를 받음, 216~217
- 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함, 46, 216
- 은 우리가 현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됨, 218~219
- 은 우리의 삶과 관점을 바꿀 수 있음, 219~222
- 의 권능, 215~222
- 조셉 스미스가 -을 번역함, 216, 218

## ㄷ

배도, 41~42, 46

## 복음

- 은 승리의 메시지임, 69~70
- 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줌, 67~69, 93
-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됨, 39~41,  
 43~49

복지, 184~185, 187

## 봉사

- 교회는 -할 기회를 제공함, 198~200
- 는 불행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임, 195~197
- 상호부조회에서의 -, 95~96
- 성전에서의 -, 303~304
- 하며 자신을 잊음, 191~200
- 하면서 참된 자신을 찾음, 197~198
- 할 때 성신이 우리를 인도함,  
 113~114

## 부모

- 는 가정에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229~230
- 는 반항하는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됨, 163
- 는 일찍부터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함, 278~279
- 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  
 103~104, 160, 163
- 는 화를 제어해야 함, 163~164
- 에게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 158~160
- 한부모, 159

부채, 187~188

## 부활

- 구주의 속죄로 -이 가능해졌음,  
 315~319
- 예수 그리스도의 -, 124~126,  
 314~315

## ㄸ

사도, 41, 251~252, 255~256

## 사랑

- 가족은 -으로 강화됨, 164~165
- 결혼 생활에서의 -, 147~154
-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 267~279
- 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 193
- 은 복음의 기초가 되는 정수임,  
 194
- 저활동 회원에게 -으로 다가감, 288

상호부조회, 95~96

## 선교 사업

- 가족 기도는 -에 힘을 실어줌,  
 105~107
- 고든 비 힝클리의 -, 6~8, 63, 191,  
 273~274, 321~323
- 은 신권 책임임, 278
- 은 행복을 가져옴, 278~279
- 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감, 274~275
- 을 하는 전임 선교사들을 도움,  
 275~278
- 을 하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킴,  
 278~279
- 주님은 -에 쏟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심, 281
- 후기의 -, 273~281

## 선지자

- 는 보통 연세 많은 남성임, 251
- 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권고함,  
 185~187

주님에게 부름받음, 250~251

## 성신

- 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를 인도함, 113~114
- 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극복하도록 도움, 279~280

-은 우리를 밝혀 주고, 힘을 주며,  
고양시킴, 115~117

-은 우리에게 계시를 속삭임,  
111~117

-은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 113~114, 117

-은 진리에 대해 간증함, 113,  
216~217

성약, 117, 170~171, 305

성전

가족은 -에서 함께 인봉될 수 있음,  
148~149, 301~302

소규모 -을 지으라는 계시, 30~31,  
297~300

-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 303~304

-은 우리 간증의 표현임, 300~301

-은 평안과 계시의 장소임, 304~306

-의 축복, 297~306

속죄. 예수 그리스도, -의 속죄 참조

순종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171~172

-은 교회를 강화시킴, 176~177

-은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의미임,  
169~177

-은 행복으로 가는 방법임, 67

축복은 -을 통해 옴, 59, 172~173

스미스, 에머, 91~93, 173

스미스, 조셉

-가 물문경을 번역함, 216, 218

교회는 -를 통해 회복되었음,  
39~41, 43~49, 135

-에 대한 간증, 126

-의 첫번째 시련, 43, 45~47

스테이크 회장, 256~257

시련. 역경 참조

신권

-과 교회 조직, 47, 249~259

멜기세덱 -, 206~207

모든 합당한 남성이 -을 지닐 수  
있음, 207

-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음, 206~207

-을 소유하기 위한 합당성, 207~210

-의 권능 및 축복, 203~212

-의 권세와 열쇠가 회복됨, 41,  
43~45, 135, 205~206

- 정원회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음,  
210

하나님은 -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심, 206

신앙

개척자들의 -, 77~79

-은 간증의 기초임, 324~325

-은 그것을 행사할 때 커짐,  
328~329

-은 두려움과 역경에 굴하지 않게  
해줌, 326~327

-은 목적 있는 삶의 원천임,  
323~324

-을 가지고 나아감, 321~329

의로운 여성들의 -은 권능을  
불러옴, 98

신회, 45

○

---

아버지

신권 지도자들은 선택해야 함,  
208~210

-의 책임, 158~159

또한 가족; 부모 참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조  
안식일, 58, 117

어머니

-라는 신성한 부름, 93~94  
-의 책임, 158  
또한 가족; 부모 참조

여성

교회에서 -이 가진 책임, 94~95  
신권 소유자와 함께 일하는 -,  
94~95, 211~212  
-을 위한 기회, 231~232  
충실한 -의 힘, 96~98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지닌 신성한  
위치, 90~91  
하나님의 딸로서의 -, 89~98

역경

개척자들이 겪은 -, 3, 75, 78, 79~83  
물문경에 나오는 -, 218  
신앙은 -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됨,  
326~327  
-에 굴하지 않고 계속함, 65  
-에 대비함, 185~187

영. 성신 참조

영구 교육 기금, 27~28, 182, 185

예수 그리스도

-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임, 41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32, 309  
십자가에 달리심, 124, 313~314  
어떤 이들은 -의 신성을 부정함,  
127~128  
-에 대한 간증을 얻음, 127~130,  
140~142  
-와 하나님 아버지는 별개의  
존재임, 45  
우리는 -를 바라봄, 121~131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심, 59, 281

-의 부활, 124~126, 314~315  
-의 속죄, 124, 309~319  
-의 전세에서의 성역, 312  
-의 지상에서의 성역, 122~124, 312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심, 41,  
43~4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는 봉사 기회를 제공함, 198~200  
-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음, 39~41, 43~49  
다른 교회와는 구별되는 -의 교리,  
45~49  
땅을 채움, 43, 53~54, 281  
온 나라를 향한 기치로서의 -, 51  
-의 각 회원에게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음, 55~57  
-의 조직, 47, 249~259  
-의 초기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운명을 예견했음, 54~55, 79~80

외설물, 117, 209, 241~245

우정

새로운 회원 및 저활동 회원과의 -,  
285~294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 261~269

의식

성전 -은 교회가 주는 가장 훌륭한  
축복임, 301~302  
죽은 자를 위한 -, 48, 303~304

일

-은 교회의 특징임, 183  
-을 통해 배운 교훈들, 181  
-의 필요성, 182~184

ㅈ

자녀

- 는 빛과 진리로 양육되어야 함, 94
- 는 어릴 때 가르침을 받아야 함, 161~162
- 는 일찍부터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함, 278
- 는 주님의 선물임, 159
- 들의 순수함, 48
- 반항하는 -에게는 사랑과 기도가 필요함, 163~164
- 의 삶은 가정의 가르침을 반영할 것임, 164~165

자립

-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도움, 184~185
- 영구 교육 기금(PEF)을 통한 -, 27~28, 182, 185
- 은 평안을 가져옴, 181~188

장년 선교사, 279

재정, 185~188

재난에 대한 준비, 185~186

저활동 회원

- 에게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함, 293~294
- 에게 사랑으로 다가감, 288

정결

- 우리 생각 속의 -, 244~245
- 위에 우리 삶을 세움, 239~245
- 의 가치, 92, 240
- 축복을 가져옴, 240~241

조셉 스미스, 스미스, 조셉 참조

존경

-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 264~266, 267~269
- 은 가족 관계를 강화함, 164~165

ㅊ

첫번째 시현, 41, 43~45, 53

ㅊ

평안

- 덕이 있는 생활에서 오는 -, 241~243
- 성전에서 -을 찾을 수 있음, 304~306
- 을 위해 기도함, 104
- 자립에서 오는 -, 181~188

프랫, 팔리 피, 219~221

ㅎ

하나님 아버지

- 는 가족을 제정하심, 158
- 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심, 59
- 는 우리를 사랑하심, 311~312
- 는 우리에게 그분께 기도하라고 권유하심, 103~104
- 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심, 48, 71~72, 103~104
- 는 육신을 가지고 계심, 45
- 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심, 59, 173
- 는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심, 41, 43~45
- 는 참된 힘의 근원이심, 92
- 에 대한 간증을 얻음, 140~142
- 와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이심, 45

학대, 209~210

행복

- 결혼 생활의 -은 애정 어린 관심에서 시작됨, 152~154
- 기도에서 오는 -, 101~103

- 봉사에서 오는 -, 195~197  
 선교 사업에서 오는 -, 278~279  
 -은 복음에 대한 지식에서 옴, 67~69, 93  
 -을 일꾼, 63~72  
 주님의 계획은 -의 계획임, 66
- 회개
- 구주의 속죄로 -가 가능해졌음, 317~318  
 -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 중 하나임, 67~68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 245
- 회복
- 복음의 -, 39~49  
 신권 열쇠 및 권세의 -, 43, 43~45, 205~206  
 -에 앞서 문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있었음, 42~43  
 조셉 스미스를 통한 -, 41, 43~49  
 첫번째 시현으로 시작됨, 41, 43, 53
- 힝클리, 고든 비
-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을 주최함, 25  
 60 Minutes에서 인터뷰함, 25, 263~26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28~29, 157~158  
 - 가족의 유산, 2~3, 75~77  
 교회 회장이 됨, 22~24, 249~250  
 남편으로서의 -, 12, 145~147  
 덴버와 리오 그란데 철도국에서 일함, 14  
 라디오, 홍보, 선교 사업 인쇄물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임명됨, 9~11, 14~15, 53, 215  
 마조리 페이에게 구애함, 6, 11~12, 145  
 마조리 페이와의 결혼, 12~13, 89~90, 145~147
- 본부 선교사 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임명됨, 14  
 소규모 성전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음, 30, 297~299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사용할 성전 엔다우먼트 영상을 개발함, 15~16  
 신회원 유지를 강조함, 29~30, 285~294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한 -의 봉사, 17~19, 249  
 아내인 마조리의 죽음을 애도함, 33, 147  
 아버지로서의 -, 12~13, 101, 157  
 암 판정을 받음, 34  
 영구 교육 기금(PEF)을 소개함, 27~28, 182, 185  
 영적 및 현세적 배움을 장려함, 27~28, 225~235  
 운영 중인 100번째 성전을 헌납함, 30, 299  
 유타 대학교를 졸업함, 6, 51  
 -의 간증, 4, 5, 32, 153, 309~311, 319  
 -의 교육, 4~6  
 -의 부모, 2~7, 63, 89, 153, 225  
 -의 사망, 34~35  
 -의 어린 시절, 3~4  
 -의 여행, 9, 26, 39, 89, 146, 274  
 -의 장례식, 35  
 -의 전임 선교 사업, 6~8, 63, 191, 273~274, 321~323  
 -의 출생, 2  
 자유 훈장을 수여받음, 25~26  
 제일회장단에서 한 -의 봉사, 19~22, 249~250  
 지역 회장단 부름을 발표함, 21  
 청년 시절 신앙의 시련을 겪음, 4~5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함, 31~32

색인

힝클리, 마조리 페이 (아내)  
고든 비 힝클리와 -의 결혼, 12~13,  
89~90, 145~147  
고든 비 힝클리의 구애를 받음, 6,  
11~12, 145  
-의 사망, 33, 147

힝클리, 브라이언트 스트링엄  
(아버지), 2~8, 63, 77, 89, 133, 181,  
191, 225~227  
힝클리, 에이다 비트너 (어머니), 2~8,  
63, 89, 133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